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北周의 華北統一 이후 入關山東士族의 잔류와 복귀

- 『貞觀氏族志』편찬 중 崔民幹 降格과 관련하여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류 정 환

北周의 華北統一 이후
入關山東士族의 잔류와 복귀

- 『貞觀氏族志』편찬 중 崔民幹 降格과 관련하여 -

지도교수 조 성 우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류 정 환

류정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入關山東士族이란 北魏가 東·西魏로 분리되면서 山東으로부터 關中 지역으로 들어간 山東士族을 가리킨다. 唐 초의 지배층은 크게 山東 지역에서 대대로 높은 성망을 유지해온 한인 문벌에 해당되는 山東士族, 北魏 말 이후 關隴 지역에 모인 여러 이질적인 집단들이 융합하여 형성된 關隴集團, 그리고 일부의 南朝出身者로 구성된다고 하는 것이 통설적인 이해이다. 이때 入關山東士族은 본래 山東士族이면서도 關隴集團의 일원이기 때문에 양쪽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入關山東士族은 선행연구에서 崔民幹이라고 하는 인물의 배경에 집중하며 주목받게 되었다. 『貞觀氏族志』의 편찬 과정에서 崔民幹은 初奏本에서 제 1등으로 등급이 매겨졌으나, 唐太宗은 崔民幹을 특별히 지목하여 그의 降格을 지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崔民幹이 初奏本에서 제 1등으로 매겨질 수 있었던 이유로 그가 최상층의 山東士族 출신이면서도 그의 조부인 崔猷가 西魏 정권에 합류하여 關隴集團의 일원이 되었던 배경, 즉 이 崔猷 계통이 入關山東士族이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唐太宗이 어째서 특별히 崔民幹의 降格을 요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北魏 말에서 唐 초에 걸친 시기에서 入關山東士族의 사회적 동향을 검토하면서, 특히 建德 6년(577) 華北이 통일되었을 때 入關山東士族이 關中에 잔류하였는지 山東으로 복귀하였는지를 주목하였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崔猷 계통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崔民幹의 降格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육진의 난(六鎭之亂)'이 일어나면서 北魏에서는 전국적으로 반란

이 일어났다. 결국 北魏는 東魏와 西魏로 나뉘어, 建德 6년(577) 西魏를 이은 北周가 東魏를 이은 北齊를 멸망시키며 華北을 통일할 때까지 약 40여 년 동안 분열되었다. 西魏에는 다양한 지역과 이질적인 출신으로부터 사람들이 새롭게 모여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때 入關山東士族은 상대적으로 핵심지배층이 아니라 부속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入關山東士族들은 대체로 530년대 중반에서 540년대 초반에 入關하였기 때문에, 정권에 합류한 시점으로 봤을 때 정권의 초기참여자였다.

入關山東士族들은 비록 정권의 최핵심부에 들어가지는 못하였으나, 여전히 여러 주요 전역과 정책에 참여하면서 공훈을 쌓고 고관을 역임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권의 핵심층과 통혼을 맺으며 지배층에 편입되었다. 한편, 西魏 정권에 합류한 인물들은 처자식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서 關中에서 새롭게 혼인을 맺은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540년 무렵에는 入關 제 2세대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다수 태어났다. 이들은 關中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交遊하며 성장하였기 때문에 보다 關中人으로서의 정체성, 내지는 집단의식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建德 6년, 華北이 통일되면서 入關山東士族에게는 씨족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山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때 入關山東士族들이 山東으로 복귀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고, 구체적인 사례로는 崔猷 계통이 河北 지역으로 歸葬한 것과 北齊系 山東士族과 긴밀하게 연결된 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른 入關山東士族과 관련된 墓誌銘 사료를 검토해 본 결과, 河北으로 歸葬하지 않고 關中 지역에 대대로 매장한 계통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入關山東士族 중에서 山東으로 복귀한 경우와 關中에 잔류한 경우의 차이를 발생시킨 가장 큰 요인은 入關 제 1세대의 생존여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崔猷 계통의 경우 입관한 당사자인 崔猷가 華北統一 이후로도 생존해있었으며, 그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본인이 직접 약 70세의 老軀를 이끌고 山東에 가서 離散되었던 가족들을 만났던 것이 유력하다. 즉, 崔猷는 關中에서 태어난 入關 제 2세대와 北齊系 山東士族을 이어주는 중요한 촉진자 및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關中에 잔류한 경우에는 入關 제 1세대가 40여 년의 분열기 중에 이미 사망하여 入關 제 2세대가 집안의 미래 향방을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들이 山東으로의 복귀 또는 北齊系 山東士族과의 재결합에 어느 정도로 관심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崔猷와 같은 인물의 부재로 인해 華北統一 이후 關中 잔류를 선택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入關山東士族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唐太宗이 崔民幹을 특별히 지목하여 降格을 요구한 것은 그가 비록 '關中人'과 '山東人'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入關山東士族이지만, 적어도 唐太宗의 눈에는 '山東人'의 성격이 보다 두드러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唐太宗은 평소에 '關中人'과 '山東人'을 구분하는 언행을 하였으며, 공신들을 황제릉 주변에 陪葬할 것을 명령할 정도로 매장지를 중시한 인물이었다. 그런 唐太宗이기 때문에 그는 關中으로부터 먼 河北으로 수차례에 걸쳐 歸葬을 행한 崔猷 계통에게 '山東人'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唐太宗에게 직접 지목된 崔民幹 및 다른 崔猷의 후손들은 華北統一 이후 2대에 걸쳐 행한 河北으로의 歸葬을 중단하고, 關中에 새롭게 묘역을 설정하게 된다. 이는 唐太宗의 정치적,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山東人'이라는 꼬리표를 다시 '關中人'으로 바꾸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入關山東士族, 貞觀氏族志, 崔民幹, 入關 2世代, 華北統一, 歸葬
학 번 : 2018-29075

목 차

머리말 ····· 1

Ⅰ. 西魏·北周 지배집단 내의 入關山東士族 ····· 4
1. 西魏·北周 지배집단의 형성과 山東士族의 入關 ····· 6
2. 西魏·北周 지배집단 내 山東士族의 人的結合 ····· 15

Ⅱ. 建德 6년(577) 華北統一 이후 入關山東士族의 잔류와 복귀 ····· 21
1. 崔猷의 河北 歸葬과 北齊系 山東士族과의 합류 ··· 22
2. 入關山東士族 2세대의 關中 잔류 ····· 28

Ⅲ. 『貞觀氏族志』 편찬 중 崔民幹 降格과 崔猷 계통의 關中 복귀 ····· 42

맺음말 ····· 58

참고문헌 ····· 63
부 록 ····· 72
Abstract ····· 74

표 목 차

[표 1] 西魏·北周 지배집단 내의 入關山東士族 ····· 13
[표 2] 唐 代 사족의 籍貫 중앙화 시기 ····· 46

그 림 목 차

[그림 1] 北魏 지도 일부 ····· 40

머리말

『貞觀氏族志』는 貞觀 12년(638) 정월에 완성되어 천하에 반포된 관찬씨족지로, 총 100권이며 293성 1,651가가 등재되었다. 당대 초기에 만들어진 이 씨족지는 당시 관에서 지배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료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貞觀氏族志』는 오늘날 남아있지 않고, 잔본이나 또는 산일된 내용도 너무 단편적으로만 몇몇 문집에 남아있을 뿐이다. 이러한 『貞觀氏族志』의 유실은 당대의 지배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있다.[1)]

하지만 『貞觀氏族志』의 편찬과정에 관련된 일화는 『貞觀政要』, 『舊唐書』, 『唐會要』, 『新唐書』, 『資治通鑑』과 같은 사료들에 공통된 내용이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이 일화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貞觀氏族志』의 편찬자들이 씨족들의 서열을 매겨 唐太宗에게 상주하였는데, 唐太宗은 崔民幹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 1등으로 매긴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山東의 崔, 盧, 李 鄭씨"를 비판하고 "현 왕조의 관직"을 기준으로 씨족지를 새로 편찬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로 인해 편찬자들은 씨족들의 서열을 수정하여 『貞觀氏族志』를 완성하였고, 이 수정본이 천하에 반포되었다.

이 일화에서는 唐太宗이 지배층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던 山東의 명족들에 대해 지닌 직접적인 인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초의 지배층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은 이를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각자 나름의 해석을 제시하여 왔다. 하지만 사료가 너무 단편적이면서도 사서마다 약간씩 내용의 차이가 있어 이 일에 대한 해석은 종종 오해를 낳았다. 이로 인해 전대의 연구에 기반을 둔 후대의 연구가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다.[2)]

한편, 연구자들은 唐太宗, 山東四姓, 편찬자, 그리고 崔民幹 각각의 배경

---

1) Denis Twitchett, "The Composition of the T'ang Ruling Class: New Evidence from Tunhuang", in A. F. Wright and Denis Twitchett, eds. *Perspectives on the T'ang*, New Haven: Yale Univ. Press, 1973.

2) 각 사서의 내용 차이와 그동안 있어왔던 崔民幹 降格에 대한 두 분류의 해석에 관해서는 川合安, 「『貞觀氏族志』における皇族の等級」, 『史朋』 49, 札幌: 北海道大學東洋史談話會, 2016, pp.1-15 참조.

에 집중하여 이 수수께끼 같은 일화를 풀이해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른 셋은 각각의 배경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崔民幹의 경우 '入關山東士族'이라고 하는 특이한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3] 唐 초의 핵심 지배집단은 크게 西魏·北周系의 '關隴集團', 東魏·北齊系의 '山東士族', 南朝에서 편입된 '江左出身者'의 세 분류로 구성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4] 그런데 '入關山東士族'의 경우 '山東士族'이면서도 '關隴集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Patricia Ebrey는 박릉최씨를 주제로 삼으면서 東·西魏 분열기에 대해 서술할 때 崔謙, 崔說, 崔猷가 山東명족 출신임에도 入關하여 西魏·北周에 임관하였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5] 하지만 이외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로 『貞觀氏族志』와 崔民幹의 降格과 관련하여 入關山東士族에게 주목하였다. 唐長孺는 崔民幹의 조부이자 入關하여 西魏·北周에서 벼슬한 崔猷를 주목하였고,[6] 毛漢光은 崔猷와 그의 친척, 후손에 관련된 내용을 전면적으로 정리하였다.[7] 하지만 이들은 모두 入關山東士族 전체에 관심

---

3) '入關山東士族'이라는 용어는 堀井裕之가 제시한 것으로, 北魏 말 동란기에 山東으로부터 關中 지역으로 들어간 山東士族을 가리킨다. '入關'이란 關中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당시 여러 사료에서 확인되는 용어이다. '山東'이란 현대 중국의 山東省과는 다른 지리 명칭으로, 1) 崤山 혹은 華山 동쪽 지역을 의미하거나 2) 太行山 동쪽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山東士族의 대표적인 가문 중에는 太行山의 서쪽에 있는 太原의 王氏, 太行山의 남쪽에 있는 滎陽의 鄭氏도 있기 때문에 1) 崤山 혹은 華山 동쪽 지역을 가리킨 용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堀井裕之는 '入關山東士族'이 아니라 '入關山東貴族'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사료에서 '貴族'은 'Aristocrat'이라는 의미보다는 당시에 '著姓'이 '저명한 성씨'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처럼 말 그대로 '귀한 족속'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때문에 당시 사료의 용례와 달라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入關山東士族'이라고 지칭할 것이다(堀井裕之 「唐·李百藥撰「崔仲方墓誌」の分析—入關山東貴族の性格をめぐって—」, 氣賀澤保規編, 『中國石刻資料とその社會—北朝隋唐期を中心に—』, 東京: 汲古書院, 2007, pp.270, 303).

4) 吉岡眞, 「北周·隋唐支配層の推移」, 『岩波講座 世界歷史9: 中華の分裂と再生 3-13世紀』, 東京: 岩波書店, 1999, p.255; Mark Edward Lewis and Timothy Brook, *China's Cosmopolitan Empire: The Tang Dynasty*,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p.198.

5) Patricia Buckley Ebrey, *The Aristocratic Families of Early Imperial China: A Case Study of the Po-ling Ts'ui Famil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6) 唐長孺, 『魏晉南北朝隋唐史三論』,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1992, pp.378-381.

7) 毛漢光, 「中古山東大族著房之硏究」, 『中國中古社會史論』,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을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入關山東士族으로서의 崔猷의 특성은 잘 드러내지 못했다.

劉馳는 西魏·北周 시대의 入한 山東房支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당시 이들의 정치·사회적 성공을 잘 드러냈다. 하지만 劉馳는 崔民幹이 『貞觀氏族志』 편찬 중에 降格된 것을 근거로 華北이 통일된 이후로 入關山東士族이 통일 후에는 山東으로 복귀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였다.[8]

堀井裕之는 90년대 말 河北省 平山縣에서 발굴된 崔猷의 아들 崔仲方 등의 묘지명을 활용하여, 入關 박릉최씨가 華北統一 이후 北齊系 山東士族과 재결합하였음을 주장하며 劉馳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堀井裕之의 入關山東士族과 崔民幹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다. 하지만 그는 華北統一 이후 入關山東士族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박릉최씨 중 崔猷 계통을 대표 사례로 놓고 분석하였지만, 다른 씨족이나 入關 박릉최씨 중 다른 계통의 山東 복귀 여부에 관하여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9]

崔民幹의 降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시도해왔듯이 崔民幹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崔民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계통, 즉 入關하여 西魏·北周에서 관직을 받은 崔猷와 그 가까운 가족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入關山東士族인 崔猷 계통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 한 계통만의 동향을 추적하는 것을 넘어서 入關山東士族 전체를 조사하여, 그 중에서 崔猷 계통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貞觀氏族志』 편찬시기까지의 崔猷 계통과 崔民幹의 배경을 이해하고 『貞觀氏族志』 편찬 이후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추적한다면 崔民幹 降格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파악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Ⅰ장에서 入關山東士族이 西魏·北周 지배집단(또는 關隴集團)과 얼마나 긴밀하게 결합하였는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1절에서는 西魏·北周 지배집단의 형성과정을 통시적으로 정리하고, 그

1987, pp.192-212.

8) 劉馳, 「山東士族入關房支與關隴集團的合流及其復歸」, 『古史文存』(秦漢魏晋南北朝卷),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pp.553-559.

9) 堀井裕之 「唐·李百藥撰「崔仲方墓誌」の分析—入關山東貴族の性格をめぐって—」, 2007.

와중에 入關山東士族이 상당히 이른 시기에 入關하였음을 보여 그들이 대체로 정권의 초기 참여자였음을 보일 것이다. 2절에서는 西魏·北周 지배집단 내에서의 인적결합을 정리하며, 특히 入關 제 2세대에 들어서는 이들에게 '關中人'으로서의 의식이 보다 강하게 형성되었을 것임을 주장할 것이다.

Ⅱ장에서는 北周 建德 6년(577) 華北統一로 山東으로의 복귀가 가능해진 入關山東士族들이 실제로는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절에서는 崔猷의 개인사에 초점을 맞춰 그가 왜 河北 귀장 및 北齊系 山東士族과의 재결합을 추진하였는지 추정할 것이다. 2절에서는 崔猷와 달리 關中에 잔류한 入關山東士族을 소개하며 그들이 남게 된 이유를 논할 것이다. 이로써 기존연구과는 달리 華北統一 후 山東으로 복귀한 崔猷 계통은 비교적 특수한 사례에 속했으며, 여전히 關中에 잔류한 入關山東士族들이 존재했음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Ⅲ장에서는 Ⅱ장까지의 入關山東士族, 특히 崔猷 계통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貞觀氏族志』를 전후로 한 崔民幹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崔民幹이 降格된 이유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사회사적 차원에서 入關山東士族이 주어진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어떠한 이동양상을 보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사회사적 배경을 통해 정치사적으로 『貞觀氏族志』 편찬 중에 이루어진 崔民幹의 降格을 둘러싼 해석을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西魏·北周 지배집단 내의 入關山東士族

'육진의 난(六鎭之亂)' 이후 6세기의 중국은 분열과 병합을 거듭하여 開皇 9년(589)의 통일에 이르렀다. 해당 시기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北魏 말 孝明帝 正光 4년(523) 일어난 '육진의 난(六鎭之亂)'이라는 혼란은 北魏의 領民酋長 爾朱榮을 비롯한 爾朱氏 세력을 중심으로 안정되는 듯했지만, 爾朱榮이 옹립한 孝莊帝가 永安 3년(530) 爾朱榮을 주살하면

서 정세가 다시 불안정해졌다. 爾朱榮이 죽고 나서도 爾朱氏 세력은 건재했지만, 그 휘하에 있던 高歡은 爾朱氏에게 반기를 들어 그들을 제압하였다. 爾朱氏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高歡은 洛陽에서 孝武帝를 옹립하고 자신은 晉陽을 거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孝武帝는 洛陽에서 친위군을 모으는 한편, 高歡에게 귀속되지 않은 關中의 賀拔岳, 荊州의 賀拔勝 형제와 힘을 합쳐 高歡에게 대항하고자 하였다. 關中의 賀拔岳은 永安 3년(530) 爾朱榮에 의해 그의 동족 爾朱天光과 함께 關中으로 파견되었으며, 爾朱榮이 주살된 뒤 爾朱天光이 洛陽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關中에서 함께 파견된 장수들 중에서 우두머리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賀拔岳은 高歡의 계략으로 암살되었고, 이때 北周의 太祖 宇文泰가 여러 장수들에 의해 추대되어 賀拔岳의 자리를 계승하였다.

孝武帝는 宇文泰와 연합하여 高歡을 제압하고자 하였으나, 永熙 3년(534) 孝武帝가 落陽에서 모집한 10만의 친위군은 高歡의 군대에게 간단히 제압당하였다. 孝武帝는 얼마 남지 않은 무리를 이끌고 關中 지역으로 달아났다. 한편, 荊州를 차지하고 있던 賀拔岳의 형 賀拔勝은 孝武帝의 패퇴를 지켜보고는 남조 梁에게 망명하였다. 孝武帝를 놓친 高歡은 새로이 孝靜帝를 옹립하는 한편 도읍을 洛陽에서 업으로 옮겼다. 이로써 화북지역은 東魏와 西魏로 나뉘어 분열기에 접어들었다. 東魏와 西魏는 6세기 전반에 주로 潼關에서 武牢에 걸친 河南 지역을 무대로 크고 작은 전쟁을 반복하였으며, 이후에 汾陰을 비롯한 河東 지역에서 일전일퇴를 거듭하였다. 결국 北周 武帝가 建德 6년(577) 태원과 업을 점령하여 北齊를 멸망시켰고, 이로써 화북은 北周에 의해 통일되었다.

永熙 3년(534) 孝武帝의 西遷으로 東·西魏가 분열되기 이전부터 남중국에는 梁이 四川에서 江南에 이르는 넓은 강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하지만 東魏 高歡의 심복으로서 하남지역을 다스리던 侯景이 大統 13년(547) 高歡 사망 후 그의 아들 高澄이 후대를 잇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梁에 來降하였다가 이윽고 난을 일으켜서 수도인 건업을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소위 '후경의 난(侯景之亂)'이다. 이로 인해 40여 년 동안 남조를 통치하던 梁武帝는 궁궐에 유폐되어 죽고 말았다. 梁武帝의 왕자들은 각기 다른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西魏는 梁의 황자들이 서로 다투는 틈을 타 廢帝 2년(553) 촉을 점령하였고, 곧이어 恭帝 원년(554) 梁

강릉정권을 점령하여 西魏의 附庸國으로 만들었다. 江左에서는 梁을 대신하여 陳이 들어섰다. 이후 隋文帝 開皇 7년(587) 後梁 江陵 정권은 隋에 흡수되었고, 開皇 9년(589) 隋가 陳을 점령하면서 통일이 완성된다.

西魏·北周 지배집단은 남북조의 분열기를 끝내고 隋唐이라는 통일왕조를 열었다. 이러한 성공을 거둔 이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 중 入關山東士族은 어떻게 이 집단에 합류하였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1. 西魏·北周 지배집단의 형성과 山東士族의 入關

西魏 정권 지배집단의 분류와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이미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있다. 吉岡眞은 西魏 내의 정치세력을 크게 1) '北鎭出身者', 2) '關隴集團·河南·河東의 토착세력', 3) '北魏의 孝武帝를 따라 關中에 들어온 자들 및 山東지역 출신자'로 분류하고 각각을 이들을 다시 宇文泰의 元宗, 賀拔岳 屬下 출신자 등의 세부 분류로 정리하였다.[10] 呂春盛 또한 吉岡眞의 대소분류를 수용하여 각 집단의 성격에 대해 상술한 바 있다.[11] 이와 같은 공시적 분류는 西魏·北周의 정치세력 구성을 한눈에 파악하기에 유용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西魏·北周 지배집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보여주지 못한다.

공시적 분류법은 전대의 지배집단이 이어져 크게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이 새로운 왕조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는지를 보이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西魏·北周와 같은 시대의 東魏·北齊 지배집단을 설명한다면 이들의 원류는 크게 1) '北鎭出身者', 2) '山東士族', 3) '洛陽士族'으로 나누거나, 吉岡眞이 北魏의 지배층을 분류한 것처럼 1) '代'와 '山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12] 이러한 전시대의 구도는 鄴으로의 천도 이후 太原과 鄴으로 재편되어 재구성되었을 뿐, 인적 구성원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공시적 분류로써 東

10) 吉岡眞, 「北周·隋唐支配層の推移」, pp.270-271.
11) 呂春盛, 『關隴集團的權力結構演變-西魏北周政治史硏究』, 臺北: 稻鄕出版社, 2002, pp.29-42.
12) 吉岡眞, 앞의 책, pp.257-268.

魏·北齊 지배집단의 출신을 이해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하지만 西魏·北周 지배집단의 경우 '關中在地勢力'을 제외한다면 전부 외부로부터 원정, 망명, 귀순 등 다양한 이유로 시간차를 두고 關中 지역에 들어왔다. 요컨대 그들의 '入關'은 통시적으로 이루어졌고, 西魏·北周 지배집단은 누층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공시적으로 같은 분류에 있다고 하더라도 入關한 시기는 다른 경우도 종종 보인다. 대표적으로 소위 "八柱國"의 일원이자, 北周·隋·唐의 3대에 걸쳐서 황후를 배출했다고 하는 獨孤信은 西魏~北周 초에 걸쳐서 北鎭 출신으로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宇文泰가 賀拔岳을 따라 永安 3년(530)에 入關한 것에 비해서 獨孤信은 大統 3년(537)이 되어서야 入關하여 宇文泰에 합류했다. 보다 극단적인 예로, 東魏·北齊에서 훈귀로서 핵심지배집단의 일원이었던 司馬消難은 후에 北周에서 大後丞[13]이라는 고위 관직에 임명되고[14] 딸을 靜帝(재위: 580-581)의 황후로 들일 정도로[15] 北周에서도 지배집단의 핵심에 올라섰다. 하지만 그는 明帝 2년(558)에 北齊로부터 北周로 귀순하였기 때문에 530년대에 入關한 자들과는 따로 분류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西魏·北周 지배집단의 형성 과정을 통시적으로 정리하고, 그 중에서 入關山東士族의 위치를 파악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關中 재지 토착 세력. 關中 지역에 가장 먼저 들어와 있던 것은 당연하게도 關中 토착 세력이다. 六條詔書의 초안을 작성했던 京兆武功人 蘇綽[16], 본적은 吳郡이지만 증조부 陸載 때 남조 劉裕의 북벌에 종사하

---

13) 대후승(大後丞): 北周 말 宣帝 大象 원년(579)에 처음 설치된 관직으로, 대전의(大前疑), 대우필(大右弼), 대좌보(大左輔)와 함께 사보관(四輔官)으로 칭해졌다.『周書』卷 7「宣帝紀」p.117, "大象元年春正月癸巳 ... 初置四輔官, 以上柱國大冢宰越王盛爲大前疑, 相州總管蜀國公尉遲迥爲大右弼, 申國公李穆爲大左輔, 大司馬隨國公楊堅爲大後丞."(이하 정사류는 中華書局本 標點校勘本에 따른다)

14) 대후승(大後丞): 北周 말 宣帝 大象 원년(579)에 처음 설치된 관직으로, 대전의(大前疑), 대우필(大右弼), 대좌보(大左輔)와 함께 사보관(四輔官)으로 칭해졌다.『周書』卷 7「宣帝紀」p.117, "大象元年春正月癸巳 ... 初置四輔官, 以上柱國大冢宰越王盛爲大前疑, 相州總管蜀國公尉遲迥爲大右弼, 申國公李穆爲大左輔, 大司馬隨國公楊堅爲大後丞."(이하 정사류는 中華書局本 標點校勘本에 따른다)

15)『周書』卷 21「司馬消難傳」p.354, "消難懼, 密令所親裴藻間行入關, 請擧州來附. 晉公護遣達奚武、楊忠迎之, 消難遂與武俱入朝. 授大將軍、滎陽公. 從高祖東伐, 遷大後丞. 納女爲靜帝后."

16)『北史』卷 63「蘇綽傳」p.2229, "蘇綽字令綽, 武功人, 魏侍中則之九世孫也. 累世二千石. 父協, 武功郡守."

여 關中에 들어온 뒤 정착하여 대대로 北魏에 사관한 陸通[17], 西魏·北周에서 장수로서 弘農 방위전에서 활약했던 京兆杜陵人 韋孝寬[18] 등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이들 중에서도 뒤늦게 關中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주의해야한다. 關中人이라고 하더라도 北魏 때 중앙 조정에 진출한 경우 고향을 떠나 洛陽에서 생활한 경우가 많았고, 또 關中 이외의 지방관으로 파견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韋孝寬 또한 荊州 지역에 있다가 孝武帝 재위 초(532)에 이르러서야 宇文泰의 명령으로 入關하였다.[19]

②賀拔岳·宇文泰 入關 이전 시기(524~530) '육진의 난(六鎭之亂)'에 응하여 關中 지역에서도 正光 5년(524)부터 여러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같은 해, 北魏 조정은 상서좌복야 蕭寶夤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關中 지역을 안정시키게 했다. 하지만 蕭寶夤은 반란군에게 거듭 패퇴하고는 도리어 北魏 조정에 반기를 들었고, 이윽고 關中 반란군의 영수인 萬俟醜奴에게 투항하였다.[20] 결국 萬俟醜奴가 爾朱榮이 파견한 爾朱天光, 賀拔岳 등에 의해 패퇴되면서 蕭寶夤은 洛陽으로 송환되었지만, 소보인의 수하 중에 賀拔岳 세력에 편입된 인물들로 周惠達[21], 王盟[22]이 있다.

---

17) 『周書』 卷 32 「陸通傳」 pp.557-558, "陸通字仲明, 吳郡人也. 曾祖載, 從宋武帝平關中, 軍還, 留載隨其子義眞鎭長安, 遂沒赫連氏. 魏太武平赫連氏, 載仕魏任中山郡守. 父政, 性至孝. 其母吳人, 好食魚, 北土魚少, 政求之常苦難. 後宅側忽有泉出而有魚, 遂得以供膳. … 通少敦敏好學, 有志節. … 文帝時在夏州, 引爲帳內督. ... 後以迎孝武功, 封都昌縣伯. 大統元年, 進爵爲侯. 從禽竇泰, 復弘農. 沙苑之役, 力戰有功."

18) 『周書』 卷 31 「韋孝寬傳」 p.535-536, "韋叔裕字孝寬, 京兆杜陵人也, 少以字行. 世爲三輔著姓. 祖直善, 魏馮翊、扶風二郡守. 父旭, 武威郡守. 建義初, 爲大行臺右丞, 加輔國將軍、雍州大中正. 永安二年, 拜右將軍、南幽州刺史. 時氐賊數爲抄竊, 旭隨機招撫, 竝卽歸附. 尋卒官. 贈司空、冀州刺史, 謚曰文惠."

19) 『周書』 卷 31 「韋孝寬傳」 p.535-536, "普泰中, 以都督從荊州刺史源子恭鎭穰城, 以功除淅陽郡守. ... 孝武初, 以都督鎭城. 文帝自原州赴雍州, 命孝寬隨軍. 及剋潼關, 卽授弘農郡守. 從擒竇泰, 兼左丞, 節度宜陽兵馬事."

20) 呂春盛, 앞의 책, pp.21-23.

21) 『周書』 卷 22 「周惠達傳」 p.362, "賀拔岳獲寶夤送洛, 留惠達爲府祭酒, 給其衣馬, 卽與參議. 岳爲關中大行臺, 以惠達爲從事中郎. ... 岳爲侯莫陳悅所害, 悅得惠達, 欲官之. 惠達辭以疾, 不見許, 乃遁入漢陽之麥積崖. 悅平, 惠達歸於太祖, 卽用秦州司馬, 安輯隴右."

22) 『周書』 卷 20 「王盟傳」 pp.333-334, "孝昌初, 除積射將軍, 從蕭寶夤西征. 寶夤僭逆, 盟遂逃匿民間, 以觀其變. 及爾朱天光入關, 盟出從之."

③賀拔岳·宇文泰 入關 ~ 孝武帝 西遷 이전 시기(530~534) 建義 원년(528) 七월 萬俟醜奴가 關中 지역에서 천자를 칭했음에도 北魏 조정은 河北의 상황에 대응하느라 關中 지역에 큰 신경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武泰 원년(528) '하음의 변(河陰之變)' 이후 변란이 점차 爾朱氏에 의해 안정되어가자, 永安 3년(530) 爾朱榮은 爾朱天光과 賀拔岳 등을 파견하여 關中 지역을 안정시키게 하였다. 이들은 이듬해인 普泰 원년(531) 四월, 萬俟醜奴를 패퇴시키며 關中 지역을 평정하였다. 이때 賀拔岳을 따라 宇文泰, 趙貴, 念賢, 侯莫陳崇, 達奚武 등 훗날 宇文泰 정권에서 중추적 위치를 담당한 北鎭 출신자들이 대거 關中 지역에 들어갔다.[23]

한편, 宇文泰 형의 아들이자 후에 宇文泰를 이어 집권자가 되는 宇文護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宇文泰를 따라가지 못했지만, 1년 뒤인 普泰 초(531)에 關中에 들어갔다.[24] 마찬가지로 宇文泰의 외조카인 尉遲迥, 尉遲綱[25] 형제 또한 宇文泰가 關中에 들어갔을 시점에는 晉陽에 남아있었지만, 이들이 永熙 3년(534) 孝武帝의 入關을 맞이하는 공을 세웠다는 것으로 봤을 때 永熙 3년(534) 이전에 關中 지역에 이미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 이들 宇文泰의 친인척 이외에도 이 시기에 申徽[26], 張軌[27]와 같은 한인사족들이 河北, 河南 등지의 혼란을 피해서 孝武帝 西遷 이전에 이미 關中으로 들어갔다.

④孝武帝를 따라 入關한 시기(534~537) 永熙 3년(534) 七월, 孝武帝는 高歡과의 전투에서 패퇴한 뒤 급하게 關中 지역으로 도망갔다. 孝武帝는 본래 서쪽의 宇文泰와 남쪽의 賀拔勝의 군대가 도착하면 힘을 합쳐 高歡의 군대를 상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孝武帝의 10여 만의 禁軍은 高歡의 군대에게 쉽게 제압되었고, 예상치 못한 패배에 孝武帝는 급하게 入關을 결정하였다. 孝武帝가 洛陽을 떠난 지 겨우 하루가 지나서 高歡이

---

23) 呂春盛, 앞의 책, pp.23-24.

24) 『周書』 卷 11 「晉蕩公護傳」 p.165, "太祖之入關也, 護以年小不從. 普泰初, 自晉陽至平涼, 時年十七."

25) 『周書』 卷 20 「尉遲綱傳」 p.339, "太祖西討關隴, 迥、綱與母昌樂大長公主留于晉陽, 後方入關. 從太祖征伐, 常陪侍帷幄, 出入臥內. 後以迎魏孝武功, 拜殿中將軍."

26) 『周書』 卷 32 「申徽傳」 p.555, "孝武初, 徽以洛陽兵難未已, 遂間行入關見文帝. 文帝與語, 奇之, 薦之於賀拔岳."

27) 『周書』 卷 37 「張軌傳」 p.664, "爾朱氏敗後, 遂杖策入關. 賀拔岳以軌爲記室參軍, 典機務."

洛陽에 도착할 정도로 상황은 긴급하게 진행되었으며, 孝武帝는 10여 만 금군 중 수천 명의 병사만을 데리고 關中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28] 당시 상황의 급박함은 범양노씨 盧辯이 孝武帝가 入關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집에도 들르지 않고 혼자 말을 타고 關中으로 따라 들어간 것에서도 느낄 수 있다.[29] 孝武帝와 함께 入關한 관원은 사서에서 다수 확인되어 그 수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30]

孝武帝가 급히 西遷하면서 미처 孝武帝와 함께하지 못하고 뒤늦게 入關한 자들도 있었다. 박릉최씨 崔猷의 경우 洛陽에 들어온 高歡에 의해 '家難'을 입게 되자 몰래 關中지역에 들어갔다.[31] 楊纂과 段永은 大統 원년(535)이 되어서야 몰래 入關하였다.[32] 이들이 은밀하게 關中에 들어가야 했던 것은 高歡이 洛陽에 주둔하면서 병력을 보내 孝武帝를 추격하고, 이어서 潼關을 공격하면서 길목을 막았기 때문이다.[33]

한편 형주의 賀拔勝은 孝武帝의 西遷 이후 東魏의 侯景에게 패퇴하여 梁으로 망명하였다. 梁武帝는 賀拔勝을 후대해주었으나 賀拔勝은 關中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였고, 梁武帝에게 허락을 구한 뒤 大統 2년(536) 長安에 들어갔다.[34] 이때 賀拔勝과 함께 梁으로 갔다가 長安으로 들어간 인물로는 史寧, 盧柔, 崔謙, 崔說 등이 있다. 賀拔勝의 이동 소식을 들은

---

28) 王怡辰, 『東魏北齊的統治集團』, 北京: 文史哲大系出版社, 2006, pp.118-133.

29) 『周書』 卷 24 「盧辯傳」 p.403, "及帝入關, 事起倉卒, 辯不及至家, 單馬而從. 或問辯曰: 「得辭家不?」 辯曰: 「門外之治, 以義斷恩, 復何辭也.」 孝武至長安, 授給事黃門侍郎, 領著作."

30) 孝武帝를 따라 入關한 관원에 대해서는 呂春盛, 앞의 책, p.37 참고.

31) 『周書』 卷 35 「崔猷傳」 p.615, "普泰初, 除征虜將軍、司徒從事中郎. 旣遭家難, 遂間行入關. 及謁魏孝武, 哀動左右, 帝爲之改容. 旣退, 帝目送之曰: 「忠孝之道, 萃此一門.」 卽以本官奏門下事."

32) 『周書』 卷 36 「楊纂傳」 p.636, "大統初, 乃間行歸款. 太祖執纂手曰: 「人所貴者忠義也, 所懼者危亡也, 其能不憚危亡蹈茲忠義者, 今方見之於卿耳.」 卽授征南將軍、大都督, 封永興縣侯, 邑八百戶, 加通直散騎常侍." ; 『周書』 卷 36 「段永傳」 p.637, "帝西遷, 永時不及從. 大統初, 乃結宗人, 潛謀歸款. 密與都督趙業等襲斬西中郎將慕容顯和, 傳首京師. 以功別封昌平縣子, 邑三百戶, 除北徐州刺史."

33) 『北史』 卷 9 「周本紀」上 p.319, "齊神武襲陷潼關, 侵華陰, 帝率諸軍屯霸上以待之."

34) 『周書』 卷 14 「賀拔勝傳」 p.219, "時齊神武已陷潼關, 屯軍華陰. 勝乃還荊州. 州民鄧誕執元穎, 北引侯景. 勝至, 景逆擊之, 勝軍不利, 率麾下數百騎, 南奔梁. 在江表三年, 梁武帝遇之甚厚. 勝常乞師北討齊神武, 旣不果, 乃求還. 梁武帝許之, 親餞於南苑. 勝自是之後, 每行執弓矢, 見鳥獸南向者皆不射之, 以申懷德之志也. 旣至長安, 詣闕謝罪. 朝廷嘉其還, 乃授太師."

高歡이 侯景에게 그의 入關을 막게 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가까스로 長安에 도착할 수 있었다.[35] 賀拔勝을 따라 梁으로 망명했던 獨孤信과 楊忠은 大統 3년(537)에 關中에 도착하였다.[36]

⑤'사원지전(沙苑之戰)' 이후의 來附(537~543) 孝武帝의 갑작스러운 入關으로 인해 河南, 河東 등 지역에는 여전히 孝武帝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남아있었다. 이들은 大統 3년(537) '沙苑之戰'에서 西魏가 東魏에게 크게 승리를 거두고 洛陽까지 진출하자 대거 西魏에 귀부하였다. 예를 들어 형양정씨 鄭偉는 가문 사람들과 함께 무리 만 명을 모아 東魏의 주자사와 군수 등을 포획한 뒤 西魏에 귀부하였고[37] 潁川 지역에 거주하던 청하최씨 崔彦穆 일족 또한 滎陽과 潁川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西魏에 귀부하였다.[38] 이전까지 入關한 자들이 대체로 가족과 함께 이동하기 어려웠던 것과는 다르게, 이 시기 河東과 河南 지역의 토착세력들은 지역사회에서 무리를 모아 西魏에 귀부하였다. 그 수는 집단 별로 많은 경우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렀다.[39]

⑥高愼의 歸附(543) 大統 9년(543)에는 東魏의 개국공신 가문 출신인 발해고씨 高愼이 北豫州刺史로서 武牢를 지키다가 西魏로 귀순하여,[40]

---

35)『周書』卷 32「盧柔傳」p.563, "後與勝俱還, 行至襄陽, 齊神武懼勝西入, 遣侯景以輕騎邀之. 勝及柔懼, 乃棄船山行, 羸糧冒險, 經數百里. 時屬秋霖, 徒侶凍餒, 死者太半. 至豐陽界, 柔迷失道, 獨宿僵木之下, 寒雨衣濕, 殆至於死. 大統二年, 至長安. 封容城縣男, 邑二百戶."

36)『周書』卷 19「楊忠傳」p.315, "與信奔梁. … 大統三年, 與信俱歸闕."

37)『周書』卷 36「鄭偉傳」p.634, "及孝武西遷, 偉亦歸鄉里, 不求仕進. 大統三年, 河內公獨孤信旣復洛陽, 偉乃謂其親族曰: 「今嗣主中興鼎業, 據有崤、函. 河內公親董衆軍, 克復瀍、洛, 率土之內, 孰不延首望風. 況吾等世荷朝恩, 家傳忠義, 誠宜以此時効臣子之節, 成富貴之資. 豈可碌碌爲懦夫之事也!」 於是與宗人榮業, 糺合州里, 建義於陳留. 信宿間, 衆有萬餘人. 遂攻拔梁州, 擒東魏刺史鹿永吉及鎭城令狐德, 幷獲陳留郡守趙季和. 乃率衆來附. 因是梁、陳之間, 相次降款. 偉馳入朝, 太祖與語歎美之. 拜龍驤將軍、北徐州刺史, 封武陽縣伯, 邑六百戶."

38)『北史』卷 67「崔彦穆傳」pp.2345-2346, "孝武西遷, 彦穆時不得從. 大統三年, 乃與兄彦珍於成皐擧義, 因攻拔滎陽, 禽東魏郡守蘇淑. 仍與鄉郡王元洪威攻潁川, 斬其刺史李景遺. 卽拜滎陽郡守, 尋賜爵千乘縣侯."

39) '沙苑之戰(沙苑之戰)' 이후 향리사회와 함께 西魏에 귀부한 사례에 관해서는 呂春盛, 앞의 책, pp.38-39 참고.

40)『北齊書』卷 21「高乾傳附弟愼傳」p.293, "愼前妻吏部郎中崔暹妹, 爲愼所棄. 暹時爲世宗委任, 愼謂其搆己, 性旣狷急, 積懷憤恨, 因是罕有糾劾, 多所縱舍. 高祖嫌責之, 彌不自安. 出爲北豫州刺史, 遂據武牢降西魏. 愼先入關. 周文帝率衆東出, 高祖破之於邙山. 愼妻子將西度, 於路盡禽之. 高祖以其勳家, 啓愼一房配沒而已."

高愼의 부속관원이었던 범양노씨 盧誕[41], 발해이씨 李棠[42], 박릉최씨 崔仲讓[43]이 高愼을 따라 망명하였으며, 이어진 東魏와 西魏의 전투 과정에서 陸騰이 宇文泰에게 포로로 잡혀서 西魏에 투항하였다.[44]

7. 이후의 간헐적 歸附(543~578) 大統 13년(547)에는 東魏의 勳貴 侯景이 귀부할 뜻을 표했으나, 이윽고 무리를 이끌고 남조로 망명하였다. 하지만 이때 隴右著姓 출신의 辛昂이 侯景에게서 西魏로 귀부하였다.[45]

明帝 2년(558)에는 전술하였듯 北齊 勳貴 출신의 北豫州刺史 司馬消難이 내부하였다. 이때 함께 關中에 들어온 자로 하동배씨 裴藻가 있다.[46]

保定 4년(564)에는 北周의 공격으로 北齊의 王士良이 항복하였고[47], 梁황실 출신의 蕭世怡 또한 이때 來附하였다.[48] 또한 이 해에 당시 北周의 집권자 宇文護의 모친 閻氏가 北齊로부터 이송되었다. 普泰 초(531) 宇文護가 晉陽에서 關中으로 들어간 뒤 그의 모친은 줄곧 東魏·北齊 지역에 머물러있었지만, 이때 宇文護가 요청하자 北齊가 通好의 차원에서 송

---

41)『北史』卷 88「盧誕傳」p.1109, "起家侍御史, 累遷輔國大將軍、太中大夫、幽州別駕、北豫州都督府長史. 時刺史高仲密以州歸西魏, 遣大將軍李遠率軍赴援, 誕與文武二千餘人奉候大軍. 以功授鎭東將軍、金紫光祿大夫, 封固安縣伯. 尋加散騎侍郎, 拜給事黃門侍郎."

42)『周書』卷 46「李棠傳」pp.826-827, "魏孝武西遷, 棠時在凹北, 遂仕東魏. 及高仲密爲北豫州刺史, 請棠爲掾. 先是, 仲密與吏部郎中崔暹有隙. 暹時被齊文襄委任, 仲密恐其搆己, 每不自安, 將圖來附. ... 乃帥其士衆據城, 遣棠詣闕歸款. 太祖嘉之, 拜棠衛將軍、右光祿大夫, 封廣宗縣公, 邑一千戶."

43)『北史』卷 32「崔鑒傳附　　兄孫伯謙傳」 pp.1162-1163, "弟仲讓爲北豫州司馬, 與高愼同叛. ... 伯謙弟仲讓, 仕西魏, 位至鴻臚少卿."

44)『周書』卷 28「陸騰傳」p.470, "大統九年, 大軍東討, 以騰所據衝要, 遂先攻之. 時兵威甚盛, 長史麻休勸騰降, 不許, 拒守經月餘, 城陷被執. 太祖釋而禮之, 問其東間消息, 騰盛陳東州人物, 又敘述時事, 辭理抑揚."

45)『周書』卷 39「辛慶之傳附族子昂傳」p.698, "年十八, 侯景辟爲行臺郎中, 加鎭遠將軍. 景後來附, 昂遂入朝. 除丞相府行參軍. 大統十四年, 追論歸朝之勳, 封襄城縣男, 邑二百戶, 轉丞相府田曹參軍."

46)『北史』卷 54「司馬子如傳附子消難傳」p.1949, "文宣末年, 昏虐滋甚, 消難常有自全之謀, 曲意撫納, 頗爲百姓所附. 不能廉潔, 爲御史所劾. 又尙公主, 而情好不睦, 公主愬之. 屬文宣在幷州, 驛召上黨王渙, 渙懼害, 斬使者東奔, 鄴中大擾, 後竟獲於濟州. 渙之初走, 朝士疑赴成皐, 云:「若與司馬北豫連謀, 必爲國患.」此言達於文宣, 頗見疑. 消難懼, 密令所親人河東裴藻間行入關, 請降. 入周, 封滎陽郡公, 累遷大司寇."

47)『周書』卷 36「王士良傳」p.639, "保定四年, 晉公護東伐, 權景宣以山南兵圍豫州, 士良擧城降. 授大將軍、小司徒, 賜爵廣昌郡公."

48)『周書』卷 42「蕭世怡傳」p.754, "保定四年, 晉公護東伐, 大將軍權景宣略地河南. 世怡聞豫州刺史王士良已降, 遂來歸款."

환한 것이었다.

8. 남조로부터의 유입 550년대에 들어 西魏는 남조 지역 경략에 착수하였다. 大統 17년(551)에는 達奚武가 남조의 山南 지역 지방관 李遷哲을 공격하여 항복시켰다.[49] 이어서 廢帝 원년(552)에는 蜀 지역을 공략하여 이 지역의 인물들을 흡수하였으며, 恭帝 원년(554)에는 後梁 江陵 정권을 복속시켜 附庸國으로 삼으면서 많은 梁朝의 인물들이 長安으로 보내졌다.[50] 『庾子山集』으로 유명한 庾信의 경우에는 이들보다 조금 앞서서 사신으로 長安에 파견되었다가, 전쟁이 시작되어 長安에 이미 구류되어있었다.[51]

이상 西魏·北周 지배집단의 형성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西魏·北周 지배집단 내 속하게 된 山東士族이 어느 시기에 入關하였는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西魏·北周 지배집단 내의 入關山東士族[52]

번호	군망	부친	이름	入關시기	출전	비고
1	范陽	盧靖	盧辯	④	周24 北30	
2			盧光	⑤	周45 北30	
3		?	盧柔	④	周32 北30	
4		盧叔仁	盧誕	⑥	周45 北30	
5	清河	崔稚	崔彦穆	⑤	周36 北67	
6	博陵	崔孝芬	崔猷	④	周35 北32	
7		崔楷	崔謙	④	周35 北32	
8			崔說	④	周35 北32	
9		崔文業	崔仲讓	⑥	北32	
10	滎陽	鄭瓊	鄭道邕	④	周35 北35	

49) 『周書』 卷 44 「李遷哲傳」 p.790, "大統十七年, 太祖遣達奚武、王雄等略地山南, 遷哲率其所部拒戰, 軍敗, 遂降於武. 然猶意氣自若. 武乃執送京師."

50) 『周書』 卷 41 「王褒傳」 p.731, "褒與王克、劉穀、宗懍、殷不害等數十人, 俱至長安."

51) 『周書』 卷 41 「庾信傳」 p.734, "梁元帝承制, 除御史中丞. 及卽位, 轉右衛將軍, 封武康縣侯, 加散騎常侍, 來聘于我. 屬大軍南討, 遂留長安. 江陵平, 拜使持節、撫軍將軍、右金紫光祿大夫、大都督, 尋進車騎大將軍、儀同三司."

52) 劉馳, 「山東士族入關房支與關隴集團的合流及其復歸」, p.546의 入關山東士族 대표 인물표를 수정·보완하였다. 출전에서 魏: 『魏書』, 周: 『周書』, 北齊: 『北齊書』, 北: 『北史』이다.

			(孝穆)			
11		鄭儼	鄭文寬	④	魏93 北35	
12		鄭先護	鄭偉	⑤	周36 北35	
13		鄭悅	鄭鼎(頂)	⑤	周36	
14		鄭幼儒	鄭敬道	⑤?	北35	
15			鄭敬德	⑤?	魏56 北35	
16		鄭熙	鄭術	⑥	鄭術墓誌[53]	
17	隴西	李琰之	李綱(剛)	④	魏82 北100	
18			李慧	④	魏82 北100	
19	趙郡	李裔	李子雄	④	北33	陝州破, 因隨周軍入長安.
20	頓丘	李遊	李昶	?	周36	
21	上谷	寇臻	寇儁	⑤	周37 北27	
22	勃海	高翼	高愼	⑥	北齊21 北31	

이 표는 吉岡眞이 西魏정권의 인적구성원표를 작성하며 각 인물의 군망 등급을 매긴 것을 바탕으로[54], 入關山東士族들 중에서도 비교적 가격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자들(吉岡眞의 기준에서는 A~D 중에서 A~B랭크)을 추려서 정리한 것이다. 이 22명 중에서 入關 시기가 확인되는 것은 21명이었고, 그중 10명은 '④孝武帝 西遷 시기(534~537)', 7명은 '⑤沙苑之戰 이후 하동, 하남지역이 토착세력을 이끌고 귀부한 시기(537~543)', 4명은 ⑥高愼의 귀부(543) 때 入關하였다.[55] 北鎭出身者들이 주로 '③賀拔岳·宇文泰 入關 ~ 孝武帝 西遷 이전 시기(530-534)에서 '④孝武帝 西遷

53) 「鄭術墓誌」"君舅氏高愼, 牧僞豫州. 君深知逆順, 洞識機萌, 乃贊翼謀謨, 潛思去就. 旣而左提右契, 擧衆西歸, 同微子之辭殷, 似陳平之來漢." (羅新·葉煒, 『新出魏晋南北朝墓誌疏證』(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2016. 98번.)

54) 吉岡眞, 앞의 책, pp.269-270.

55) 주로 비록 사료에 이름을 남긴 경우는 ④시기의 入關이 더 많지만, 孝武帝 西遷 시기에는 급박한 이동으로 인해 가문이 다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드물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술한 것처럼 崔謙, 崔說 형제는 賀拔勝을 따라 양에 귀순하였다가 關中에 들어갔고, 이때 東魏 후경의 맹렬한 추격을 받아 어렵게 關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만약 군중에 이 두 형제 이외의 가족(처·자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함께 關中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⑤시기에는 토착세력 및 가문이 대거 入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훨씬 많았을 것이다. 때문에 형양정씨와 청하최씨 崔彥穆 집안에서는 6명을 훨씬 상회하는 인원이 關中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시기(534~537)'에 걸쳐서 關中지역에 들어갔던 점을 생각하면 山東士族의 入關은 北鎭出身者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몇 년 늦게 이루어진 셈이다. 하지만 西魏·北周 지배집단(또는 關隴集團)이 隋 건국(581) 이후 唐朝까지 긴 시기에 걸쳐 이어진다는 것을 시야에 둔다면 대부분의 入關山東士族이 西魏·北周 지배집단의 초기 참여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西魏·北周 지배집단 내 山東士族의 人的結合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西魏·北周 지배집단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들이 關中이라는 한 장소에 모여들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기존 거주공간에서 형성하고 있던 인적관계망이 대부분 東魏·北齊 지역에 남겨져서 그 의미를 크게 상실하게 되었고, 關中에서 새로운 정권이 형성되면서 西魏·北周 지배집단의 구성원들은 關中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를 갖게 되었다.

특히 入關山東士族의 경우 비록 北魏에서도 정치적으로는 '代人'에게 부속된 입장이었지만, 당시에는 지역사회와의 강한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상을 뒷받침할 수 있었고, 이에 더하여 대등한 家格의 가문끼리 겹겹이 맺은 내혼을 통해 사회적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중 지역민과 함께 關中에 귀부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단독으로 또는 소수의 가족과 入關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의 뒷받침을 잃게 되었고, 또한 통혼을 통해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망이 흐려지게 되었다. 北魏에서와 마찬가지로 西魏·北周에서 北鎭出身者 및 關中土着勢力에 비해서 종속적인 정치적 위상을 가진 山東士族들은[56] 자신들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北鎭出身者 중심의 핵심지배집단과 새로운 인적관계를 맺어야 하게 된 것이다.

반대로 西魏의 집정자 宇文泰를 비롯한 핵심지배집단의 입장에서도 정권을 안정시키고 열위에 놓여있던 東魏·北齊 및 남조의 梁과의 전쟁에서

56) 吉岡眞, 앞의 책, p.280.

승리하기 위해서는 關中에 모인 이질적인 집단을 잘 통합시켜야 했다. 때문에 北鎭出身者, 山東士族, 關中 토착세력 사이에서의 인적결합은 쌍방향적인 관심에 의해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西魏·北周 지배집단 내의 인적결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는 혼인이다. 關中에 들어온 인물들의 상당수는 처자식 없이 단신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關中에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530~540년대에는 새로운 혼인결합이 대거 발생했을 것이다. 入關 이전에 이미 결혼하여 처자식이 있는 인물들이라도 關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가족을 關東에 놓고 온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예를 들어, 獨孤信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賀拔勝을 따라 형주에서 양으로 망명하였다가 다시 關中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그의 부인과 적자인 獨孤羅는 東魏·北齊 영역에 남겨져서 獨孤羅는 北周가 北齊를 합병하고 나서야 關中 지역에 들어올 수 있었다. 처자식과 떨어져 關中에 들어온 獨孤信은 새롭게 부인을 맞이하여 郭氏 부인으로부터 6명의 아들을 얻었고, 崔氏 부인으로부터 隋文帝의 황후 文獻皇后를 얻었다.[57]

山東士族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범양노씨 盧辯은 孝武帝가 西遷하자 가족을 신경 쓰지 않고 單馬로 孝武帝를 따라갔다.[58] 박릉최씨 崔猷의 장녀는 崔猷가 떠난 뒤 조군이씨에게 시집간 누이동생 崔芷蘩이 보호하고 있다가 자신의 장남(조군이씨)과 결혼시켰다.[59] 崔猷의 부인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숨어서 몰래 入關한 崔猷이기 때문에 장녀와 마찬가지로 부인 또한 洛陽에 두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崔猷 또한 獨孤信과 마찬가지로 關中 지역에서 새롭게 부인을 맞이하여 집안을 이뤘을 것이다. 崔謙, 崔說 형제 또한 그들의 아버지 崔楷의 묘지명을 보면 각기 농서이씨의 부인을 두고 있었고, 崔謙의 경우 1남 1녀를 두고 있었다.[60]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崔謙, 崔說 형제 또

---

57) 山下將司, 「隋·唐初期の獨孤氏と八柱國問題再考 - 開皇二十年「獨孤羅墓誌」を手がかりに」 『早稻田大學教育學部 學術研究(地理學·歷史學·社會科學編)』51, 東京: 早稻田大學教育學部, 2003, pp.1-12.

58) 『周書』 卷 24 「盧辯傳」 p.403, "及帝入關, 事起倉卒, 辯不及至家, 單馬而從. 或問辯曰: 「得辭家不？」 辯曰: 「門外之治, 以義斷恩, 復何辭也.」 孝武至長安, 授給事黃門侍郎, 領著作."

59) 堀井裕之, 「北魏の東西分裂と山東貴族—「隋·李希仁妻崔芷蘩墓誌」を手掛かりに—」, pp.73-85.

한 獨孤信과 같은 경로를 통해 關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처자식과 동행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결과적으로 盧辯, 崔猷, 崔謙, 崔說 모두 사서에 그들의 嗣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關中에서 새롭게 부인을 구해서 자식을 얻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그 嗣子들의 생년이다. 崔猷의 아들 崔仲方의 경우 몰년과 당시 나이를 역산하면 생년은 大統 5년(539), 崔謙의 아들 崔彭의 생년은 대략 大統 9~10년(543-544)이다.[61] 崔說의 아들 崔弘度는 대략 大統 7년~9년(541~543)에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62] 崔猷는 孝武帝 西遷 직후(534), 崔謙과 崔說은 賀拔勝과 함께 大統 2년(536)에 入關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자식을 낳은 것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사이에 딸을 낳았을 수도 있고, 아들을 낳았음에도 요절했기 때문에 장성한 아들은 몇 년 늦게 태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入關 이후 곧바로 가정을 꾸렸는데도 맏아들의 탄생까지 5~7년씩 걸린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희박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關東'에 처자식을 둔 入關 박릉최씨들이 關中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즉, 이들은 화북이 금방 다시 통일되어 헤어진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

60) 「崔楷墓誌」, (倪潤安, 「河北曲陽北魏崔楷墓的年代及相關問題」, 『中國國家博物館館刊』, 北京: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 2013-2.)

61) 崔彭의 경우 몰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隋煬帝 즉위 후 漢王 楊諒의 난이 평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63세로 사망했다는 것으로 봤을 때 몰년은 대략 大業 원년~2년(605-606)이다. 이를 63세로 역산하면 생년은 大統 9~10년(543-544)가 된다. 『隋書』 卷 54 「崔彭傳」 p.1370, "煬帝卽位, 遷左領軍大將軍. 從幸洛陽, 彭督後軍. 時漢王諒初平, 餘黨往往屯聚, 令彭率衆數萬鎭遏山東, 復領慈州事. 帝以其淸, 賜絹五百匹. 未幾而卒, 時年六十三. 帝遣使弔祭, 贈大將軍, 謚曰肅. 子寶德嗣."

62) 崔弘度는 몰년과 당시의 나이가 모두 정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가 17세에 '大冢宰' 宇文護의 친신이 되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하면(『隋書』 卷 74 「崔弘度傳」 p.1698, "年十七, 周大冢宰宇文護引爲親信.") 宇文護가 大冢宰가 된 것은 孝閔帝 시절(557)이기 때문에(『周書』 卷 11 「晉蕩公護傳」 p.166, "孝閔帝踐阼, 拜大司馬, 封晉國公, 邑一萬戶. 趙貴、獨孤信等謀襲護, 護因貴入朝, 遂執之, 黨與皆伏誅. 拜大冢宰.") 崔弘度가 아무리 빨라도 大統 7년(541) 이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崔弘度 열전에 따르면 그는 楊素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데(『隋書』 卷 74 「崔弘度傳」 p.1699, "弘度與素, 品同而年長, 素每屈下之. 一旦隸素, 意甚不平, 素言多不用. 素亦優容之."), 楊素의 생년은 大統 10년(544)이기 때문에 그보다 大統 9년(543)보다는 이른 시기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라는 기대를 첫 몇 년간은 가지고 있었고, 때문에 關中에서 후처를 곧바로 들이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러한 망설임과 이른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東·西魏 분열이 막 시작된 시점의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특히 '沙苑之戰' 이후 河東과 河南에서 사족들이 대거 關中에 진입된 이후로 西魏·北周 지배집단 내에서의 통혼은 활발히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전히 혼인에 있어서는 家格이 맞는 가문끼리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1급 山東士族끼리의 통혼뿐만 아니라 1급 山東士族과 소위 후대에 "八柱國"이라고 불리는 가문과의 결합도 확인된다.

먼저 형양정씨의 경우, 鄭孝穆의 아들 鄭譯의 종조부 鄭文寬은 孝武帝의 누이이자 宇文泰 부인의 여동생인 平陽公主와 결혼하였다.[63] 이는 北魏에서 이루어진 北魏 황실과 최상급 山東士族의 결합이 西魏·北周로 이어진 것이다. 또 鄭孝穆의 아들 鄭誠과 청하최씨 崔彦穆의 딸이 결혼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형양, 정주 지역의 두 상급 山東가문이 결합한 것이었다. 鄭譯은 北周 武帝의 명령으로 梁 安固公主와 결혼하여 關中에서 최상급 山東士族과 남조의 황가 사이의 결혼이 이루어졌다.[64] 마지막으로 鄭孝穆의 딸과 北魏 汝陰王 元天賜의 손자 元則[65] 사이에도 혼인이 맺어져, 마찬가지로 北魏 황실과 형양정씨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박릉최씨의 경우 崔說의 딸이 尉遲迥의 아들과 결혼한 사례가 있다.[66] 尉遲迥은 宇文泰의 외조카로서 北周 황실의 인척이자, 蜀 점령 등 수많은 전공을 세운 西魏·北周 최고의 勳臣이었다. 따라서 이 결합은 北鎭出身者의 최상위 가문과 山東士族 최상위 가문의 결합이었다고 볼 수 있

---

63) 『北史』 卷 35 「鄭羲傳附鄭譯傳」 p.1312, "譯從祖文寬, 尙周文帝元后妹魏平陽公主, 無子, 周文命譯後之."

64) 『隋書』 卷 38 「鄭譯傳」 p.1135, "周武帝時, 起家給事中士, 拜銀靑光祿大夫, 轉左侍上士. 與儀同劉昉恒侍帝側. 譯時喪妻, 帝命譯尙梁安固公主."

65) 「周安昌公夫人鄭氏墓誌銘」 (北周 庾信 撰, 淸 倪璠 注, 許逸民 點校, 『庾子山集注』, 北京: 中華書局, 1980), p.1043. "夫人諱某, 滎陽陽武人也, ... 父穆, 司空、貞公." 주석에 따르면 주 안창공은 元則이다.) ; 『北史』 卷 17 「汝陰王天賜傳」 pp.639-641, "汝陰王 天賜 ... 子逞 ... 逞弟汎 ... 汎弟脩義 ... 子則, 字孝規, 襲爵, 位義州刺史. 仕周爲小冢宰、江陵總管."

66) 『隋書』 卷 74 「崔弘度傳」 p.1698, "弘度妹先適迥子爲妻, 及破鄴城, 迥窘迫升樓, 弘度直上龍尾追之."

다. 崔說의 아들 崔弘度는 北魏 任城王 元澄의 증손녀이자 北周 濟北郡開國公 元迪의 딸과 결혼하여[67] 山東士族과 北魏황실 출신의 혼인이 맺어졌다.

또 다른 박릉최씨인 崔猷의 경우, 아들인 崔仲方이 李弼의 손녀와 혼인을 맺었다.[68] 李弼은 주지하듯 西魏·北周의 개국공신이며, 후대에 소위 '八柱國'이라고 칭해지는 최상층 지배층의 일원이었다. 따라서 이 혼인은 北鎭出身者 최상층과 山東士族 최상층의 혼인이 맺어진 것이었다. 宇文泰의 뒤를 이어 집권자가 된 宇文護 또한 崔猷의 셋째 딸을 양녀로 맞이하여 崔猷에게 신뢰를 보이기도 하였다.[69]

새로운 인간관계망을 형성시키기 위한 노력은 宇文泰와 같은 집정자 측에서도 이루어졌다. 宇文泰는 공신들의 자식들을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공부하고 어울리도록 유도하였다. 宇文泰의 자식은 宇文毓(생몰: 534-560), 宇文覺(생몰: 542-557), 宇文邕(생몰: 543-578), 宇文憲(생몰: 544-578) 등 10여 명이 있었다.

앞서 혼인의 사례로 언급했던 崔仲方(생몰: 539-614)은 15세 때 宇文泰의 눈에 띄어 그의 자식들과 함께 공부하였다. 또한 이때 北周의 명장 楊忠의 아들이자 이후 隋文帝가 되는 楊堅(생몰: 541-604)과도 친해졌다.[70] 마찬가지로 혼인사례로 언급한 鄭孝穆의 아들 鄭譯(생몰: 540-591)

---

67)「隋故鄴縣公元夫人墓誌幷序」. 이 묘지에는 부인 원씨에 대한 기록은 자세하지만, 부군 최씨의 이름이나 선조나 후손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서 이 최씨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묘지의 題名에서 이 최씨의 작이 "鄴縣公"임을 밝히고 있고, 묘지의 말미에 둘의 넷째 아들이 沔州刺史라는 정보가 나온다. 또한 부인 원씨는 武德 2년(619) 67세의 나이로 사망하여서 그 생년이 廢帝 3년(553년)임을 알 수 있다. 원씨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여기에서 최씨는 박릉 崔猷, 崔謙, 崔說 또는 청하최씨 崔彦穆의 아들 중 하나일 것이다. 이들 중 열전에서 "鄴縣公"에 봉해진 바가 있는 것은 崔弘度 뿐이다.(『隋書』 卷 74「崔弘度傳」 p.1698, "從武帝滅齊, 進位上開府, 鄴縣公, 賜物三千段, 粟麥三千石, 奴婢百口, 雜畜千計.") 또한 『新唐書』 卷 72下 「宰相世系二下·博陵第二房崔氏」, p.2798를 보면 崔弘度의 아들 奉賢이 沔州刺史를 역임했다는 기록이 있다. 때문에 이때의 "隋故鄴縣公"은 崔弘度가 유력하다. (西安市文物稽查隊 編, 『西安新獲墓誌集萃』, 北京: 文物出版社, 2016, pp.44-45.)

68)「崔仲方妻李麗議誌」(王其禕·周曉薇, 『隋代墓誌銘匯考』1, 北京: 線裝書局, 2007, pp.142-146.)

69)『周書』 卷 35「崔猷傳」 p.616, "猷深爲晉公護所重, 護乃養猷第三女爲己女, 封富平公主."

70)『隋書』 卷 60「崔仲方傳」 p.1447, "仲方少好讀書, 有文武才幹. 年十五, 周太祖見

도 어렸을 때 宇文泰의 자식들과 함께 어울렸다.[71] 北魏 종실의 元暉도 어려서 宇文泰의 눈에 띄어 그의 자식들과 함께 어울렸으며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한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隋文帝 재위 시기가 상당히 지나간 시점에 60세의 나이로 사망했기 때문에 위의 인물들과 비슷한 연령대였던 것으로 추측된다.[72] 河南東垣人으로 무리를 이끌고 西魏에 귀부한 韓雄의 아들 韓擒虎(생몰: 538-592) 또한 宇文泰의 눈에 띄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어울렸다.[73] 생년을 알 수는 없지만 北鎭의 武川鎭 출신 梁禦의 아들 梁睿 또한 어려서 궁중에서 宇文泰의 아들들과 어울렸다.[74] "공신의 자식을 궁중에서 기르게 했다(以功臣子養宮中)"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몇몇의 아이들이 특별히 宇文泰의 눈에 띄어 아들들과 교유하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入關한 많은 인물들이 關中에서 새롭게 혼인을 맺었기 때문에 당시 關中에서는 동시대에 공신의 자식들이 대거 태어나고, 또 함께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韓擒虎, 崔仲方, 楊堅, 그리고 위에서 생년을 추론한 崔彭, 崔弘度, 楊素 등 많은 인물들이 이 530년대 말 ~ 540년대 초에 태어났고, 宇文泰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였다.

집정자 宇文泰에게 있어 공신들의 자제를 궁에서 기르게 한 것은 다양한 목적이 있었을 수 있다. 특별히 몇몇의 공신을 총애한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의 자식을 인질로서 잡아둔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關中에 모인 이질적 집단들을 잘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을 수도 있다. 宇文泰는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宇文泰의 방식은 비슷한 연령대의 입관 제 2세대 인물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이질적

而異之, 令與諸子同就學. 時高祖亦在其中, 由是與高祖少相款密."

71) 『北史』 卷 35 「鄭羲傳附鄭譯傳」 p.1312, "譯字正義. 幼聰敏, 涉獵羣書, 工騎射, 尤善音樂, 有名於世. 譯從祖文寬, 尙周文帝元后妹魏平陽公主, 無子, 周文命譯後之. 由是譯少爲周文所親, 恒令與諸子遊集."

72) 『隋書』 卷 46 「元暉傳」 p.1256, "元暉字叔平, 河南洛陽人也. 祖琛, 魏恒、朔二州刺史. 父翌, 尙書左僕射. 暉鬚眉如畫, 進止可觀, 頗好學, 涉獵書記. 少得美名於京下, 周太祖見而禮之, 命與諸子遊處, 每同席共硯, 情契甚厚. 弱冠, 召補相府中兵參軍, 尋遷武伯下大夫 … 歲餘, 卒于京師, 時年六十. 上嗟悼久之, 勑鴻臚監護喪事."

73) 『隋書』 卷 52 「韓擒虎傳」 p.1339, "韓擒字子通, 河南東垣人也, 後家新安. 父雄, 以武烈知名, 仕周, 官至大將軍、洛、虞等八州刺史. 擒少慷慨, 以膽略見稱, 容貌魁岸, 有雄傑之表. 性又好書, 經史百家皆略知大旨. 周太祖見而異之, 令與諸子遊集."

74) 『北史』 卷 59 「梁禦傳附子睿傳」 p.2120, "睿字恃德, 少沉敏有行檢. 周文帝時, **以功臣子養宮中**, 復命與諸子遊處. 七歲, 襲爵廣平郡公."(볼드체는 필자)

집단 사이의 인적결합이 강화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入關山東士族은 西魏·北周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지배층에 편입되었다. 入關 1세대는 대부분 일찍이 西魏 정권에 참여하여, 40여 년간 여러 공훈을 쌓아 고관을 역임하였다. 入關 2세대는 鄭譯과 北周 武帝, 鄭譯과 隋文帝, 崔仲方과 隋文帝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서부터 어울리면서 동서 분열 이전의 배경을 어느 정도 초월하여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로써 入關 1세대에서는 물론이고, 入關 2세대는 더욱 더 강력한 집단의식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建德 6년(577) 北周가 北齊를 멸망시키면서 화북은 다시 통일된다. 분열되었던 동서가 다시 합쳐지면서 山東으로의 길이 열리고, 北齊系 인물들과의 교류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入關山東士族은 새로운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Ⅱ. 建德 6년(577) 華北統一 이후 入關山東士族의 잔류와 복귀

華北統一 후 入關山東士族의 동향에 대해서 劉馳는 이들이 다시 山東으로 복귀하였으며, 늦어도 隋 대에는 그 복귀가 마무리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제시한 것은 박릉최씨 崔猷의 손자인 崔民幹이 『貞觀氏族志』의 편찬 과정에서 그가 山東士族 취급을 받으며 강격되었다는 점 하나뿐이었다.[75] 唐 초에 崔民幹이 山東士族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隋 대에 이미 복귀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堀井裕之는 90년대 말 河北省 平山縣에서 발굴된 崔猷 계통의 묘장과 묘지명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들의 귀장 및 山東으로의 복귀가 이루어졌음을 밝혀 劉馳의 주장을 지지하였다.[76] 하지만 堀井裕之 또한 여러 入關旁支 중에서도 하나의 계통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본 장에서는 華北統一 이후 入關山東士族의 山東 복귀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주장을 재검토하기

75) 劉馳, 「山東士族入關房支與關隴集團的合流及其復歸」, pp.553-559.

76) 堀井裕之, 「唐·李百藥撰「崔仲方墓誌」の分析—入關山東貴族の性格をめぐって—」, 2007.

위해 먼저 崔猷 계통의 사례를 파악한 뒤, 이를 다른 가문들의 사례와 비교하여볼 것이다.

1. 崔猷의 河北 歸葬과 北齊系 山東士族과의 합류

堀井裕之는 崔猷 계통의 河北 귀장 및 山東으로의 복귀에 관하여 주로 崔猷의 아들 崔仲方을 중심으로, 또는 崔猷와 崔仲方을 동등한 비중으로 두고 논하였다.[77] 하지만 華北統一 이후 崔猷 계통의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入關 전 崔猷의 배경과 華北統一 후 崔猷를 둘러싼 상황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려서부터 楊堅과 교유하던 崔仲方은 '周隋革命' 과정에서 楊堅의 복심으로서 그를 도왔다.[78] 이때 宇文泰 원종세력의 尉遲迥은 楊堅에게 반대하며 山東지역을 기반으로 起兵하였다. 楊堅은 崔仲方에게 戰線의 장수들을 감독하라고 명령하였다. 하지만 崔仲方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인 崔猷가 山東지역에 있기 때문이었다.[79] 崔仲方은 자신이 전쟁터에 등장하면 尉遲迥이 崔猷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楊堅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다.

그런데 崔猷는 '尉遲迥의 난'이 일어났던 시점인 大象 2년(580)에 왜 山東지역에 가있었던 것일까? 崔猷의 열전에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가 建德 6년(577) 조정으로 돌아와 小司徒와 上開府儀同大將軍에 임명되고 난 다음의 기록은 隋가 창건되어(581) 관직, 작, 식읍을 받았다는 내용이다.[80] 이처럼 崔猷가 이무렵 山東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지만, 정황을 고려하여 그의 행적을 추

---

77) 위의 논문.

78) 『隋書』 卷 60 「崔仲方傳」 p.1448, "會帝崩, 高祖爲丞相, 與仲方相見, 握手極歡, 仲方亦歸心焉. 其夜上便宜十八事, 高祖並嘉納之. 又見衆望有歸, 陰勸高祖應天受命, 高祖從之."

79) 『隋書』 卷 41 「高熲傳」 p.1180, "尉迥之起兵也, 遣子惇率步騎八萬, 進屯武陟. 高祖令韋孝寬擊之, 軍至河陽, 莫敢先進. 高祖以諸將不一, 令崔仲方監之, 仲方辭父在山東. 時熲又見劉昉、鄭譯並無去意, 遂自請行, 深合上旨, 遂遣熲."

80) 『周書』 卷 35 「崔猷傳」 p.617, "建德四年, 出爲同州司會. 六年, 徵拜小司徒, 加上開府儀同大將軍. 隋文帝踐極, 以猷前代舊齒, 授大將軍, 進爵汲郡公, 增邑通前三千戶. 開皇四年卒, 謚曰明."

측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崔猷는 이 시기에 東·西魏가 분열된 후 東魏·北齊 지역에 남아있던 가족들을 만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崔猷의 가족은 孝武帝의 西遷(534) 이후 洛陽에 들어온 高歡에 의해 '家難'을 입었다. 이 부상서였던 崔猷의 아버지 崔孝芬은 물론이고 崔孝芬의 제4~8남인 宣軌, 宣質, 宣靖, 宣略, 宣默은 모두 처형되었다. 장남 宣祖, 제3남 宣度, 말자 宣寶는 도망쳤다가 天平 연간(534-537)에 사면되어 東魏·北齊에서 벼슬하였으며, 제2남 崔猷만이 關中으로 도망쳐 西魏·北周에 벼슬하였다. 이후 살아남은 세 명의 형제들 중에서 막내인 崔宣寶는 죄를 얻어 죽었고 장남인 崔宣祖는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제3남 崔宣度의 경우 隋에서 恒農 태수에 임명되었다.[81] 北齊系 인물인 崔宣度가 사망하였다고 해서 태수로 추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崔宣度의 경우에는 생존해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형제들 이외에도 「希仁妻崔芷蘩墓誌」에 따르면 崔猷의 누이동생인 崔芷蘩은 조군이씨 李希仁과 결혼하고 東魏·北齊에서 살아가다가 華北統一 이후인 開皇 2년(582)에 70세로 사망하였다. 또한 해당 묘지에 따르면 崔芷蘩의 장남 李公源이 崔猷의 장녀와 결혼하였다. 이 崔猷의 장녀는 孝武帝 西遷에 따른 '家難' 이후에 崔芷蘩이 맡고 있다가 자신의 장남과 혼인을 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82] 이 결혼이 建德 6년(577) 화북 통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 崔猷와 崔芷蘩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이들 장녀와 장남의 결혼은 華北統一 이후가 아니라 동서 분열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83]

---

81) 堀井裕之, 「—「隋·李希仁妻崔芷蘩墓誌」を手掛かりに—」, pp.76-77.

82) 앞의 논문, pp.73-85.

83) 崔猷의 생년과 나이는 열전이나 친족의 묘지명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하지만 묘지에 따르면 누이동생인 崔芷蘩의 생년은 513년이고, 崔孝芬의 제6남 崔宣靖과 제 8남 崔宣默이 각각 518년생, 520년생이다. 동생들의 출생연도를 통해 형의 나이를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가 開皇 4년(584)에 사망했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대략 505~510년 즈음에 태어났다고 추정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孝武帝의 西遷과 '家難'이 일어난 永熙 3년(534)에 崔猷는 25~30세, 崔芷蘩은 22세였고, 建德 6년(577)에 崔猷는 68~73세이고 崔芷蘩은 65세였다. 「李希仁妻崔芷蘩墓誌」, "以開皇二年九月十五日薨於道仁鄉吉遷里, 春秋七十, 卽以其年十二月廿六日祔於舊塋"(王其禕·周曉薇, 『隋代墓誌銘匯考』, 北京: 線裝書局, 2007, 8번 ; 叢文俊, 「北魏崔宣默、崔宣靖墓志考」, 『中國書法』, 2001-11, p.58.)

따라서 崔猷의 장녀는 崔猷가 關中으로 들어가기 전에 태어났거나 적어도 부인의 뱃속에 있었지만, 崔猷가 '家難' 속에서 몰래 關中으로 도망치면서[84] 미처 데리고 가지 못해 山東지역에 남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崔猷는 집안의 비극 속에서 급하게 형제, 누이, 부인, 자식과 헤어지게 되었고, 생존한 모든 친족들은 山東에 남아있었다. 비극적이고 갑작스럽게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던 崔猷이기 때문에 화북이 통일되자 그는 가족들과 만나기 위해 '老軀'를 이끌고 山東으로 갔던 것으로 추측된다.

崔猷는 또한 자신의 형제들인 崔宣靖과 崔宣默의 遷葬에도 직접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에서는 崔猷가 이들의 매장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점은 지적하였지만, 叢文俊은 崔猷가 長安에 머물면서 형제들을 매장시켰다고 보았고,[85] 堀井裕之 또한 崔猷가 형제들의 매장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을 뿐 叢文俊의 주장을 수정하지 않았다.[86] 崔宣靖과 崔宣默의 묘지명에 따르면 매장일은 大象 원년(579) 十월 26일이며,[87] '尉遲迥의 亂'은 大象 2년(580) 六월에 시작되어 七월에 마무리되었다. 崔猷가 이 시기에 山東에 있었다면 동생들을 매장이 끝난 뒤에 山東에 도착했다기보다는, 동생들의 매장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이미 山東에 와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崔猷는 '尉遲迥의 亂'이 진압된 후 뒤바뀐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長安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약 반년 정도 지난 開皇 원년(581) 二월, 수문제가 즉위하면서 여러 인물들에게 새로 관작을 내릴 때, 崔猷 또한 이때 '北周의 舊臣'이라는 명분으로 大將軍에 임명되고 河北 지역의 汲郡公에 봉해졌으며 식읍을 추가로 받았다. 崔猷는 이후 몇 년이 지난

---

84) 『周書』 卷 35 「崔猷傳」 p.615, "旣遭家難, 遂間行入關. 及謁魏孝武, 哀動左右, 帝爲之改容. 旣退, 帝目送之曰: 「忠孝之道, 萃此一門.」 卽以本官奏門下事."

85) 叢文俊, 앞의 논문, p.58.

86) 堀井裕之, 「唐·李百藥撰「崔仲方墓誌」の分析—入關山東貴族の性格をめぐって—」, p.299.

87) 叢文俊은 崔宣默 묘지명에서 그 매장일이 "周大象元年, 歲在困敦之辰, 月居應鐘之呂, 廿六日甲申, 窆於臨山之陽"로 적혀있어, "困敦之辰"은 庚子년인 大象 2년(580)에 해당되며 "應鐘"을 十二월로 해석하여 大象 원년(580)를 庚子로 착각했거나, "周大象元年"이 大象 2년(580)의 오기이고 崔宣默이 崔宣靖보다 1년 늦게 매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앞의 논문, p.58.) 하지만 "應鐘"은 十월이고(『漢書』 卷 21上 「律曆志第一上」 p.960, "應鐘, 言陰氣應亡射, 該臧萬物而雜陽閡種也. 位於亥, 在十月.") 遷葬을 일괄적으로 같은 날에 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崔宣靖과 崔宣默 모두 매장일이 대상 원년 十월 26일일 것이다.

開皇 4년(584)에 사망하였다.[88]

崔猷의 경우 그의 무덤이나 묘지명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에 대해 확언할 수 없다. 하지만 崔猷는 河北 靈壽縣의 가족묘지에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날의 河北省 平山縣에 해당되는 이곳에서는 崔猷의 사촌으로서 北齊에서 상서좌복야 등의 고관을 역임한 崔昻, 전술한 崔宣靖과 崔宣默, 그리고 崔猷의 아들인 崔仲方과 崔仲方의 전처 李麗儀, 崔仲方의 아들 崔大善의 묘가 발굴되었다.[89] 堀井裕之가 지적하였듯이 李麗儀와 崔大善을 매장한 것은 崔仲方이었을 것이다.[90] 이 둘은 각각 開皇 5년(585)과 開皇 15년(595)에 매장되었고[91], 당시 崔仲方은 아직 살아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李麗儀의 매장 시점이다. 李麗儀는 이미 北周 天和 6년(571) 五월 17일에 27세의 나이로 長安에서 사망하였다. 당시에는 아직 華北統一이라는 미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李麗儀는 長安에 매장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묘지명에 따르면 李麗儀는 開皇 5년(585) 二월 19일에 靈壽縣에 개장되었다.[92] 전술한 것처럼 崔猷는 開皇 4년(584)에 사망하였고, 崔仲方의 묘지명에서도 崔仲方이 開皇 4년(584) 상을 당하여 開皇 6년(586)까지 상을 지내다가 虢州刺史로 복직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93] 그렇다면 崔仲方은 開皇 4년(584)에 아버지인 崔猷가 세상을 떠나자 崔猷의 시신을 河北 靈壽縣에 매장시켰고, 이때 동시에 長安에 묻었던 李麗儀도 함께 靈壽縣의 새로운 가족묘지에 개장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李麗儀가 이듬해인 開皇 5년 二월에 매장된 것은 長安에서 河北 靈壽縣까지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이다.

---

88) 『周書』 卷 35 「崔猷傳」 p.617, "隋文帝踐極, 以猷前代舊齒, 授大將軍, 進爵汲郡公, 增邑通前三千戶. 開皇四年卒, 謚曰明."

89) 叢文俊, 앞의 논문, pp.58-59 ; 劉連强 외, 「河北平山縣西岳村隋唐崔氏墓」, 『考古』, 2001-02, p.55.

90) 堀井裕之, 앞의 논문, p.299.

91) 「崔仲方妻李麗儀誌」(『隋代墓誌銘彙考』 35번), 「崔大善誌」(『隋代墓誌銘彙考』 139번)

92) 「崔仲方妻李麗儀誌」 "去周天和六年五月十七日遘疾殞於京師之第, 時年廿七, 粤以大隋開皇五年歲次乙巳二月戊子朔十九日丙午改祔零壽縣脩仁里臨山之大墓."

93) 「崔仲方及妻李氏盧氏墓誌」 "開皇 ... 四年, 丁艱去職. 公喪過於哀, 慟踰禮度. 六年, 除虢州刺史. 服制雖終, 瘡巨未復. 羸瘠猶甚, 哀感行路."(吳鋼 主編, 『全唐文補遺』 8, 西安: 三秦出版社, 2005.)

崔猷와 李麗儀의 靈壽縣으로의 歸葬은 崔猷가 大象 원년(580)에 자신의 형제들을 그곳에 묻으면서 이미 계획한 일이었을 것이다. 華北이 통일되기 이전까지 崔猷는 본인이 아직 살아있을 때 통일이 되어 北齊에 있는 가족들과 다시 합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때문에 며느리인 李麗儀가 사망하자 長安에 새로운 가족묘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통일이 이뤄지기 전에 崔猷가 사망하였다면 崔猷 또한 長安의 가족묘지에 매장되었을 것이다.[94] 하지만 崔猷는 통일 이후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北齊系 동족들의 舊塋에 매장한다는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된 것이다.

가족구성원이 다수 사망하여 長安에 이미 가족묘지가 크게 형성되었다면 먼 河北으로의 귀장은 부담스러운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入關 1세대인 崔猷, 그리고 崔仲方을 낳은 부인이 아직 생존해있었다.[95] 따라서 아직 長安의 묘역에는 기매장자가 많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써 묘역을 옮기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崔猷, 李麗儀, 崔大善 이후 崔仲方 또한 貞觀 11년(637)에 靈壽縣으로 귀장되었다.[96][97] 이러한 崔猷 계통의 河北 귀장에 대해 堀井裕之는 이들이 北齊系 박릉최씨와 재결합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崔猷의 사촌 崔昂

---

94) 崔猷와 마찬가지로 入關山東士族 1세대인 崔說과 鄭偉는 통일 이전에 사망하여 長安에 매장되었다.「周大將軍崔說神道碑」"建德四年正月十日, 薨於長安之永貴里私第, 春秋六十有四. ... 卽以其年二月二十四日, 葬於京兆平原鄕之吉遷里." (『庾子山集注』, p782.) ;「周大將軍襄城公鄭偉墓誌銘」"以天和六年四月十七日薨, 年五十七. ... 夫人李氏, 頓丘貴姓. ... 以其年十一月六日, 合葬於咸陽之長安縣某原."(『庾子山集注』, pp.941-942.)

95) 崔仲方의 모친은 隋煬帝가 즉위한 이후로도 생존해있었다. (『隋書』 卷 60「崔仲方傳」p.1450, "仁壽初 ... 會上崩 ... 煬帝令周羅睺攻之, 中流矢卒, 乃令仲方代總其衆, 月餘拔之. ... 朝廷以其衰老, 出拜上郡太守. 未幾, 以母憂去職. 歲餘, 起爲信都太守, 上表乞骸骨, 優詔許之. 尋卒於家, 時年七十六.") 이때의 崔仲方의 모친은 崔猷의 후처일 것이다. 崔猷의 장녀를 낳은 부인은 장녀와 함께 東魏-北齊 영역에 남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96)「崔仲方及妻李氏盧氏墓誌」"大業 ... 曰以十年七月廿九日, 薨於東都敎業里之第, 春秋七十有六. ... 改安眞宅, 言歸舊塋. ... 大唐貞觀十一年歲次丁酉十一月辛巳朔五日乙酉葬. 固安公夫人隴西李氏, 上柱國太保公耀之女也. ... 後夫人范陽盧氏, 幽州刺史正山之女. ... 并以大唐貞觀十一年歲次丁酉十一月辛巳朔五日乙酉, 合葬於靈壽縣之臨山舊塋, 禮也. 長子民燾, 第二子民滌, 第三子民令, 嫡孫敦禮, 孫瑒, 孫餘慶, 孫承休, 孫承福."(『全唐文補遺』8)

97) 劉連强 외, 앞의 논문, p.55.

의 계통은 北魏 말 安平縣에서 蒲吾縣으로 이주하여 그 근처인 靈壽縣에 묘역을 이루고 있었다. 堀井裕之는 이에 더해 崔仲方이 北齊系 범양노씨인 盧正山의 딸을 후처로 맞이한 것, 그리고 崔仲方 묘지명의 찬자가 李百藥이었던 것을 단서로 崔仲方·崔民燾 부자와 李德林·李百藥 부자 사이의 교유를 추가 근거로 제시하여 '入關博陵崔氏'가 山東의 향리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98]

崔猷의 아들 崔仲方은 關中에서 태어나 西魏·北周 지배집단의 2세대들과 함께 교유하며 성장했고, 또한 關中에서 성공적인 관직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그가 山東士族과의 재결합이라는 崔猷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었다면, 崔猷가 사망하고 나서 崔猷를 靈壽縣에 귀장시키는 것까지는 따를 수 있어도, 李麗儀의 묘지에서 오히려 西魏·北周的 전통을 더 강조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崔仲方은 이미 隋 건국 초, 北周의 周官을 폐지하고 漢·魏의 옛 제도를 따를 것을 隋文帝에게 건의하여 그 의견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다.[99] 주지하듯 周官은 宇文泰가 蘇綽과 盧辯에게 명령하여 周禮에 의거하여 만든 관직제도로, 北周에서 약 25년 동안 시행되었다가 隋 開皇 원년(581)에 폐지되었다.[100] 西魏·北周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 것을 보면 崔仲方은 적어도 隋가 건국됐을 시점에 이미 崔猷의 노선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崔猷 계통은 建德 6년(577) 화북이 통일되자 北齊系 山東士族과의 재결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와 같은 그들의 복귀에 시발점이 된 것은 역시 崔猷가 약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山東에 가서 北齊系 山東士族들을 만났던 것이었다. 그가 이토록 적극적으로 離散된 가족들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집안의 비극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컸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화북이 통일되고 얼마 되지 않아 '家難'으로 인해 죽은 형제들을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박릉최

---

98) 堀井裕之, 「唐·李百藥撰「崔仲方墓誌」の分析—入關山東貴族の性格をめぐって—」, pp.296-303.

99) 『隋書』 卷 60 「崔仲方傳」 p.1448, "及受禪, 上召仲方與高熲議正朔服色事. ... 又勸上除六官, 請依漢、魏之舊. 上皆從之."

100) 王仲犖, 『北周六典』, 北京: 中華書局 1979, p.2; 朴漢濟, 「西魏·北周時代 胡漢體制의 展開: 胡姓再行의 經過와 그 意味」, 『魏晉隋唐史研究』1, 서울: 思想社, 1994 참고.

씨의 靈壽縣 가족묘역에 귀장시킨 것, 그리고 그가 長安에서 멀리 떨어진 河北의 靈壽縣으로의 귀장을 선택한 것에서도 崔猷의 가족 재결합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만약 華北統一 당시에 崔猷가 이미 사망하였더라면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關中인'으로서 살아온 崔仲方이 北齊系 山東士族과의 결합을 잘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함께 관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정을 쌓는 정도의 결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隋의 權臣 중 하나였던 楊素의 묘지명은 남조의 陳이 멸망하고 隋에 들어온 虞世基에 의해 찬술되었다.[101] 이 둘은 楊素가 사망하기 몇 개월 전에 함께 복제를 정하는 일을 하였고,[102] 그 전에도 함께 일한 적이 있다.[103]

하지만 상대의 가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의 혼인, 얼굴을 본적도 없는 친척과의 결합, 그리고 멀리 떨어진 묘역으로의 귀장은 아무래도 상상하기 어렵다. 때문에 崔猷 계통의 '山東復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華北統一 시점 崔猷의 생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北周 말에는 이미 많은 入關 1세대의 인물들이 사망하여, 그들의 자식이 家長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렇다면 入關 2세대의 山東士族들은 華北統一 이후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

2. 入關山東士族 2세대의 關中 잔류

關中에 들어간 박릉최씨로는 崔猷 이외에도 崔謙, 崔說 형제가 있었다. 崔猷와 崔謙, 崔說 형제는 모두 박릉최씨이며 그들의 고조부 崔琨의 후손이었다. 따라서 따지자면 이들은 8촌의 관계이다.[104] 崔謙과 崔說은 入關 전후로 崔猷와 여러 면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 둘의 경우

---

101) 「楊素墓誌」 "大隋納言上柱國光祿大夫司徒公尙書令太子太師太尉公楚景武公墓志銘並序. 朝請大夫內史侍郎虞世基□."(『隋代墓誌銘彙考』 266번.)

102) 『隋書』 卷 3 「煬帝本紀」 pp.65-66, "二年 ... 二月丙戌, 詔尙書令楊素 、吏部尙書牛弘、大將軍宇文愷、內史侍郎虞世基 、禮部侍郎許善心制定輿服. ... 秋七月 ... 乙亥, 上柱國、司徒、楚國公楊素薨."

103) 『隋書』 卷 49 「牛弘傳」 pp.1308-1309, "時高祖又令弘與楊素、蘇威、薛道衡、許善心、虞世基、崔子發等幷召諸儒, 論新禮降殺輕重."

104) 『新唐書』 권72下 「宰相世系表二下·博陵第二房崔氏」 pp.2792-2808.

崔猷와 같은 '家難'을 입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 崔楷가 '육진의 난(六鎭之亂)' 이후 일어난 반란세력 중 하나인 葛榮에 의해 孝昌 3년(527)에 살해되었다.[105] 이때 崔楷의 장남 崔士元 또한 함께 전투 중에 사망하였다.[106]

崔楷의 가족관계는 그의 묘지명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107] 崔楷는 5남 9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순서대로 士元, 士謙, 士約, 士愼, 士恂이다. 士元, 士謙, 士約과 7명의 딸은 농서이씨 부인 소생이며, 士愼과 士恂과 한 명의 딸은 시녀 장씨 소생, 나머지 한 명의 딸은 첩 유씨 소생이다. 이 중 士謙과 士約이 바로 각각 崔謙과 崔說이다.[108] 제 2남 崔謙은 부친과 첫째 형이 사망하면서 아직 많지 않은 나이에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109]

崔謙, 崔說 형제는 太昌 원년(532)에 賀拔勝이 형주 방면으로 파견될 때[110] 수하 장수로서 따라갔다. 이후로는 Ⅰ장 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孝武帝가 高歡에게 패퇴되고 西遷하자 賀拔勝은 남조 梁으로 달아났다가

---

105) 『魏書』 卷 9 「孝明帝本紀」 pp.245-246, "三年春正月 ... 辛巳, 葛榮陷殷州, 刺史崔楷固節死之, 遂東圍冀州."

106) 『魏書』 卷 56 「崔辯傳」 p.1256, "長子士元, 擧茂才, 平州錄事參軍、假征虜將軍、防城都督, 隨楷之州, 州陷, 亦戰歿. 楷兄弟父子, 並死王事, 朝野傷歎焉. 贈使持節、散騎常侍、鎭軍將軍、定州刺史. 永熙中, 又特贈侍中、都督冀定相三州諸軍事、驃騎大將軍、儀同三司、冀州刺史."

107) 「崔楷墓誌」 (倪潤安, 「河北曲陽北魏崔楷墓的年代及相關問題」, 『中國歷史文物』, 中國國家博物館館刊, 2013, pp.35-36.) 이 묘지는 매장 연도가 적혀있지 않지만, 그가 사망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에 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 그 묘지명 작성 연대를 추정하면 넓게는 551~577년, 좁게는 562~577년이 된다.

108) 崔說의 경우 본명은 士約이었는데 宇文泰로부터 宇文氏를 賜姓 받으면서 說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이었다(『周書』 卷 35 「崔謙傳附弟說傳」 p.614, "說本名士約, ... 賜姓宇文氏, 幷賜名說焉.")

109) 제 3남 崔說은 512년생으로 崔楷가 사망한 孝昌 3년(527)에는 16세였다.(「周大將軍崔說神道碑」 "建德四年正月十日, 薨於長安之永貴里私第, 春秋六十有四. 詔贈敷延丹綏恒五 州諸軍事、敷州刺史. 謚曰莊公, 禮也. 卽以其年二月二十四日, 葬於京兆平原鄕之吉遷里." 『庾子山集注』, pp.782.) 崔謙은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들이 각각 제 2남, 제 3남이고, 崔謙은 효창(孝昌) 연간(525-528)에 첫 관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孝昌 3년(527)에는 대략 20세였다고 추정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周書』 卷 35 「崔謙傳」 p.612, "孝昌中, 解褐著作佐郎.")

110) 『周書』 卷 14 「賀拔勝傳」 p.218, "太昌初, 以勝爲領軍將軍, 尋除侍中。孝武帝將圖齊神武, 以勝弟岳擁衆關西, 欲廣其勢援, 乃拜勝爲都督三荊、二郢、南襄、南雍七州諸軍事, 進位驃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荊州刺史, 加授南道大行臺尙書左僕射."

大統 2년(536)에 關中으로 들어갔다. 崔謙, 崔說 형제 또한 賀拔勝과 함께 關中지역에 들어갔다.[111]

太昌 원년(532) 賀拔勝을 따라 형주로 간 이후, 崔謙, 崔說 형제는 한 번도 가족과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때 둘의 나이는 崔說 21세, 崔謙은 대략 25세였다. 崔說은 농서이씨 부인이 있었고, 이들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형인 崔謙의 경우 마찬가지로 농서이씨 부인을 두고 있었으며,[112] 그 사이에서는 1남 1녀가 있었다. 아들은 崔君治이며 딸은 崔市妃이다. 이 둘은 崔謙이 형주로 떠날 때는 아직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崔楷 묘지명에 따르면 崔君治는 농서이씨와 결혼하였으며, 軍務 중에 사망하였다. 崔市妃는 齊州刺史를 지낸 조군이씨 李祖昇과 결혼하였다. 李祖昇은 李憲의 손자이자 李希宗의 장자이다.[113] 또한 李希宗과 결혼한 崔楷의 제 3녀 崔幼妃의 아들이기도 하다.[114] 이를 고려한다면 崔謙이 집을 떠난 뒤로 그의 자식들은 외가인 농서이씨 가문에서 보살펴지다가 아들인 崔君治는 다시 농서이씨와 혼인을 맺고, 崔市妃는 숙모인 崔幼妃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켜 보호해준 것으로 보인다. 入關한 형제의 딸을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켰다는 점, 그리고 둘 다 李憲의 자식과 결혼했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崔猷의 누이 崔芷蘩의 사례와 유사하다. 전란의 시대에 남자들이 정치적으로 또는 전쟁 중에 사망하는 일이 빈번했

---

111) 『周書』 卷 35 「崔謙傳」 p.612, "賀拔勝出鎭荊州, 以謙爲行臺左丞. ... 及魏孝武將備齊神武之逼, 乃詔勝引兵赴洛. 軍至廣州, 帝已西遷. 勝乃遲疑, 將旋所鎭. ... 敗績, 遂將麾下數百騎南奔於梁. 謙亦與勝俱行. 梁武帝 ..., 而嘉勝等志節, 竝許其還國. 乃分謙先還, 且通隣好. ... 太祖素聞謙名, 甚禮之. 乃授征西將軍、金紫光祿大夫, 賜爵千乘縣男. 及勝至, 拜太師, 以謙有毗輔之功, 又授太師長史." ; 『周書』 卷 35 「崔謙傳附弟說傳」 p.614, "及賀拔勝出牧荊州, 以說爲假節、冠軍將軍、防城都督. 又隨勝奔梁, 復自梁歸國. 授衛將軍、都督, 封安昌縣子, 邑三百戶."

112) 崔楷 계통과 농서이씨 李承 계통의 중층적 혼인결합에 대해서는 倪潤安, 앞의 논문, pp.37-38 참고.

113) 『北史』 卷 33 「李順傳」 p.1216, "希宗長子祖昇, 儀容瓌麗, 垂手過膝, 文學足以自通. 位齊州刺史. 淫於從兵妻, 見殺."

114) 「李憲墓誌」 "希宗妻博陵崔氏. 父楷, 儀同三司. 孫祖昇, 字孝擧, 司徒參軍. 第二孫祖勳, 字孝謀. 孫女祖猗, 適安(下殘)." (趙超, 『漢魏南北朝墓誌彙編』,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2, p.332.) 李憲묘지에는 기록되어있지 않지만, 李希宗과 崔幼妃의 딸 李祖娥는 北齊 文宣帝의 황후가 된다(『北齊書』 卷 9 「文宣李后傳」 p.125, "文宣皇后李氏, 諱祖娥, 趙郡李希宗女也.")

긴 때문에, 이처럼 고아들을 중층적 혼인망 속에서 서로 챙겨주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崔謙과 崔說이 떠나고 나서, 막내 崔士恂은 요절했기 때문에 崔楷의 5남 중 山東에 남은 것은 崔士愼 뿐이었다. 崔士愼의 경우 입전되어있지는 않지만,『新唐書』「宰相世系表」를 보면 崔楷의 아들이자 崔說의 동생으로 崔士順이 있으며, 北周에서 同開府行參軍에 임명되었다고 적혀있다.[115] 崔楷의 남아있는 아들은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이「宰相世系表」의 인물은 崔士愼이 유력하다.

崔楷 묘지명에서 그는 京畿府鎧曹參軍이라는 관직을 역임했다고 되어있다. '京畿府'는 東魏의 명칭이었고[116] 그가 분열기 중에 귀순했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는 통일 이후에야 北周에서 同開府行參軍에 임명되었을 것이다. 즉, 그는 華北統一까지도 생존해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崔士愼이 통일 이후까지 생존해있었던 것 또한 崔猷의 동생 崔宣度의 경우와 유사하다.

崔謙과 崔說은 西魏·北周에서 여러 중요한 戰役에서 군공을 세우며 지배집단의 상층부에 자리를 잡았다. 崔謙은 北周에서 大將軍, 武康郡公, 荊州總管 등에 임명되고 봉해지며, 말년에는 北齊와 남조 陳과의 접경지인 형주 지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117] 崔說은 大將軍, 安平縣公, 崇德防主 등에 임명되고 봉해졌는데,[118] 崇德은 하남 宜陽 부근의 北齊와의 접경지이다.[119] 따라서 崔說 또한 北齊와의 최전선 방비를 담당할 정도로 北周에서 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Ⅰ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자식들을 宇文泰의 친신인 尉遲迥, 北魏 황실과 결혼시키며 사회적으로도 西魏·北周의 최상층부와 결합되었다.

---

115)『新唐書』권72下「宰相世系表二下·博陵第二房崔氏」pp.2792-2808.

116)『北史』卷 67「王士良傳」p.2359, "東魏徙鄴之後, 置京畿府, 專典兵馬."

117)『周書』卷 35「崔謙傳」p.613, "保定 ... 四年, 加大將軍, 進爵武康郡公. 天和 ... 三年, 遷荊州總管、荊淅等十四州南陽平陽等八防諸軍事、荊州刺史. 州旣統攝遐長, 俗兼夷夏, 又南接陳境, 東隣齊寇. ... 謙隨賀拔勝之在荊州也, 雖被親遇, 而名位未顯. 及踐其位, 朝野以爲榮. 四年, 卒於州."

118)『周書』卷 35「崔謙傳附弟說傳」p.614, "齊王憲東征, 以說爲行軍長史. 軍還, 除使持節、崇德安義等十三防熊和中等三州諸軍事, 崇德防主, 加授大將軍, 改封安平縣公. 建德四年卒, 時年六十四."

119)『北史』卷 58「齊煬王憲傳」p.2087, "天和 ... 四年, 齊將獨孤永業來寇, 詔憲與柱國李穆出宜陽, 築崇德等五城, 絶其糧道. 齊將斛律明月築壘洛南."

崔猷와 마찬가지로 山東에 가족을 두고 왔으며 關中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 잡은 崔謙·崔說 형제이지만, 崔猷와는 달리 이들은 모두 화북이 통일되기 이전에 사망했다. 崔謙은 天和 4년(569) 형주에서 죽었고, 崔說은 建德 4년(575) 64세의 나이로 죽었다.[120] 崔說은 그의 신도비를 통해 長安에 매장된 것을 알 수 있다.[121] 崔謙의 경우 묘지명이나 신도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華北統一 이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長安에 매장된 것이 분명하며, 崔說은 이미 崔謙의 매장으로 만들어진 묘역에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崔謙과 崔說이 사망한 뒤 이들 집안의 향방은 入關 2세대인 그들의 자식들, 즉 崔曠, 崔彭, 崔弘度, 崔弘昇, 崔弘峻 등이었다. 이들은 華北統一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였을까. 이들 중 다수는 정사에 입전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이들의 묘지명은 하나도 확인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들의 행보, 山東 귀장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들의 후손들의 묘지명 중 일부에서 그들의 매장 위치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은 崔說의 증손자 崔暟의 묘지명의 말미 부분이다.

> 처음, 안평공의 증조부 양주자사께서는 하삭지역으로부터 '갈영의 난'을 피해서 西魏에서 벼슬하고, 우문씨의 北周 정권에 들어가셨다. 양주자사 이후 3대에 걸쳐 경조 함양의 북쪽 언덕에 매장되었다. 안평공께서 벼슬을 하시는데, 조정의 관료기구가 다수 洛陽에 있기에, 그로 인해 집을 나중에 동쪽으로 옮기셨다.
> 신룡 연간의 난[122]이 일어나자, 어사·복야께서는 모친 안평군부인께서 쇠로하시고, (長安으로 귀장하는) 일이 집안을 가난하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로써 (부모를) 망산에 임시로 매장하셨다. 이후 몇 대에 걸쳐 洛陽에 거주하여, 안평공의 증손자 대에 이르렀다. 4

120) 『周書』 卷 35 「崔謙傳」 p.613, "天和 ... 四年, 卒於州." 「崔謙傳附弟說傳」 p.614, "建德四年卒, 時年六十四."

121) 「周大將軍崔說神道碑」 "建德四年正月十日, 薨於長安之永貴里私第, 春秋六十有四. 詔贈敷延丹綏恒五 州諸軍事、敷州刺史. 謚曰莊公, 禮也. 卽以其年二月二十四日, 葬於京兆平原鄉之吉遷里." (『庾子山集注』, p.782.)

122) 神龍之艱: 唐中宗 복위 사건.

대가 지났고, 게다가 병란이 일어나 도로에 여러 사정이 많아 지금 서쪽으로 천장할 수 없으니, 북장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아, 대력 13년 무오년 사월 정축삭 8일 갑신일, 적손 부인 농서현군 이씨와 개손 중서사인 崔祐甫가 안평공의 널을 받들어 망산 평락원에 옮겨 하관하였고, 안평군 부인 왕씨를 합장하였으니 예이다. 9일 을유일에 하관하였다.[123]

양주자사란 해당 관직을 역임한 적이 있는 崔說을 가리킨다.[124] 어사·복야는 崔暟의 차남 崔沔이다.[125] 崔暟의 증조부 崔說로부터 매장의 주체 崔祐甫까지의 계보를 단선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崔說 - 崔弘峻 - 崔儼 - 崔皚(晧?) - 崔沔 - 崔祐甫

본래 崔暟는 神龍 원년(705)에 이미 망산에 임시로 매장되었으나,[126] 손자인 崔祐甫 등에 의해 大曆 13년(778) 망산의 새로운 묘역으로 개장되었다. 이 인용문은 묘지명 말미에 적힌 것으로, 그러한 개장이 왜 필요했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묘지명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崔說부터 崔儼까지의 3대는 長安에 매장되었으나, 崔暟 때는 관료기구가 주로 洛陽에 있어 거주지를 洛陽으로 옮겼다. 崔暟가 사망했을 때는 하필 神龍政變이 일어났고, 崔暟의 부인 왕씨가 쇠로하여 長安으로 귀장할 수 없었다. 이후 崔暟로부터

123) 「崔暟墓誌」 "初, 安平公之曾祖凉州刺史自河朔違葛榮之難, 仕西魏, 入宇文周. 自凉州以降, 三代葬于京兆咸陽北原. 安平公之仕也, 屬乘輿, 多在洛陽, 故家後東徙. 神龍之艱也, 御史, 僕射 以先妣安平郡夫人有羸老之疾, 事迫家窶, 是以有邙山之權兆. 自後繼代家於瀍洛, 及安平公之曾孫也. 爲四葉焉. 況屬兵興, 道路多故, 今之不克西遷也, 亞於事周之不諧北葬. ... 越以大曆十三年歲次戊午四月丁丑朔八日甲申, 嫡孫婦隴西縣君李氏介孫中書舍人祐甫奉安平公之櫬遷窆於邙山之平樂原, 以安平郡夫人王氏祔焉, 禮也。以九日乙酉窆."(周紹良·趙超, 主編 『唐代墓志彙編』下, 上海: 上海古籍, 1992.)

124) 『周書』 卷 35 「崔謙傳附弟說傳」 p.614, "除隴州刺史, 遷總管涼甘瓜三州諸軍事、涼州刺史."

125) 「崔暟墓誌」 "安平公之次子沔字若沖, 服闋授左補闕, 累遷御史, 尙書郎, 起居, 著作, 給事中, 中書舍人, 祕書少監, 左庶子, 中書侍郎, 魏、懷二州刺史, 左散騎常侍, 秘書監, 太子賓客, 薨, 贈禮部尙書、尙書左僕射, 謚曰孝."

126) 「崔暟墓誌」 "初, 安平公之薨也, 以神龍元年十有一月廿四日, 假葬于邙山."

崔祐甫의 자식 세대까지 4세대에 걸쳐 洛陽에 살았으며, 이때에 이르러서는 여러 병란으로 인해 長安으로의 귀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洛陽의 망산에 새로운 가족묘역을 만들게 되었다.

실제로 8세기 말까지도 崔說의 후손들의 의식 속에 長安이 진정한 崔說 계통의 舊塋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崔說부터 崔儼의 3대는 長安에 매장되었으며, 崔曀까지도 본래 長安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사료로 崔說과 그의 후손들이 長安에 매장된 것은 알 수 있지만, 崔謙과 그의 후손들이 어디에 매장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 崔謙의 후손의 묘지명에서도 崔謙의 매장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 윗대의 분영(墳塋)은 누대에 걸쳐 옹주 함양현 경계의 홍도천에 위치하였다. 조부 해주자사는 옹주 명당현 경계 소릉원에 임시로 매장되었다. 대주 천수 2년 신묘년 일월 계유삭 13일 을유일, 낙주 함궁현 경계 북망산 왕안촌 북쪽 언덕에 임시로 하관하였으니, 예이다. 능곡을 옮기면 인간 세상에서 잊히는 것이 두려워, 이로 인해 새겨서 기록하여, 특별히 증거로 삼는다.[127]

崔謙부터 묘주 崔子偘까지의 계보를 단선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崔謙 - 崔曠 - 崔弈 - 崔大方 - 崔思古 - 崔子偘

崔子偘의 묘지명에서는 왜 그가 洛陽을 매장지를 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다만 長安에서 洛陽으로 묘역을 옮겼기 때문에, 이를 후손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崔子偘의 조부인 海州刺史 崔大方이 결국 長安과 洛陽 중 어디에 매장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묘지로부터 적어도 崔謙에서 崔弈까지 3대에 걸쳐서 雍州 咸陽縣, 즉 長安에 매장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127) 「崔子偘墓誌」“上代墳塋, 累在雍州咸陽縣界鴻渡川. 祖海州刺史權葬雍州明堂縣界少陵原. 以大周天授二年歲次辛卯一月癸酉朔十三日乙酉, 權窆洛州合宮縣界北邙山王晏村北原, 禮也. 恐陵谷遷移, 人代雕忽, 故題銘記, 特爲驗焉.”(『全唐文補遺』8)

위의 두 사료로부터 崔謙과 崔說,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 중에서 崔曠과 崔弘峻이 山東으로 귀장하지 않고 長安에 매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자식들까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崔猷가 河北 귀장을 선택했을 때 며느리인 李麗儀까지 천장시킨 것처럼, 만약 崔彭이나 崔弘度 같은 다른 자식들이 귀장을 선택했다면 그들의 부친인 崔謙과 崔說 또한 천장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崔謙과 崔說은 唐 대까지도 長安에 매장되어 있었다. 때문에 이들 계통에서는 崔猷 계통과 같은 河北 귀장이 일어나지 않았고, 崔謙과 崔說의 자식들은 모두 長安에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崔謙, 崔說 계통의 長安 잔류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은 역시 崔謙과 崔說이 華北統一 이전에 사망했던 점이었을 것이다. 崔猷와 마찬가지로 崔謙과 崔說은 의도치 않게 가족과 이별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모두 山東에 남겨져있었다.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살아있었다면 崔猷와 유사하게 山東에 가서 그들의 가족과 만나고, 또 北齊系 山東士族과의 재결합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崔謙과 崔說은 통일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關中에서 태어난 入關 2세대와 北齊系의 山東士族을 이어줄 연결고리는 끊어지게 되었다.

귀장을 하지 않더라도 崔曠, 崔弘度 등이 山東지역에 남아있던 먼 친척들을 챙겨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崔猷의 동생 崔宣度가 隋에서 恒農 태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北齊에서 별다른 관직을 지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隋에서 고관을 받은 것은 崔猷가 그를 추천한 덕분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128] 하지만 崔謙과 崔說의 자식들은 부친의 동생인 崔士愼을 챙기지 않았던 것 같다. 崔楷의 제 4남 崔士愼은 北周에서 同開府行參軍에 임명되는데 그쳤다. 이는 崔士愼이 그저 北周 말 北齊의 관원을 다시 등용할 때 본래의 관등보다 강격된 관직을 새로 얻은 것에 가까워보인다.[129]

이처럼 崔謙, 崔說 계통의 박릉최씨들은 山東 복귀에 적극적인 태도를

---

128) 堀井裕之, 「北魏の東西分裂と山東貴族—「隋·李希仁妻崔芷蘩墓誌」を手掛かりに—」, p.88.

129) 『周書』 卷 7 「宣帝本紀」 pp.115-116, "宣政元年 ... 八月 ... 壬申 ... 詔制九條, 宣下州郡: ... 僞齊七品以上, 已敕收用, 八品以下, 爰及流外, 若欲入仕, 皆聽預選, 降二等授官."

취하지 않았다면, 이들과 隋 황실의 혼인결합에 대해서도 새롭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堀井裕之는 崔說의 딸이 隋文帝의 아들 秦王 楊俊과 결혼하고, 또 崔說의 아들 崔弘昇의 딸이 晉王 楊廣(後 隋煬帝)의 적자 楊昭와 결혼한 것에 대해 이들이 山東으로 복귀했지만, 동시에 關隴集團과의 관계 또한 진전시킨 것이라고 평가하였다.[130]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崔猷 계통과 다르게 山東으로 복귀하지 않고 關中에 잔류하였다. 그렇다면 이 혼인은 隋 황실이 외척을 山東士族 집안 중에서 고를 때 入關山東士族 중에서도 보다 關隴集團적인 성격을 잘 유지하여, 關隴集團 사이에서도 평판이 보다 높았던 집안과의 결합을 선택한 것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入關한 형양정씨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鄭譯은 關中에서 태어난 入關 2세대이자, 北周와 隋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었다. 그의 부친 鄭道邕(鄭孝穆)은 入關 이전에는 최상층 山東 명족의 하나였다. 鄭道邕의 종증조부인 형양정씨 鄭羲는 北魏에서 중서령, 비서감을 지냈으며 딸을 孝文帝의 빈으로 들여보냈다.[131] 鄭道邕은 李憲의 제 5녀 李稚媛과 결혼하였는데, 李稚媛은 전술하였던 崔謙, 崔說 형제의 누이와 결혼한 李希宗, 그리고 崔猷의 누이 崔芷蘩과 결혼한 李希仁의 누이이다.[132] 따라서 鄭道邕은 박릉최씨 崔猷, 崔謙, 崔說과 한 다리를 건넌 인척관계였으며, 그는 조군이씨, 박릉최씨 등 여러 山東 명족 가문의 중층적 혼인망에 들어가 있었다.

鄭道邕은 孝武帝를 따라 入關하였으며, 西魏·北周에서도 京兆尹, 少司空 등에 임명되어 성공적 관직생활을 하다가, 保定 5년(561) 이후 어느 시점엔가 6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133] 鄭道邕의 아들인 鄭譯 또한 당연히 山東명족 출신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鄭譯의 경우 長安

---

130) 堀井裕之, 「唐·李百藥撰「崔仲方墓誌」の分析—入關山東貴族の性格をめぐって—」, p.300.

131) 『北史』 卷 35 「鄭羲傳」 pp.1287-1304.

132) 「李憲墓誌」 "第五女稚媛, 適驃騎將軍左光祿大夫滎陽鄭道邕. 父瓊, 青州刺史. ... 希宗妻博陵崔氏. 父楷, 儀同三司. ... 希仁妻博陵崔氏. 父孝芬, 儀同三司." (『漢魏南北朝墓誌彙編』 pp.331－332.) 이들 이외에도 李憲의 자식들은 범양노씨, 발해고씨, 또 다른 박릉최씨, 北魏 황실 등과 혼인을 맺고 있어, 537년 매장된 조군이씨 李憲의 묘지명을 통해 北魏 말 山東명족의 중층적 혼인망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133) 『周書』 卷 35 「鄭孝穆傳」 pp.609-611.

잔류와 형양 귀장 중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

鄭譯의 묘지명은 2014년 서안에서 출토되었다.[134] 묘지에 따르면 鄭譯은 開皇 11년(591)에 사망하여 武德 5년(622)에 아들인 鄭元璹에 의해 長安에 매장되었다. 그의 매장에 대한 묘지명의 서술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수덕(隋德)이 망하여 끝날 때에 당하여, 전국이 동란에 빠졌다. 옛 장지(舊塋)에 묻히기를 바랐지만, 산천이 험하고 멀어서, 곧 武德 5년(622) 十二월 무신삭 14일에 옹주 만년현 황대향 소릉원에 매장하였다"[135]

여기서 舊塋은 멀고 험한 곳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長安이 아니라 滎陽일 것이다.

鄭譯의 묘지명은 鄭譯이 滎陽으로 귀장하기를 바랐지만, 長安에서 滎陽까지 산세가 험하고 너무 멀고 또 隋 말의 혼란으로 인해 프으로의 귀장이 여의치 않아 長安에 매장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開皇 11년(591)으로부터 武德 5년(622)까지는 30년이 넘는 시간차가 존재하며, 鄭譯이 사망은 隋 말의 동란으로부터도 20년 빨랐다. 때문에 隋 말의 동란은 귀장을 하지 않은 실제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산천이 험하고 멀다고 하지만, 長安으로부터 河南의 滎陽까지는 앞선 崔猷의 長安으로부터 河北 靈壽縣까지의 귀장에 비교하면 오히려 매우 가깝고 쉬운 편이었다.[136] 長安에서 滎陽까지도 물론 멀고 험한 길이지만, 당시에 보다 먼

---

134) 陳根遠,「隋『鄭譯墓誌』」,『書法』, 2018-6, p.126.

135)「鄭譯墓誌」"値隋德亡季, 海內群飛, 言望舊塋, 山川遐阻, 乃以武德五年十二月戊申朔十四日寄窆於雍州萬年縣黃臺鄉小陵原." (龍成松,「『鄭譯墓誌』與開皇樂議相關史料辨正」,『中國音樂學』, 2019-2, p.40.)

136) 보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高潭의 귀장이 있다. 北齊系 발해고씨 高潭은 北齊가 멸망한 뒤 北周에서 益州 陽安縣令에 임명되어 大象 2년(580) 이곳에서 4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는 이후 1년 반 가량이 지나서 開皇 2년(582)에 본적지인 渤海郡 條縣 근처에 매장되었다. 益州 陽安縣은 오늘날 四川省 簡陽縣이고, 묘지가 출토된 곳은 河北省 景縣이다(「故周殄寇將軍益州陽安縣令高君墓誌銘」, "齊曆云季, 授儀同三司. 周武皇帝勘定山東, 明揚俊楚, 除殄寇將軍、益州陽安縣令. ... 以周大象二年九月十三日終於官寺, 春秋冊有四. ... 以隋開皇二年歲在析木之津二月廿二日丙申窆於冀州渤海郡條縣南之西卅里."(『隋代墓誌銘彙考』2번))

거리의 귀장도 이루어졌던 것을 고려한다면 長安에서 滎陽까지의 거리는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귀장이 가능한 거리였을 것이다.

혹시 다른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귀장이 연기된 것일까? 鄭譯이 사망했을 당시에는 滎陽으로의 귀장이 어려웠고, 하필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을 시점에는 隋 말의 혼란기라서 長安에서 滎陽으로 귀장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귀장을 담당할 사람이 鄭譯의 사망 시점에 없었을 가능성이다. 매장의 주재자인 鄭元璹가 鄭譯 사망 시점에는 너무 어렸고, 鄭譯의 집안에 성인이 된 인물이 없었다면 滎陽까지의 귀장은 당장 실행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아마 鄭譯이 사망할 당시 鄭元璹는 이미 성인이었을 것이다. 鄭元璹의 열전에서는 그의 나이를 파악할 수 없다.[137] 하지만 그의 사촌동생인 鄭善果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鄭善果는 부친이 '尉遲迥의 난'에서 전쟁 중에 사망하여 大象 2년(580) 또는 開皇 원년(581)에 9세의 나이로 부친의 작을 이어받았다. 때문에 鄭善果는 鄭譯이 사망한 開皇 11년(591)에는 이미 19~20세였다. 鄭元璹는 鄭善果의 사촌형이기 때문에 그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鄭譯이 사망했을 때 鄭元璹가 이미 20대였기 때문에, 그에게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귀장을 주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鄭譯은 北周에서만 최소 식읍 5,000호를 받았고, 隋 건국 시점에는 鄭譯의 공으로 鄭元璹에게 식읍 2,000호가 내려졌다.[138] 따라서 비록 귀장에 큰 비용이 지불되어야 했다고 하더라도 鄭譯 집안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鄭譯이 滎陽으로 귀장하지 않고 長安에 매장된 것이 오히려 본인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鄭譯이 죽자 隋文帝가 사신을 파견하여 弔喪하고 제사지내게 했기 때문에[139] 아

---

137) 『舊唐書』 卷 62 「鄭善果傳附從兄元璹傳」 pp.2379-2381, 『新唐書』 卷 100 「鄭善果傳附元璹傳」 pp.3937-3938.

138) 『隋書』 卷 38 「鄭譯傳」 pp.1136-1137, "及帝崩, 太子嗣位, 是爲宣帝. 超拜開府、內史下大夫、封歸昌縣公, 邑一千戶, 委以朝政. 俄遷內史上大夫, 進封沛國公, 邑五千戶, 以其子善願爲歸昌公, 元琮爲永安縣男, 又監國史. ... 及上受禪, 以上柱國公歸第, 賞賜豐厚. 進子元璹爵城皐郡公, 邑二千戶, 元珣永安男. 追贈其父及亡兄二人並爲刺史."

139) 『隋書』 卷 38 「鄭譯傳」 p.1138, "開皇十一年, 以疾卒官, 時年五十二, 上遣使弔祭焉. 謚曰達. 子 元璹嗣."

마 鄭譯은 사망하고 나서 얼마 뒤에 매장되었으며, 묘지명 또한 당시에 이미 작성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어도 武德 5년(622)에 다시 매장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묘지명을 고쳐서 새로 長安에 매장했을 것이다. 이때 귀장하지 못하는 명분을 굳이 기록한 것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최상층 명문인 형양정씨임에도 滎陽이 아닌 長安에 매장하는 것에 관하여 주변인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댄 것으로 추측된다.

鄭譯과 鄭元璹 부자가 滎陽 귀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入關 제 2~3세대로서 西魏에서 당대에 걸쳐서 지배층의 최상단에 성공적으로 정착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長安에서 태어나 滎陽과는 별다른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 滎陽에 대한 그리움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崔仲方과는 다르게, 入關 제 1세대이자 鄭譯의 부친인 鄭道邕은 560년대 초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때문에 鄭譯 집안 내에 崔猷처럼 山東으로의 귀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인물은 없었을 것이다.

入關한 형양정씨 중에서 華北統一 후 귀장한 사례도 있다. 鄭常은 '沙苑之戰' 이후 내부의 시기에 族人인 鄭偉와 함께 入關하였다. Ⅰ장 표1 <西魏·北周 지배집단 내의 入關山東士族> 13번 鄭鼎(頂)이 바로 鄭常의 부친이다.[140] 鄭常은 宣政 원년(578) 都督南兗州諸軍事、南兗州刺史에 임명되었다가 재임 중 사망하여, 大象 2년(580) 형양의 舊塋에 歸葬되었다.[141] 鄭常의 열전에는 "信·東徐·南兗三州刺史"라고 되어있다.[142]

『隋書』「地理志」에 따르면 北魏 때 설치된 南兗州는 후에 亳州로 바뀌었으며[143], 北周 말의 南兗州가 豫州 譙郡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信州, 東徐州, 南兗州에 동시에 임명되었다는 열전의 기록을 따른다면 이 세 지명은 근접한 지역에 위치해있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이때의

---

140) 『周書』 卷 36 「鄭偉傳附族人頂傳」 p.635, "偉族人頂字寧伯, 少有幹用. ... 後隨偉入朝, 賜爵魏昌縣伯, 除太府少卿. ... 子常, 字子元."

141) 「周兗州刺史廣饒公宇文公神道碑」, "大統三年, 起義華陽, 先登廣武, 浮潛逾沔, 入渭亂河, 蒙授永安縣開國男、輔國將軍. ... 宣政元年, 授都督南兗州諸軍事、南兗州刺史. ... 在任遘疾, 薨於方鎭. ... 詔贈本官, 謚某公, 禮也. 以大象二年十日月十日, 歸葬於滎陽之某山舊塋." (『庾子山集注』, pp.912, 918-919.)

142) 『周書』 卷 36 「鄭偉傳附族人頂傳」 p.635, "遷信東徐南兗三州刺史. 以立義及累戰功, 授上開府、儀同大將軍, 賜爵饒陽侯. 卒."

143) 『隋書』 卷 30 「地理志中·豫州·譙郡」 p.836, "譙郡. 後魏置南兗州. 後周置總管府, 後改曰亳州. 開皇元年府廢."

信州는 北齊가 豫州 淮陽郡 項城縣에 설치한 信州이며[144], 東徐州는 北魏 때 설치한 徐州 下邳縣일 것이다.[145]

南兗州와 滎陽의 위치를 지도상에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北魏 지도 일부[146]

鄭常이 묘지명의 기술처럼 南兗州에서 사망하였다면 그의 시신을 長安까지 옮겨서 매장하는 것보다는 그 길목에 있는 滎陽에 묻는 것이 보다 용이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鄭常은 鄭譯과 달리 關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는 大統 3년(537) 河南 지역에서 다른 가문들과 함께 '起義'하여 西魏로 귀부하였고,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곧바로 작과 벼슬을 받았다.[147] 따라서 入關한 시점에 鄭常은 이미 성인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

144) 『隋書』 卷 30 「地理志中·豫州·淮陽郡」 pp.839-840, "項城. 東魏置揚州及丹陽郡、秣陵縣, 梁改曰殷州, 東魏又改曰北揚州, 後齊改曰信州, 後周改曰陳州. 開皇初改秣陵爲項縣." 北周에서는 信州가 四川 지역의 巴東郡이었지만, "巴東郡梁置信州, 後周置總管府, 大業元年府廢."(『隋書』 卷 29 「地理志上·梁州·巴東郡」 p.825) 이 경우에 南兗州나 東徐州로부터 너무 멀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 宣政 원년(578)은 華北統一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北齊의 명칭을 바꾸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45) 『舊唐書』 卷 38 「地理志一·十道郡國·河南道·徐州上」 p.1448, "下邳. 漢下邳郡. 元魏置東徐州, 周改邳州, 隋廢."

146) 谷川道雄, 『隋唐帝國形成史論』, 東京: 筑摩書房, 1971 부록의 「北魏要圖」를 편집한 지도이다.

147) 「周兗州刺史廣饒公宇文公神道碑」, "大統三年, 起義華陽, 先登廣武, 浮潛逾沔, 入渭亂河, 蒙授永安縣開國男、輔國將軍. ... 宣政元年, 授都督南兗州諸軍事、南兗州

鄭常은 入關 1세대로서 고향인 滎陽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鄭常이 비록 성공적으로 西魏·北周 지배집단의 상층부에 위치하였더라도,[148] 그가 형양으로 귀장한 것은 崔猷의 靈壽 귀장 이상으로 훨씬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北周 建德 6년(577)의 華北統一 이후 入關山東士族들에게는 山東으로의 복귀와 長安 잔류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졌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이 모두 山東으로 복귀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며, 그 사례로 들어진 것은 박릉최씨 崔猷·崔仲方 계통의 사례였다. 이들이 山東으로의 복귀를 선택했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 복귀 과정을 살펴보면 이들을 보편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崔猷가 통일 당시에 아직 생존해있었던 것이 그들이 北齊系 山東士族과 재결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崔猷는 당시에 이미 70세 정도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많은 入關 1세대들은 동서 분열 이후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入關 1세대가 사망한 뒤 關中에서 태어나 가장이 된 入關 2세대들에게는 생소한 山東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長安에 잔류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먼 山東으로의 귀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간단한 일이 아니다. 비록 핑계라고 하더라도 鄭譯의 묘지에서는 長安에서 滎陽까지의 귀장을 어려운 일로 여겼고, 崔暟의 묘지에서도 洛陽에서 長安으로의 귀장이 어려운 일임을 드러냈다. 마지막에 살펴본 鄭常의 귀장 사례가 있지만, 그는 入關 1세대였고 또한 사망한 지역이 長安보다 滎陽에서 훨씬 가까웠기 때문에 滎陽으로의 귀장이 오히려 쉬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崔猷 계통의 귀장은 특수한 사례로 보아야한다. 또한, 이 崔猷 계통마저도 崔仲方의 손자 대에 이르러서는 長安을 매장지로 선택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장을 넘겨 살펴보고 싶다.

刺史. … 在任遘疾, 薨於方鎭. … 詔贈本官, 謚某公, 禮也. 以大象二年十日月十日, 歸葬於滎陽之某山舊塋.”(『庾子山集注』, pp.912, 918-919.)

148) 『周書』 卷 36 「鄭偉傳附族人頊傳」 p.635, “以立義及累戰功, 授上開府、儀同大將軍, 賜爵饒陽侯.”

Ⅲ. 『貞觀氏族志』 편찬 중 崔民幹 降格과 崔猷 계통의 關中 복귀

入關山東士族 중에서 崔猷 계통은 建德 6년(577) 華北統一 이후 山東의 靈壽縣으로 귀장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崔猷의 사촌에 해당하는 崔昂 계통과 묘역을 공유하였으며, 山東지역의 향리사회와 재결합하였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그들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먼 河北까지 귀장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이미 唐 대 사족의 매장지에 관해 다룬 연구가 있었지만, 唐 왕조가 들어선 이후 '崔猷 계통'의 매장지 변천에 주목한 것은 없었다.[149]

Ⅱ장에서 서술하였듯이 貞觀 11년(637)까지도 崔猷 계통은 靈壽縣으로의 귀장을 실행하였다. 崔仲方은 大業 10년(614) 洛陽에서 사망하였지만 20여 년이 지나서 靈壽縣에 매장되었다.[150] 이는 아마도 隋 말의 혼란

149) 일찍이 Patricia Ebrey는 당대 박릉최씨와 그들의 부인의 묘지명을 근거로 河北, 長安지역, 洛陽지역, 하남의 기타 지역의 네 분류에 각각 몇 명이 매장되었는지를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이는 박릉최씨 전체, 즉 崔猷 계통 이외의 모든 房支의 사례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崔猷 계통의 매장지를 따로 지적한 것은 아니었다. Ebrey는 이 박릉최씨 연구에서 入關하여 西魏北周에 임관한 박릉최씨의 존재에 대해 지적을 하고는 있지만, 이 唐대 박릉최씨의 매장지 위치에 대해서는 入關한 박릉최씨를 따로 파악하지 않았다(Ebrey, Patricia Buckley, *The Aristocratic Families of Early Imperial China: A Case Study of the Po-ling Ts'ui Famil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p.90-93.) 毛漢光은 방지(房支)별로 山東士族의 매장지 변화를 정리하여 唐대 사족의 중앙화를 논하였다. 여기서 그는 박릉최씨 제2방에 대해서도 崔楷支, 崔孝芬支, 崔孝暐, 支(崔孝暐는 崔孝芬의 동생)로 분류하여 각각의 묘지명 사례를 제시, 매장지가 주로 어디에 형성되었는지 정리하였다. 하지만 毛漢光은 崔孝芬支의 경우 唐太宗과 唐高宗 시기의 중신이자 崔仲方의 손자인 崔敦禮의 묘비 단 한 사례만을 발견하여, 崔猷 계통의 매장지 변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파악하지 못했다(毛漢光, 「從士族籍貫遷移看唐代士族之中央化」, 『中國中古社會史論』,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7, pp.261-262.) 堀井裕之는 『貞觀氏族志』 편찬 과정에서의 崔仲方의 조카인 崔民幹의 降格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묘지명을 소개하였으며, 이로부터 그가 永徽 원년(650)에 遷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崔民幹이 매장된 위치가 雍州萬年縣義善鄉 경계의 少陵原, 즉 長安이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고, 어째서 崔民幹이 靈壽縣이 아니라 長安에 매장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堀井裕之, 「崔民幹事迹与太宗修『貞觀氏族志』－－以『崔幹(崔民幹)墓志』爲線索」, 『唐史論叢』19, 西安: 陝西師范大學出版社, 2014, pp.246-249.)

150) 「崔仲方及妻李氏盧氏墓誌」 "大業 ... 曰以十年七月廿九日, 薨於東都敎業里之第,

상황으로 인해 洛陽으로부터 河北 靈壽縣까지의 안정적인 교통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귀장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봤듯이 鄭譯은 唐 대에 들어선 뒤 얼마 되지 않아 그대로 長安에 매장되었다. 마찬가지로 崔仲方 또한 洛陽에 그대로 매장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후손들이 崔仲方을 기어이 靈壽縣에 매장시킨 것은 崔仲方의 귀장 의지가 후손들에게까지 뚜렷하게 남아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崔仲方과 다르게 그의 조카인 崔民幹은 永徽 원년(650)에 長安에 매장되었고,[151] 崔仲方의 손자인 崔敦禮 또한 顯慶 원년(656)에 長安의 昭陵 주변에 매장되었다.[152] 이들의 매장은 崔仲方이 매장된 시점으로부터 시기적으로 오래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들은 崔仲方의 자식과 손자 세대에 해당하여, 사실상 崔仲方 매장의 주체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崔猷와 崔仲方의 의지를 계승한다면 이들은 長安이 아니라 靈壽縣에 매장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長安에 매장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崔民幹과 崔敦禮의 매장 사례만 놓고 본다면 이들이 일시적으로 長安에 매장되었을 뿐, 그들의 후손은 여전히 靈壽縣 귀장을 지속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보다 후대의 묘지명을 확인해보면, 이때 이후로 崔猷 계통은 靈壽縣으로의 귀장을 중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필자는 崔敦禮의 동생인 崔餘慶의 후손의 사례 두 개를 찾을 수 있었다.[153] 매장 연도순으로 보면, 崔餘慶의 증손자 崔瑛은 開元 17년(729) '京兆府 萬年縣 洪原鄉 鳳

春秋七十有六. ... 改安眞宅, 言歸舊塋. ... 大唐貞觀十一年歲次丁酉十一月辛巳朔五日乙酉葬. 固安公夫人隴西李氏, 上柱國太保公耀之女也. ... 後夫人范陽盧氏, 幽州刺史正山之女. ... 幷以大唐貞觀十一年歲次丁酉十一月辛巳朔五日乙酉, 合葬於靈壽縣之臨山舊塋, 禮也. 長子民燾, 第二子民滌, 第三子民令, 嫡孫敦禮, 孫瑒, 孫餘慶, 孫承休, 孫承福."(『全唐文補遺』8)

151) 「崔幹墓誌」 "永徽元年歲次庚戌二月庚午朔廿七日丙申, 遷葬于雍州萬年縣義善鄉界少陵之原." (堀井裕之, 「崔民幹事迹与太宗修『貞觀氏族志』－－以『崔幹(崔民幹)墓志』爲線索」, p.246.)

152) 毛漢光, p.262.

153) 崔餘慶은 『舊唐書』에서는 崔敦禮의 아들이라고 기술되어있고(『舊唐書』 권81 「崔敦禮傳」 p.2748, "子餘慶, 官至兵部尙書") 『新唐書』의 「宰相世系表」와 「崔敦禮傳」에서는 崔敦禮의 동생이라고 되어있다(『新唐書』 권72下 「宰相世系表二下·博陵第二房崔氏」 p.2804, 권106 「崔敦禮傳」 pp.4044-4045.) 崔仲方의 묘지에는 崔敦禮를 嫡孫, 崔餘慶을 孫이라고 하였기 때문에(「崔仲方及妻李氏盧氏墓誌」 "嫡孫敦禮 ... 孫餘慶") 崔餘慶이 崔敦禮의 동생이라고 기술한 『新唐書』가 맞다.

栖原 先塋之側'에 매장되었다.[154] 다음으로 崔餘慶의 손자 崔葛은 貞元 15년(799)에 萬年縣 鳳棲原에 매장되며 선대의 묘역을 따랐다.[155][156]

두 사례 모두 長安에 매장되었으며, 또한 先塋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윗대부터 이미 이 鳳栖原에 매장지를 조성하고 있었다는 보여준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崔餘慶은 崔敦禮보다 늦게 사망하였고,[157] 崔餘慶의 정확한 사망시점은 알 수 없지만 그를 매장할 때는 이미 崔民幹과 崔敦禮가 長安에 매장되어 있었다. 따라서 崔餘慶 또한 長安에 매장되었고, 아마 崔瑛과 崔葛이 묻힌 鳳栖原의 先塋은 崔餘慶 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崔民幹, 崔敦禮, 崔餘慶, 이 셋은 崔猷의 후손들 중에서도 唐 초기에 정치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이었다. 때문에 이들의 매장지 이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新唐書』「宰相世系表」에 기록된 崔猷의 손자와 증손자 세대의 총원은 10명이고, 그 중에서 벼슬을 한 자는 5명으로 崔敦禮의 아버지 崔燾가 鳳泉令 石城縣男, 崔敦禮의 사촌 崔承福이 越、廣二州都督을 맡은 것을 제외한다면 상기한 셋이 전부이다. 게다가 이 셋은 崔敦禮가 兵部尙書, 侍中, 太子少師 등 고관을 역임하고 固安縣公에 봉해졌으며,[158] 崔餘慶도 兵部尙書를 지냈고, 崔民幹은 黃門侍郎을 지내고 博陵元公에 봉해졌다.[159] 이처럼 고관을 맡았던 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이 셋은 崔猷 손자와 증손자 세대에서 이후의 집안의 방향

---

154) 「大唐故蜀州司士參軍事崔府君墓誌銘幷序」, "公諱瑛, 字子訓, 博陵安平人也. 曾祖餘慶, 皇朝兵部尙書; 祖遵業, 皇朝同州澄城縣令 ; 父恒, 皇朝梁州相如縣令. ... 以開」元十六年十二月十六日於蜀州廳舍倉卒遘禍, 春秋二十有七. 以開元十七年二月二十五日權殯於京兆府萬年縣洪原鄕鳳栖原先塋之側禮也." (『唐代墓誌彙編』下)

155) 「唐故通直郎前京兆府好時縣尉博陵崔府君墓誌銘幷序」, "公諱葛, 字楚萇 ... 曾祖燾, 皇禮部尙書, 祖餘慶, 皇兵部尙書, 列考遵義, 貝州刺史. 公兵部尙書之孫, 貝州刺史第四子也. ... 以貞元十四年九月八日終於鄠之私第, 春秋卌有三. 以明年二月十日歸葬萬年縣鳳棲原, 從先塋, 禮也." (周紹良·趙超, 主編 『唐代墓志彙編續集 』, 上海: 上海古籍, 2001.)

156) 崔瑛과 崔葛의 선조의 계보를 각각 단선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崔猷 - 崔仲方 - 崔燾 - 崔餘慶 - 崔遵業 - 崔恒 - 崔瑛. / 崔猷 - 崔仲方 - 崔燾 - 崔餘慶 - 崔遵義 - 崔葛.

157) 『新唐書』 권106 「崔敦禮傳」 pp.4044-4045, "弟餘慶, 時爲定襄都督府司馬, 召使侍疾. 卒, 年六十一."

158) 『新唐書』 권106 「崔敦禮傳」 pp.4044-4045.

159) 『新唐書』 권72下 「宰相世系表二下·博陵第二房崔氏」 pp.2803-2806.

성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고, 이들이 長安에 매장된 이후로는 崔猷 계통의 묘역이 長安에 새롭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Ⅱ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崔猷와 崔仲方이 靈壽縣으로 귀장한 것은 北齊에서 尙書右僕射를 지낸 崔昂의 계통과 묘역을 공유하고, 또 그들과 결합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唐 초기에 靈壽縣 귀장을 그만두고 長安에 새로 매장지를 만든 崔猷 계통의 결정을 崔昂 계통 또한 따랐을까? 이 당시의 묘지명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없다. 확인 가능한 崔昂 계통의 묘지명 중에서 唐 대 이전 마지막 묘지명은 崔昂의 후처 鄭仲華의 것으로, 鄭仲華는 開皇 8년(588)에 靈壽縣에 매장되었다.[160] 이후에는 景龍 3년(709) 崔昂의 4대손 崔訥이 '東都北邙山之新塋'에 매장된 것이 唐 대에 들어 확인되는 崔昂 계통의 첫 번째 매장 사례이다.[161] 景龍 3년(709)보다 나중에 발견된 묘지는 모두 洛陽 지역에 매장되었다.[162]

---

160) 「崔昂妻鄭仲華誌」"薨於蒲吾縣郭蘇川之舊宅, 春秋六十有六. 卽以開皇八年歲次戊申十一月丙寅朔八日癸酉祔於舊塋."(『隋代墓誌銘彙考』 65번)

161) 「唐故雍州鄠縣丞博陵崔君墓誌銘幷序」"君諱訥, 字思默, 博陵安平人也. ... 高祖昂, 齊中書令、尙書右僕射、華陽公 ... 曾祖君讚, 徐、兗二州長史, 鄭州讚治, 祖德厚, 隋鄧州冠軍縣令. ... 父行成, 皇朝侍御史, 歷司勳、考功員外郎、司元大夫、雍州長安縣令、鄂州刺史. ... 粤以大唐永淳三年三月四日遘疾, 終於永寧里之私第, 春秋五十二. ... 以景龍三年歲次己酉二月戊子朔十五日壬寅反葬於東都北邙山之新塋, 禮也."(周紹良·趙超, 主編『唐代墓志彙編』上, 上海: 上海古籍, 1992.)

162) 崔昂의 5대손 崔杲之는 貞元 3년(787) 洛陽 용문의 서쪽 언덕에 매장되었다.(「唐故壽州霍丘縣主簿崔府君墓誌銘幷序」, "唐貞元三祀龍集丁卯建子月旬之十七日, 故壽州霍丘縣主簿崔府君, 自壽而葬于東都河南縣南山龍門之西原, 禮也. 公博陵人也, 諱杲之, 字某. ... 則公五代祖, 時爲大鴻臚, 雅多公望. 歷仕北齊, 七爲尙書, 更左右僕射, 爵華陽公. 華陽公生舊德傳家, 令名在躬, 仕隨朝, 再爲侍郎, 終散騎常侍." 吳鋼主編, 『全唐文補遺』(千唐志齋新藏專輯), 西安: 三秦出版社, 2006, 270번) 崔昂의 7대손 崔弘禮는 大和 5년(831) 洛陽 북망산에 매장되었다(「唐故東都留守東都畿汝州都防禦使銀靑光祿大夫檢校尙書左僕射判東都尙書省事兼御史大夫上柱國贈司空崔公墓誌銘幷序」"公諱弘禮, 字從周, 博陵人也. ... 曾祖預, 皇監察御史, 贈麟臺丞, 祖育, 皇常州江陰縣令, 烈考孚, 皇湖州長城縣令, 累贈尙書戶部侍郎. ... 卽以大和五年四月己巳二十八日丙申葬於東都洛陽縣郭村北邙原, 祔于先塋也." 『唐代墓誌彙編』下) 마찬가지로 崔昂의 7대손 崔□伯은 開成 5년(840)에 하남지역에 매장되었다(「崔府君(□伯)墓志」"□□□伯, 字敬本, 博陵安平人也. 七代祖昂, 仕北齊爲尙書左僕射, 封華□□. 華陽公生君洽, 仕隋爲水部、司門二侍郎及散騎常侍. ... 嗣子珂以其年十二月, 護公喪出嶺而歸于洛, 以開成五年十一月廿四日, 從先塋窆于河南縣伊汭鄉中梁村, 與夫人同城而異穴." 凍國棟, 「跋"千唐志齋"新藏『崔府君(□伯)墓志』」, 『魏晋南北朝隋唐史資料』, 武漢: 武漢大學中國三至九世紀硏究所, 2008(00).)

崔訥의 묘지명에서 그가 “新塋”에 묻혔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즈음 崔昂 계통의 묘역이 洛陽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때서야 靈壽縣에서 洛陽으로 이동한 것인지, 아니면 崔猷 계통을 따라 長安으로 옮겼다가 다시 景龍 3년(709)에 洛陽으로 옮긴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 8세기 초 이후로는 崔猷 계통은 주로 長安에, 崔昂 계통은 주로 洛陽에 묘역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때부터는 두 지파가 묘역을 더 이상 공유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다시 돌아가서, 박릉최씨 崔猷 계통은 北周 建德 6년(577) 華北統一 이후 靈壽縣으로의 귀장을 시작하고 나서, 貞觀 11년(637)까지도 崔仲方을 靈壽縣에 귀장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이들이 어떤 이유로 唐高宗 초기에 갑작스럽게 묘역을 長安으로 바꾼 것이었을까? 기존 연구에 의거했을 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으로는 唐대에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사족의 중앙화’의 흐름 속에서 崔猷 계통 또한 매장지를 河北에서 長安으로 변경하였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毛漢光은 唐대에 들어 관료층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 향리에 머물러 있기보다 중앙에 머무는 것이 유리해졌기 때문에 사족들이 洛陽과 長安으로 이동하였다고 보았고, 이를 매장지 위치의 변천을 통해 확인하였다.[163]

하지만 毛漢光이 지적한 것처럼 사족이 長安과 洛陽을 비롯한 중심부로 이동하였다고 하는 ‘사족의 중앙화’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졌다. 그가 정리한 房支의 중앙화 시기의 수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唐 代 사족의 籍貫 중앙화 시기[164]

황제	以前	高祖	太宗	高宗	武后	中宗	睿宗	玄宗	代宗	德宗	穆宗	憲宗	文宗	武宗	懿宗	僖宗	총계
수	10	1	1	9	4	1	1	22	4	11	2	7	1	2	1	1	78

이 중에서 唐 대 이전과 高祖, 太宗, 高宗 시기에 長安과 洛陽으로 매장지를 옮긴 방지는 대부분이 낭야왕씨, 난릉소씨, 하동설씨, 하동배씨 등으로, 山東士族의 경우는 入關山東士族인 崔楷, 崔孝芬 계통을 포함하여

163) 毛漢光, 「從士族籍貫遷移看唐代士族之中央化」, 『中國中古社會史論』,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7, pp.235-337.

164) 毛漢光, p.336, 결론 4번 부분의 수치를 표로 정리함.

소수였다.[165] 毛漢光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武后 시기에 山東士族이 적극적으로 등용되었다고 하는 상식과 연결시킨다면, 그들이 玄宗 시기 이후로 사망하여 長安과 洛陽에 새로 매장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崔民幹의 長安 매장은 高宗 재위 극 초기인 永徽 원년(650)에 이뤄졌기 때문에 山東士族의 중앙화, 또는 매장지를 長安이나 洛陽으로 옮긴 추세와는 별개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崔猷 계통이 고종 재위 초에 매장지를 河北의 靈壽縣에서 長安으로 변경한 것은『貞觀氏族志』편찬 과정에서의 崔民幹 降格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舊唐書』와『新唐書』의「高士廉(高儉)傳」,『資治通鑑』의「貞觀 12년 正月條」『貞觀政要』의「論禮樂」등에서 짤막하게 기재되어있다. 오늘날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崔民幹 降格의 해석을 시도해봥쓰지만,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貞觀氏族志』의 실물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해서 실마리를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해석을 어렵게 한 하나의 원인이다. 연구자들은 위의 사서들에 있는 짧은 기술을 바탕으로 崔民幹의 降格을 해석해야 했기 때문에 그 실상에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166]

필자는 앞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崔民幹 降格을 새롭게 해석하고, 또 그로 인해 崔民幹을 비롯한 崔猷 계통의 靈壽縣 귀장 중단을 이해해볼 것이다. 여러 사서들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편찬된『貞觀政要』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정관 6년, 태종은 상서좌복야 방현령에게 말했다: “최근 山東 최, 노, 이 정의 4성을 보면, 비록 몇 대에 걸쳐 가문이 쇠락하였지만, 여전히 옛 지망

165) 毛漢光, pp.329-332.

166)『貞觀氏族志』의 편찬에 관련된 각 사서에서의 기술과 기존 연구에서의 각기 다른 해석에 관해서는 川合安,「『貞觀氏族志』における皇族の等級」,『史朋』49, 札幌: 北海道大學東洋史談話會, 2016, pp.1-15 참고. 이 논문의 중요한 의의는 기존 연구에서『貞觀氏族志』崔民幹 降格에 대해 A설: “崔民幹이 초주본에서 농서 이씨 황실보다도 높게 평가되었다가 수정본에서는 황실과 외척의 다음 단계로 강격된 것이다” B설: “崔民幹이 초주본에서도 황실보다 더 높게 평가되었다는 기록은 없고, 황실을 제외하고 제1등급의 가문으로 평가되었다가 제3등급으로 강격된 것이다”라는 두 가지 설이 혼합되어 있었는데, 사서를 다시 정리했을 때 A설은 과도한 해석이었고, B설을 더 합당하다고 정리한 것이었다. 본 논문에서도 B설을 지지한다.

에 기대어 자랑하길 좋아하며 스스로 사대부라고 칭한다. 매번 여자아이를 다른 가문에 시집보낼 때, 모두 방자하게 빙례의 재물을 요구하며, 많음을 귀하게 여겨 빙례의 많고 적음으로 혼약을 결정하니,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같아, 매우 풍속을 헤치며 예법을 문란하게 한다. 이미 이들은 문망의 경중이 마땅함을 잃었으니, 이치를 모름지기 뜯어 고쳐야한다." 이에 이부상서 고사렴, 어사대부 위정, 중서시랑 금문본, 예부시랑 영호덕분 등에게 조를 내려 성씨를 고쳐 정정하게 하였다. 널리 천하의 보첩을 수합하고, 동시에 사서와 경전에 의거하여, 그 허황되게 과장된 부분을 제거하고 그 진위를 판정하였다. 충성스럽고 어진 자는 기려서 격을 높이고, 어기고 거스른 자는 낮추고 내쳐 『씨족지』를 찬술하였다. 高士廉 등이 씨족의 등급을 정하여 (태종에게) 올릴 때, 드디어 최간을 제1등으로 삼았다.

태종이 일러 말하였다: "나는 山東의 최, 노, 이 정씨와 예전부터 미워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 대에 걸쳐 쇠미해지고, 전혀 관직이 없는데 여전히 스스로를 사대부라고 이르고, 혼인을 맺을 때 다량의 재물을 찾으며, 혹 재능과 식견이 평범함 이하인데도, 교만을 부리고 스스로를 고귀하게 여기고, 조상의 명망을 팔고 부귀함에 의탁한다. 나는 인간 세상이 어째서 그들을 중하게 여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사대부는 능력이 있고 공을 세우면 작위가 높아지고 중해지며, 군주와 부친을 잘 섬기면 충효를 칭찬할 수 있다. 만약 도의가 맑고 소박하며, 학문과 기예가 넓고 통달하였으면, 이들 또한 족히 문호라고 할 수 있으며, 가히 천하 사대부라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최씨와 노씨 같은 무리들은 오직 조상의 영예를 자랑하지만, 어찌 당대의 귀한 자들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공경 이하로는, 어찌 그저 재물을 많이 줘서, 그들과 그들의 기세와 함께 하려하고, 헛된 명성을 좇고 실제의 귀함에 등을 돌려, 영예를 얻으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씨족을 정하는 것은, 진실로 현 왕조의 관면을 드높이고 수립하려는 것인데, 어째서 최간이 오히려 제1등이란 말인가? 그저 경들이 우리의 관작을 귀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로다! 몇 대 이전의 상황을 논하지 말고, 그저 오늘날의 관품과 인재를 취하여 등급으로 삼아, 마땅히 일관되게 헤아려 정하여 영원히 법칙이 되게 하라." 드디어 최간은 제3등으로 매겨졌다. 정관 12년에 이르러 글이 완성되니 합쳐서 100권이었으며, 천하에 반포되었다.[167]

이 인용문을 요약하자면, 唐太宗은 山東의 최씨, 노씨, 이씨, 정씨라는 최상층의 山東士族들이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고귀하게 여기는 것을 문제시하여, 高士廉을 비롯한 측근의 문인관료들에게 가문의 서열을 새롭게 매겨 씨족지를 찬술하게 하였다. 그 결과 高士廉 등은 崔民幹을 제1등으로 매긴 씨족의 서열을 唐太宗에게 제출하였다.[168] 이에 대해 唐太宗은 山東의 최씨, 노씨, 이씨, 정씨는 허명을 가졌을 뿐이고, 唐太宗 자신은 현 왕조의 관면을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어째서 崔民幹을 제1등으로 놓았냐고 하며 편찬자들의 초주본을 비판하고 반려하였다. 이로써 씨족지가 수정되어 崔民幹은 제1등이 아니라 제3등으로 매겨진 채로『貞觀氏族志』가 반포되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이 제기된다.

1) 唐太宗은 왜 山東의 최씨, 노씨, 이씨, 정씨의 위망을 부정하고 억제하려고 했는가.

2) 高士廉 등은 어째서 唐太宗의 지침을 들었음에도 초주본에서 崔民幹을 제 1등의 서열에 위치시켰는가.

3) 唐太宗은 왜 入關山東士族인 崔民幹의 서열을 낮추도록 명령하였는가.

---

167)『貞觀政要』 권7「論禮樂」pp.194-197, “貞觀六年, 太宗謂尙書左僕射房玄齡曰:「比有山東崔、盧、李、鄭四姓, 雖累葉陵遲, 猶恃其舊地, 好自矜大, 稱爲士大夫. 每嫁女他族, 必廣索聘財, 以多爲貴, 論數定約, 同於市賈, 甚損風俗, 有紊禮經, 旣輕重失宜, 理須改革.」 乃詔吏部尙書高士廉、御史大夫韋挺、中書侍郎岑文本、禮部侍郎令狐德棻等, 刊正姓氏, 普責天下譜牒, 兼據憑史、傳, 剪其浮華, 定其眞僞, 忠賢者褒進, 悖逆者貶黜, 撰爲『氏族志』. 士廉等及進定氏族等第, 遂以崔幹爲第一等. 太宗謂曰:「我與山東崔、盧、李、鄭, 舊旣無嫌, 爲其世代衰微, 全無官宦, 猶自云士大夫, 婚姻之際, 則多索財物,. 或才識庸下, 而偃仰自高, 販鬻松檟, 依託富貴. 我不解人間何爲重之? 且士大夫有能立功, 爵位崇重, 善事君父, 忠孝可稱; 或道義淸素, 學藝通博, 此亦足爲門戶, 可謂天下士大夫. 今崔、盧之屬, 惟矜遠葉衣冠, 寧比當朝之貴? 公卿已下, 何暇多輸錢物, 兼與他氣勢, 向聲背實, 以得爲榮. 我今定氏族者, 誠欲崇樹今朝冠冕, 何因崔幹猶爲第一等, 祇看卿等不貴我官爵耶! 不須論數代已前, 祇取今日官品、人才作等級, 宜一量定, 用爲永則.」遂以崔幹爲第三等. 至十二年書成, 凡百卷, 頒天下.(唐 吳兢 撰, 駢宇騫 외 譯,『貞觀政要』, 北京: 中華書局, 2009.)

168) 崔民幹을 崔幹이라고 한 것은 唐太宗 李世民의 ‘民’자를 피휘한 것이다.

4) 唐太宗은 어째서 入關山東士族인 崔民幹과 山東의 최씨, 노씨, 이씨, 정씨를 동일시하였는가.

첫 번째 의문점에 관하여, 陳寅恪은 唐 대에 황실이 '關中本位政策'을 중심으로 '關隴集團'을 우위에 두고 '山東士族'을 억압하려고 했다는 논점을 펼치면서 崔民幹 降格을 하나의 예시로 소개하였다.[169] 布目潮風는 이 崔民幹 降格의 의미가 唐朝가 舊한인귀족을 율령제 하의 관품제의 규제에 종속시키고, 이들의 가격의 우위를 부정하여 옛 귀족질서의 잔재를 극복할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70] 이들의 설명으로써 첫 번째 의문점은 일찍이 해소가 되었고, 이후의 연구자들 또한 대체로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布目潮風는 崔民幹을 단순한 한인문벌의 대표자로 여김으로써 왜 그가 초주본에서 제 1등에 매겨졌는가 하는 두 번째와 그 이하의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연구자들이 崔民幹의 조부인 崔猷를 주목함으로써 해소되었다. 唐長孺는 崔猷가 본래 그의 선조 때부터 本州大中正을 맡는 등 山東의 제 1류 명족이었으나, 崔猷가 宇文泰에게 투신하여 그의 밑에서 벼슬을 지내고 공적을 쌓아 사실상 '關中軍事勳貴集團'의 핵심층에 들어갔던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 또한 唐초까지 끊이지 않고 벼슬을 하였기 때문에 崔猷의 손자인 崔民幹이 山東의 명족이자 關中軍事勳貴集團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이어받아 제1등으로 매겨질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崔民幹이 제3등으로 강격된 것에 대해서는 1등과 2등이 황실과 외척인 이상, 3등이 된 것은 사실상 강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171] 만약 唐長孺의 주장대로라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의문은 그 취지가 약화된다. 사실상 강격이 없었다면, 崔民幹의 조부 崔猷의 배경으로 인해 崔民幹은

169) 陳寅恪, 『隋唐制度淵源略論稿 ; 唐代政治史述論稿』,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9, pp.266-268.

170) 布目潮風, 『隋唐史研究: 唐朝政權の形成』, 京都: 同朋舍, 1979, pp.377-380, 『隋の煬帝と唐の太宗: 暴君と明君、その虛實を探る』, 東京: 淸水書院, 2018, pp.179-181.

171) 唐長孺, 『魏晉南北朝隋唐史三論』,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1992, pp.378-381.

서열이 낮춰진 것이 아니고, 또한 山東의 최, 노, 이, 정씨와는 다른 취급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 외척 가문을 포함한 위계에서 제1등이었던 崔民幹이 제3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격이 내려진 것으로 봐야한다. 또한 唐太宗이 직접적으로 崔民幹의 이름을 들면서 그의 격이 과장되었다고 지적한 이상, 그의 격은 명분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낮춰졌어야 高士廉 등이 다시 唐太宗에게 수정본을 제출하였을 때 통과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만약 수정본에서의 제3등이 초주본의 제1등과 같은 정도로 높은 위상이었다고 한다면 崔民幹이 그의 묘지명에 제3등으로 매겨진 것을 언급했어야 자연스럽다. 묘지명은 해당 인물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현창하는 것이 주된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崔民幹의 묘지명에는『貞觀氏族志』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172] 때문에 唐長孺의 주장과는 달리 崔民幹의 강격은 실질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毛漢光은 唐長孺와 마찬가지로 崔民幹의 조부 崔猷가 西魏·北周 지배집단의 일원이었던 것을 주목하여, 高士廉을 비롯한 씨족지의 편찬자들이 崔民幹을 제 1등에 위치시킨 것은 關中집단과 山東士族의 입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았다. 그럼에도 唐太宗이 崔民幹을 강격시키도록 명령한 것은 唐太宗의 기준(현 왕조의 관면)이 초주본이 제출되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아 唐太宗과 高士廉 등의 입장이 달랐던 것이 원인이라고 보았다.[173]

하지만 만약 毛漢光의 이러한 해석이 성립한다면 唐太宗은 關中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崔民幹을 억압했다는 것이 된다. 실제로 山下將司는 이러한 의문점에 착안하여 唐 초의 지배층 사이에서 '關隴集團'이라고 하는 연대의식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174] 그러나 崔民幹의 계통은 단

172)「崔幹墓誌」(堀井裕之,「崔民幹事迹与太宗修『貞觀氏族志』－－以『崔幹(崔民幹)墓志』爲線索」, p.246.)

173) 毛漢光,『中國中古社會史論』, pp.191-212, 434-438.

174) 山下將司,「唐初における貞觀氏族志の編纂と八柱國家の誕生」,『史學雜誌』111-2, 東京: 史學會, 2002, pp.136-140. 이 논문에서 저자는 川合安의 논문에서 말한 'A설'에 기반하여,『貞觀氏族志』초주본에서 황실이 박릉최씨 崔民幹의 집안보다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八柱國家'라고 하는 개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농서이

순히 두 집단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보다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崔民幹을 강격시켰다는 것을 근거로 '關隴集團' 사이의 연대의식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상술할 것이다.

한편, 唐 초 關隴集團 사이의 연대의식이 존재했음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근거로 崔謙의 후손이 唐 황실과 혼인을 맺은 것을 들 수 있다. 崔謙의 증손자 崔恭禮는 唐高祖의 딸 眞定公主와 결혼하여 부마도위가 되었고, 崔謙의 4대손 崔思古는 唐太宗의 손녀 寶安縣主와 결혼하였다.[175] 崔謙과 崔說 형제의 손자, 증손자 세대의 관력을 살펴보면 여러 명이 州刺史를 맡았던 것이 확인된다.[176] 하지만 이들이 唐 초에 핵심 관료로서 사서에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의 자손이 唐 황실과 혼인은 맺을 수 있었던 것은 崔謙, 崔說 형제의 계통이 隋 황실과 혼인을 맺었으며, 唐 초까지도 그들이 西魏·北周 이후로 줄곧 같은 '關中人'이라고 하는 '동류인식'이 당시의 關隴集團 사이에 존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劉馳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에 대한 답으로써, 오히려 역으로 이 崔民幹 降格을 근거로 入關했던 山東士族들이 華北統一 이후로는 모두 山東으로 복귀했다고 주장하였다.[177] 崔民幹의 조부인 崔猷가 西魏·北周 시기에는 關

씨 唐 황실을 崔民幹의 집안보다 높게 평가할 근거를 『周書』의 편찬 과정에서 삽입시켰고, 이로써 『貞觀氏族志』의 수정본에서는 황실이 崔民幹의 집안보다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八柱國家'라는 개념이 唐太宗 때 만들어졌다는 것은 중요한 발견이며, 唐 황실이 이를 통해 조상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했다는 것 또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川合安가 지적한 것처럼 초주본에서 崔民幹의 집안이 당 황실보다도 높게 평가되었다는 것은 사료에는 없는 내용이며, 또한 후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해석이었다. 山下將司 스스로도 지적하는 것처럼 『貞觀氏族志』의 편찬자들은 唐太宗의 측근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唐 황실을 崔民幹의 집안보다 아래로 평가했다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박릉최씨 崔民幹과 농서이씨 이세민을 비교하여, 황제인 李世民을 崔民幹보다 밑으로 위치시켰다는 것이 된다. 또한 唐太宗의 초주본에 대한 반응에서도 '현 왕조의 관면을 드높이고 수립하려는 것'이라고 하여 관직의 귀함 여부에서 편찬자들을 비판하는 것이지, 군주와 신하 사이에 등급이 잘못 매겨졌다는 논을 펼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수정본이 되고 나서야 唐 황실이 崔民幹의 집안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75) 堀井裕之, 「北魏の東西分裂と山東貴族—「隋·李希仁妻崔芷蘩墓誌」を手掛かりに—」, pp.300-301.

176) 『新唐書』 권72下 「宰相世系表二下·博陵第二房崔氏」 pp.2793-2801.

隴集團의 일원이었다고 하더라도, 唐 초의 崔民幹은 이미 그 전에 山東으로 복귀하여 '山東人'이었다고 한다면 唐太宗이 崔民幹을 山東의 최, 노, 이 정씨와 동일시하고 그의 降格을 명령한 것도 이상하지 않다. 때문에 劉馳의 주장은 『貞觀氏族志』의 崔民幹 降格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하지만 그의 설은 崔民幹의 가족 및 다른 入關山東士族이 실제로 河北으로 복귀했는지, 또는 崔民幹의 계통이 山東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못했고, 崔民幹 降格 그 자체를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堀井裕之는 90년대 말 崔猷 계통의 몇몇 무덤이 발굴되면서 이 계통이 華北統一 이후 北齊계의 山東士族과 재결합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堀井裕之는 劉馳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었다.[178] 하지만 그는 이어진 연구에서 崔民幹이 山東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山東人'으로서 강격 당했다는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堀井裕之는 『貞觀氏族志』의 초주본이 제출된 이후로 唐太宗에 의해 崔民幹이 관력 상에서도 좌천되었다는 점까지 밝혔지만, 崔民幹의 강격과 좌천이 '賢才主義'에 기반하여 남북조시대 이래의 '구질서'를 극복하고 '신질서'가 시작되었음을 모두에게 표명하기 위한 것이었지, 山東士族을 억압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179]

이러한 堀井裕之의 결론은 첫 번째 의문점을 조금 다르게 설명한 것일 뿐, 세 번째와 네 번째 의문점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한 것처럼 보인다. 崔民幹의 계통이 이미 北齊系 山東士族과 밀접하게 결합하였다는 것까지 밝힌 그가 왜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堀井裕之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연구들로부터 그의 생각을 추정하자면, 堀井裕之는 入關山東士族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았던 것 같다. 그는 崔仲方의 계통이 山東士族과 재결합했음에도 여전히 入關山東士族이 關隴集團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앞에서 언급한 崔謙의 후손들이 唐 황실과 혼인을 맺은 것을 근거로 들었다.[180]

---

177) 劉馳, 「山東士族入關房支與關隴集團的合流及其復歸」, pp.553-559.
178) 堀井裕之, 「唐·李百藥撰「崔仲方墓誌」の分析—入關山東貴族の性格をめぐって—」.
179) 堀井裕之, 「崔民幹事迹与太宗修『貞觀氏族志』－－以『崔幹(崔民幹)墓志』爲線索」, pp.253-258.

이는 崔猷 계통과 崔謙 계통이 각기 다른 계통임에도 불구하고, 둘 모두 '入關山東士族'이며 또한 같은 '박릉최씨'이기 때문에 이들이 동일한 행보를 보였을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다. 그로 인해 唐太宗이 '박릉최씨' 崔民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의 降格을 명령했더라도, 또 '박릉최씨' 崔恭禮와 崔思古 등은 당 황실의 공주 및 현주와 결혼하고 있기 때문에 唐太宗이 '박릉최씨'인 崔民幹을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본 논문의 Ⅱ장에서 밝혔듯이 崔猷와 崔謙이 8촌의 관계에 있었고 둘 모두 入關하여 西魏·北周에서 지배층의 핵심에 들어갔었지만, 華北統一 이후 두 계통의 행보는 크게 달랐다. 崔猷 계통은 北周 말, 隋 대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河北 귀장을 실행하였고, 北齊系 山東士族과의 재결합에도 적극적이었다. 崔仲方이 貞觀 11년(637)에 여전히 河北으로 귀장된 것에서 그런 山東 복귀에 대한 의지가 일시적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崔謙·崔說 형제의 계통의 경우, 入關한 1세대가 통일 이전에 사망함으로써 둘 모두 長安에 매장되었고, 그의 후손들 또한 3세대에 걸쳐 長安을 매장지로 유지하여 山東으로의 귀장을 실행하지 않았다. 또한 北齊系 친척이 北周와 隋에서 높은 관직을 얻도록 돕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그들이 山東에 있던 삼촌이나 사촌과 적극적으로 재결합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두 계통의 다른 행보를 기반으로 崔民幹 降格을 다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唐太宗이 山東의 최, 노, 이, 정씨를 비판하며 새로운 씨족지를 만들 것을 주장한 것은 唐太宗이 山東士族을 억압한 것, 또는 구질서를 타파하고 당조의 신질서를 제창한 것이었다.

2) 唐太宗의 측근이기 때문에 高士廉 등의 편찬자들은 唐太宗의 의도에 대해 상당히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關隴集團과 山東士族, 또는 구질서와 신질서의 중간지점을 찾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물로서 崔民幹을 선택하였다. 崔民幹은 a. 조부인 崔猷가 西魏·北周에서 핵심 관원

180) 堀井裕之, 「唐·李百藥撰「崔仲方墓誌」の分析—入關山東貴族の性格をめぐって—」, pp.296-303.

중 하나였으며, b. 예로부터 山東의 최상층 명족인 박릉최씨의 후손이고, c. 華北統一 이후로는 그의 집안이 北齊系 山東士族과 긴밀하게 재결합하고 매장지를 北齊系 박릉최씨와 공유했으며, d. 현 왕조에서도 黃門侍郎이라고 하는 정 4품의 관직을 역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唐太宗이 이러한 편찬자들의 의도를 몰랐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崔民幹은 隋 말에 京兆郡 醴泉縣令으로 있다가 唐高祖가 入關했을 때 투항하여 丞相府主簿로 임명되었고, 武德 원년(618) 六월에 黃門侍郎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十월에 山東道按撫副使로 파견된 바가 있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唐朝가 애초에 崔民幹을 기용하고, 또 山東에 按撫副使로 파견한 것은 그가 關隴集團과 山東士族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배경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181] 이런 과정을 모두 옆에서 지켜본 唐太宗이 崔民幹의 배경에 대해 몰랐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唐太宗은 오히려 崔民幹과 그의 집안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山東人'으로 취급한 것은 아니었을까. 唐太宗은 본래 평소에 '關中人'과 '山東人'을 구분하는 언행을 사용하여, 신하에게 東·西를 구분하는 태도를 지양할 것을 조언받기도 하였다.[182] 唐太宗의 눈에 崔民幹은 굳이 둘 중에 하나로 '꼬리표 붙이기'를 하자면 '山東人'으로 분류가 되었던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崔猷 집안의 河北 귀장이 '關中人'인 唐太宗의 눈에 崔民幹을 '山東人'으로 보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Ⅱ장에서 서술하였듯이 入關山東士族들은 河北 귀장을 하지 않고 長安을 새로운 가족 묘역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았다. 그 와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河北으로 귀장하는 崔猷 집안의 행태는 西魏·北周 지배집단의 후예들에게도 특이하게 보였을 것이다.

唐太宗은 貞觀 11년(637) 二월 자신의 능묘의 위치를 결정하며 조칙을 내

---

181) 堀井裕之, 「崔民幹事迹与太宗修『貞觀氏族志』－－以『崔幹(崔民幹)墓志』爲線索」, pp.246-253.

182) 『舊唐書』 권78 「張行成傳」 pp.2703-2704, "太宗嘗言及山東、關中人, 意有同異, 行成正侍宴, 跪而奏曰:「臣聞天子以四海爲家, 不當以東西爲限; 若如是, 則示人以隘陿.」太宗善其言, 賜名馬一匹、錢十萬、衣一襲. 自是每有大政, 常預議焉. 累遷給事中."

려 이후 여러 공신들을 帝陵 주변에 陪葬시키도록 명령하였다. 이로써 山東 출신의 房玄齡이나 魏徵 등을 포함한 唐太宗 대의 여러 공신들은 長安 지역에 매장되었다.[183] 이처럼 『貞觀氏族志』의 편찬이 이뤄지던 貞觀 6-12년(632-638) 시점에 신하들이 어디에 매장되는지에 대해 신경을 썼던 唐太宗이었기 때문에, 먼 河北의 靈壽縣으로 귀장하는 崔猷 집안을 '山東人'으로 평가한 것도 이상하지 않다.

이처럼 唐太宗이 '關中人'과 '山東人'을 구분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가 '山東四姓'을 지칭할 때 매번 "山東의 최, 노, 이 정(山東崔、盧、李、鄭)"이라고 한 것은 주목해야할 것이다. "최, 노, 이 정씨"라고만 하더라도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山東의 명족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앞에 "山東"을 첨가하는 것은 이중수식으로 불필요해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唐太宗에게 있어서 "關中"의 최씨, 關中의 정씨라고 하는 분류가 따로 존재했다면 "山東"이라는 수식은 필수요소가 된다. 즉, 崔猷 계통은 "山東" 박릉최씨이지만, 崔謙과 崔說 계통은 "關中" 박릉최씨이며, Ⅱ장에서 살펴본 鄭譯의 系統 또한 長安에 잔류하였기 때문에 형양정씨라고는 하더라도 "關中" 형양정씨라고 唐太宗은 인식하지 않았을까. 唐 황실 또한 본래 山東의 명족으로 여겨진 농서이씨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關中人'인 唐 황실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山東"이라는 수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崔民幹에게 이『貞觀氏族志』편찬 과정에서의 降格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본래 崔民幹과 그의 집안은 '關隴集團'과 '山東士族'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특성을 줄곧 적절히 활용해왔다. 崔民幹이 초주본에서 제1등으로 매겨진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崔民幹은 황제에 의해 단독으로 지적당하여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山東人'이라는 꼬리표가 붙음으로써 더 이상 두 집단의 성격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

183) 堀井裕之, 「唐太宗·高宗期の帝陵陪葬墓の形成と氏族政策の展開—太宗昭陵を中心に—」, 『駿台史學』170, 東京: 駿台史學會, 2020, pp.25-34. 貞觀 11년(637) 十一월에는 종실제왕, 공신, 외척, 공주, 부마 등을 唐高祖의 獻陵에 배장시키도록 다시 명령하였으나, 唐太宗의 뒤를 이은 唐高宗은 이들을 唐太宗의 능묘인 昭陵 주변에 매장시켰다.

이러한 唐太宗의 압박으로 인해 崔民幹은 靈壽縣으로의 귀장을 그만두고 묘역을 長安에 새롭게 만들어 唐 황실에 대한 충성을 표명하고, 또 '關中人'으로 복귀할 것을 결정했던 것 같다. 昭陵 주변에 배장된 조카 崔敦禮와는 달리, 崔民幹은 그보다 일찍 사망하여 현 西安市의 남쪽 부근에 매장되었다.[184] 帝陵 주변에 매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매장지를 그곳으로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崔仲方을 河北 靈壽縣에 매장한 것은『貞觀氏族志』가 완성되기 직전인 貞觀 11년(637) 十一월이었다.[185] 같은 해 二월에 唐太宗은 종실과 공신 등을 자신의 능묘 근처에 매장하도록 조칙을 내리기도 했다. 하필 이 시점에 崔仲方을 귀장시킨 것은 唐太宗의 降格 요구가 崔仲方의 귀장보다 시점이 앞이었는지 뒤였는지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唐太宗의 降格 요구가 崔仲方의 귀장보다 앞선 일이었다면 崔仲方의 귀장은 崔猷 계통에서 이 崔仲方의 매장을 마지막으로 靈壽縣 귀장을 그만둘 것을 결심한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시점이 반대였다면, 唐太宗은 崔猷 계통이 먼 河北으로 귀장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들을 '山東人'으로 규정하게 되어 그들의 降格을 요구했을 것이다.

둘 중 어느 경우이든 唐太宗에 의해 집안이 '山東人'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그리고 唐太宗이 비록 신하 중에서는 '공신'으로 한정짓고 있더라도 長安 매장을 권장하는 상황에서 조상을 山東으로 귀장시키는 행위는 당시 사람들에게 크게 눈에 띄었을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매장지를 다시 長安으로 바꾼 결과, 崔敦禮는 후대에『舊唐書』의 열전에서 '雍州咸陽人'으로 기술되게 되었다.[186] 崔說의 4대손 崔沔 또한 '京兆長安人'으로 기록된 반면,[187] 일시적으로 靈壽縣에서 묘역을 공유했던 崔昂 계통

184) 崔民幹의 묘지는 西安市 남교의 長安縣에서 출토되었다(堀井裕之,「崔民幹事迹与太宗修『貞觀氏族志』－－以『崔幹(崔民幹)墓志』爲線索」, p.245.) 唐太宗의 昭陵은 西安市 서북쪽에, 唐高祖의 獻陵은 西安市 동북쪽에 위치해있다.

185)「崔仲方及妻李氏盧氏墓誌」"大唐貞觀十一年歲次丁酉十一月辛巳朔五日乙酉葬."(『全唐文補遺』8)

186)『舊唐書』 권81「崔敦禮傳」 p.2747, "崔敦禮, 雍州咸陽人, 隋禮部尙書仲方孫也. 其先本居博陵, 世爲山東著姓, 魏末徙關中."

187)『舊唐書』 권188「崔沔傳」 p.4927, "崔沔, 京兆長安人, 周隴州刺史士約玄孫也. 自

의 후손 崔弘禮는 '博陵人'으로 적혔다.[188] 崔猷 계통이 만약 崔猷와 崔仲方으로 이어진 河北 귀장의 전통을 이어갔다면, 崔敦禮는 崔弘禮와 마찬가지로 '博陵人'으로 기술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貞觀 연간의 崔民幹 降格을 겪으며 崔猷 계통은 '關中人'과 '山東人' 중 하나의 노선을 확실하게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 이들이 '關中人'이 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이후로는 '雍州咸陽人'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맺음말

『貞觀氏族志』 편찬 과정에서 崔民幹의 降格은 唐 초 지배층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에게 오래도록 완전하게는 해결되지 않는 주제였다. 『貞觀氏族志』가 현존하지 않고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이 일화에 관한 기술은 단편적이고, 주된 대상자인 崔民幹 또한 사서에서 관련된 기술이 거의 없어서 崔民幹이 왜 초주본에서 제 1등으로 책정되었는지, 唐太宗은 그를 왜 강격시키도록 요구하였는지, 崔民幹은 왜 山東의 최, 노, 이, 정씨와 동일시되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崔民幹의 집안 배경에 집중하였고, 이로부터 그가 北魏말 東·西魏 분열기에 入關한 '入關山東士族'의 후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해당 일화에 관한 일부 의문점은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서로 연계되어 남아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崔民幹의 중요한 배경인 入關山東士族에 대해 재검토하고, 그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던 崔民幹의 특성과 그의 동향을 통해 崔民幹의 降格을 이해해보았다.

이를 위해 Ⅰ장에서는 우선 入關山東士族이 西魏·北周 지배집단(關隴集團)에서 자리 잡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入關山東士族은 대체로 '孝武帝의

博陵徙關中, 世爲著姓. 父瑩, 庫部員外郎、汝州長史."

188) 『舊唐書』 권163 「崔弘禮傳」 p.4265, "崔弘禮, 字從周, 博陵人. 北齊懷遠之七代孫."

西遷'과 그 직후의 시기 및 '沙苑之戰' 이후 河東과 河南지역의 향리세력이 西魏에 귀부할 때(534~543) 西魏·北周 지배집단에 편입되게 되었다. 이는 宇文泰 원종세력을 비롯한 北鎭出身者들이 주로 賀拔岳·宇文泰가 入關할 시점과 그 이후의 시기(530~534)에 入關한 것과 비교했을 때 몇 년 늦은 것이었다. 하지만 西魏·北周의 40~50년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여전히 西魏 정권 초창기 때 합류한 것이었다.

또한 入關山東士族과 宇文泰를 비롯한 西魏·北周의 핵심지배층은 쌍방으로 긴밀한 결합을 맺을 필요가 있었다. 이로 인해 西魏·北周에 걸쳐서 入關山東士族은 서로 다른 배경의 세력들과 혼인을 맺어 상호간의 인적 결합을 공고하게 하였다. 또한 關中在地勢力을 제외한 나머지 入關한 지배층 인원들은 많은 경우 東·西魏의 분열로 인해 기존의 가족과 이산하게 되면서 關中에서 새로운 가족을 꾸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약 54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수많은 入關 2세대가 태어나게 되었다. 宇文泰 또한 이때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공신의 자식들을 아들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 이들이 기존의 이질적인 배경을 초월하여 새로운 연대의식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北周 武帝와 鄭譯, 鄭譯과 隋文帝, 崔仲方와 隋文帝와 北鎭 출신과 山東 명족 사이의 우정이 入關 2세대에 사이에 형성되게 되었다.

Ⅱ장에서는 建德 6년(577)의 華北統一 이후 山東으로의 길이 열리게 되면서 入關山東士族이 각자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서술하였다. 이때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河北 귀장을 실행하고 北齊系 山東士族과 재결합한 崔猷 계통의 경우가 入關山東士族 중에서도 일반적인 사례로는 볼 수 없음을 밝혔다. 入關 1세대였던 崔猷는 入關 당시에 '家難'을 당하여 의도치 않게 형제, 누이, 부인, 자식과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되었다. 그런 비극적인 離散 때문인지, 崔猷는 華北이 통일되자 약 70세의 노구를 이끌고 山東으로 향했다. 여기서 그는 40여 년 전 죽은 자신의 형제들을 자신의 사촌인 崔昂의 묘역(河北 靈壽縣)으로 천장시켰고, 자신 또한 몇 년 후에 이곳에 와서 매장되었다. 崔猷 계통은 이와 같은 河北 귀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崔猷의 아들인 崔仲方 또한 靜觀 11년(637)까지도 靈壽縣으로 귀장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崔猷 계통의 귀장은 入關의 당사자였던 崔猷가 華北統一

당시까지 생존해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入關 당시 崔猷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의 젊은 나이였고, 西魏로 직접 入關해온 대부분의 入關 1세대들 중에는 建德 6년(577)에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 崔猷와 여러 면에서 대칭적인 상황에 있었던 崔謙·崔說 형제는 만약 생존해있었다면 崔猷와 마찬가지로 山東 복귀를 추진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建德 6년(577)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이들 계통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入關 2세대로서 關隴集團의 일원으로 성장한 아들들의 손에 달려있었다. 이 아들들의 묘지명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후손의 묘지명에는 崔謙과 崔說 이후로 3대에 걸쳐서 長安을 묘역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써 崔謙과 崔說 계통은 崔猷 계통과는 달리 華北統一 이후로도 山東 귀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고, 또한 이들은 東魏·北齊에서 지내던 친척들과도 관계를 회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崔謙·崔說 형제 이외에도 西魏·北周·隋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성공한 鄭譯 또한 사후에 長安에 매장되어, 滎陽으로의 귀장을 실행하지 않았다. 형양정씨 중에 귀장한 사례가 있지만, 그는 滎陽보다 동쪽에 있는 南兗州에서 사망하여, 長安까지 이송할 바에는 중간 길목에 있는 滎陽에 매장하는 것이 보다 쉬운 선택이었기 때문에 滎陽 귀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에서 주장한 것과는 달리, 華北統一 이후의 국면에서도 入關山東士族은 각기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내렸다. 모든 入關山東士族 가문을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주로 山東에서 태어나 關中지역에 직접 들어온 入關 1세대와 關中에서 태어나 西魏·北周에서 關隴集團의 일원으로서 성장한 入關 2세대 사이의 차이에서 山東 복귀와 長安 잔류라는 각기 다른 선택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Ⅲ장에서는 Ⅱ장까지 살펴본 崔猷 계통의 특수성, 즉 다른 入關山東士族 가문들이 長安에 잔류하는 와중에 지속적으로 河北 귀장을 실행하고 北齊系 山東士族과 재결합한 행태를 기반으로 『貞觀氏族志』 편찬 과정에서의 崔民幹 降格을 재해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자의 성과를 거치며 차근차근 이 일화와 관련된 의문점들을 해소하여 왔지만, 여전히 崔民幹이 入關山東士族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唐太宗에게 '山東人'

을 당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崔猷 계통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으로 河北으로 귀장하고 北齊系 山東士族과 혼인을 맺는 등 山東 복귀 쪽으로 치우쳐진 崔猷 계통과 그 일원 崔民幹은 굳이 '關中人' 또는 '山東人'으로 꼬리표를 붙이자면 '山東人'에 가까웠을 수 있다.

唐太宗 또한 崔民幹에게 두 가지 특성이 공존한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고, 『貞觀氏族志』의 편찬자들은 그러한 이중성을 고려하여 초주본에서 崔民幹을 제1등에 위치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唐太宗과 같은 關隴集團 핵심층의 인물의 시선에서는 崔謙·崔說 계통이 '關中人'으로서 長安에 잔류하여 隋 황실의 외척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山東士族과의 재결합을 추구하는 崔猷 가문을 더 이상 關隴集團의 일원으로 취급해주고 싶지 않았을 수 있다. 게다가 唐太宗은 신하가 황제의 무덤과 가까운 곳에 매장될 것을 요구할 만큼 매장지의 위치에 대해 민감했기 때문에, 崔猷 계통의 여러 차례에 걸친 河北 귀장은 더욱 더 그들을 '山東人'으로 취급해야할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崔民幹은 唐太宗에게 직접적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入關山東士族으로서 關隴集團과 山東士族의 이득을 동시에 취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황제에 의해 '山東人'이라는 꼬리표가 붙음으로써 정치·사회적 운신에 제한이 걸리게 되었다. 崔民幹을 비롯한 崔猷 계통의 인물들은 이 일로 인해 崔仲方을 매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河北으로의 귀장을 하지 않고 長安에 새로운 묘역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唐太宗의 지적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關中人'으로 다시 복귀하고자 한 것이다.

본 논문은『貞觀氏族志』편찬 과정에서의 崔民幹 降格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하여 '入關山東士族'에 대해 재검토해보았다. 이로써 이들이 西魏·北周 지배집단에 긴밀하게 결합하였으며, 특히 入關 2세대의 경우에는 더욱 더 關隴集團으로서의 연대의식을 형성했을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關中人'으로서의 강고한 결합으로 인해 入關 1세대인 崔猷는 華北統一 이후 山東으로의 복귀를 추구하였지만, 入關 2세대가 가장을 담당한 집안에서는 山東士族이라고 하더라도 山東으로의 복귀 또는 친척 및 기존에 결혼망을 형성하고 있던 집단과의 재결합에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로써 같은 入關山東士族, 또는 같은 '入關 박릉최씨'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고, 각기 다른 조건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또한 崔猷 계통의 특수성을 확인하여 崔民幹 降格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崔猷 계통과 그 일원인 崔民幹은 '關隴集團'과 '山東士族'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入關山東士族에 비해서 보다 '山東士族'에 치우쳐진 행태를 보였고, 이로 인해 唐太宗에 의해 '山東인'의 꼬리표를 받게 되어 초주본의 제1등의 서열에서 제3등으로 강격 당하게 된 것이었다. 다만 入關山東士族의 동향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볼 수 있는 주제로는『貞觀氏族志』의 崔民幹 降格 이외에도 唐太宗의 혼인정책, 昭陵陪葬, 唐高宗의 禁婚令 등 당초의 씨족정책들이 있으나, 거기까지는 탐구하지 못하였다.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싶다.

참 고 문 헌

사료

가. 墓地, 出土文獻, 圖錄

趙超 著.天津 : 天津古籍出版社, 1992.

羅新·葉煒, 『新出魏晋南北朝墓誌疏證』(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2016.

西安市文物稽查隊 編, 『西安新獲墓誌集萃』, 北京: 文物出版社, 2016

吳鋼 主編,『全唐文補遺』1, 西安: 三秦出版社, 1994.

吳鋼 主編,『全唐文補遺』2, 西安: 三秦出版社, 1995.

吳鋼 主編,『全唐文補遺』3, 西安: 三秦出版社, 1996.

吳鋼 主編,『全唐文補遺』4, 西安: 三秦出版社, 1997.

吳鋼 主編,『全唐文補遺』5, 西安: 三秦出版社, 1998.

吳鋼 主編,『全唐文補遺』6, 西安: 三秦出版社, 1999.

吳鋼 主編,『全唐文補遺』7, 西安: 三秦出版社, 2000.

吳鋼 主編,『全唐文補遺』8, 西安: 三秦出版社, 2005.

吳鋼 主編,『全唐文補遺』(千唐志齋新藏專輯), 西安: 三秦出版社, 2006.

吳鋼 主編,『全唐文補遺』9, 西安: 三秦出版社, 2007.

王其禕·周曉薇,『隋代墓誌銘匯考』, 北京: 線裝書局, 2007.

趙超,『漢魏南北朝墓誌彙編』,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2.

周紹良·趙超, 主編『唐代墓志彙編』上·下, 上海: 上海古籍, 1992.

周紹良·趙超, 主編『唐代墓志彙編續集 』, 上海: 上海古籍, 2001.

나. 傳世文獻史料

『魏書』,『北齊書』,『周書』,『隋書』,『南史』,『北史』,『舊唐書』,『新唐書』(이상 正史類는 모두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唐六典』(唐 李林甫 等撰, 陳仲夫 點校,『唐六典』, 北京: 中華書局, 1992)

『唐會要』(宋 王薄 撰,『唐會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元和郡縣圖志』(唐 李吉甫 撰, 賀次君 點校,『元和郡縣圖志』, 北京: 中華書局, 1983)

『元和姓纂』(唐 林寶 撰, 岑仲勉 點校,『元和姓纂』, 北京: 中華書局, 1994)

『庾子山集』(北周 庾信 撰, 淸 倪璠 注, 許逸民 點校,『庾子山集注』, 北京: 中華書局, 1980)

『資治通鑑』(宋 司馬光,『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 2007)

『貞觀政要』(唐 吳兢 撰, 駢宇騫 外 譯,『貞觀政要』, 北京: 中華書局, 2009)

『通典』(唐 杜佑 撰,『通典』, 北京: 中華書局, 2007)

연구서

가. 國文

서울大學校東洋史學硏究室 編,『講座中國史Ⅱ: 門閥 社會와 胡·漢의 世界』, 서울: 지식산업사, 1989.

이계명,『西魏·北周·隋唐의 官僚的 門閥士族硏究』,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7.

나. 中文

譚其驤 主編,『中國歷史地圖集·魏晉南北朝』, 北京 : 中國地圖出版社, 1982-1987.

唐長孺, 『魏晉南北朝隋唐史三論: 中國封建社會的形成和前期的變化』, 武昌: 武漢大學出版社, 1992.

毛漢光,『中國中古社會史論』,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7.

_____,『中國中古政治史論』,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2.

史爲樂 主編,『中國歷史地名大辭典』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王怡辰,『東魏北齊的統治集團』, 北京: 文史哲大系出版社, 2006.

汪籛, 唐長孺 主編,『汪籛隋唐史論稿』, 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王仲犖,『北周六典』, 北京: 中華書局, 1979.

王仲犖,『北周地理志』, 北京: 中華書局, 1980.

呂春盛,『關隴集團的權力結構演變-西魏北周政治史硏究』, 臺北: 稻鄉出版社, 2002.

陳鈍之 主編,『隋墓誌銘六品』, 北京: 中國書店, 2017.

陳寅恪,『隋唐制度淵源略論稿 ; 唐代政治史述論稿』,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9.

다. 日文

谷川道雄,『隨唐帝國形成史論』, 東京: 筑摩書房, 1971.

堀敏一,『東アジア世界の形成』, 東京: 汲古書院, 2006.

堀内淳一,『北朝社會における南朝文化の受容 - 外交使節と亡命者の影向』, 東京: 東方書店, 2018.

氣賀澤保規,『中國石刻資料とその社會: 北朝隋唐期を中心に』, 東京: 明治大學文學部東洋史研究室, 汲古書院, 2007.

前島佳孝,『西魏·北周政權史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2013.

川勝義雄·礪波護 編,『中國貴族制社會の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87.

布目潮風,『隋唐史研究: 唐朝政權の形成』, 京都: 同朋舍, 1979.

_____,『隋の煬帝と唐の太宗: 暴君と明君、その虛實を探る』, 東京: 淸水書院, 2018.

라. 英文

Abramson, Marc Samuel, Ethnic identity in Tang Chin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8.

Ebrey, Patricia Buckley, The Aristocratic Families of Early Imperial China: A Case Study of the Po-ling Ts'ui Famil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Lewis, Mark Edward and Brook, Timothy, China's Cosmopolitan Empire: The Tang Dynasty,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Tackett, Nicolas, The destruction of the medieval Chinese

aristocrac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4.

Xiong, Victor, China and Inner Asia: State and Society in Early Medieval China edited by Albert E. Di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Wright, A. F. and Twitchett, Denis, eds. Perspectives on the T'ang, New Haven: Yale Univ. Press, 1973.

연구논문

가. 國文

박한제, 「西魏·北周時代 胡漢體制의 展開: 胡姓再行의 經過와 그 意味」, 『魏晉隋唐史硏究』1, 서울: 思想社, 1994.

_____, 「東魏·北齊時代의 胡漢體制의 展開—胡漢葛藤과 二重構造—」,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硏究室 編, 『分裂과 統合—中國中世의 諸相—』, 서울: 지식산업사, 1998.

나. 中文

堀井裕之, 「崔民幹事迹与太宗修『貞觀氏族志』－－以『崔幹(崔民幹)墓志』爲線索」, 『唐史論叢』19, 西安: 陝西師范大學出版社, 2014.

段銳超, 「隋《獨孤羅墓志》考釋及相關史志歧异問題辨正」, 『陝西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39-1, 漢中: 陝西理工大學 文學院, 2021.

凍國棟, 「跋“千唐志齋”新藏『崔府君(□伯)墓志』」, 『魏晋南北朝隋唐史資料』, 武漢: 武漢大學中國三至九世紀硏究所, 2008(00).

倪潤安, 「河北曲陽北魏崔楷墓的年代及相關問題」, 『中國國家博物館館刊』, 北京: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 2013-2.

龍成松, 「『鄭譯墓誌』與開皇樂議相關史料辨正」, 『中國音樂學』, 2019-2.

劉連强 외, 「河北平山縣西岳村隋唐崔氏墓」, 『考古』, 2001-02.

劉馳, 「山東士族入關房支與關隴集團的合流及其復歸」, 『古史文存』(秦漢魏晋南北朝卷),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

陳根遠, 「隋『鄭譯墓誌』」, 『書法』, 2018-6.

叢文俊, 「北魏崔宣默、崔宣靖墓志考」, 『中國書法』, 2001-11.

다. 日文

谷川道雄, 「武川鎭軍閥の形成」, 『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報告』8, 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 1982.

堀井裕之, 「卽位前の唐太宗·秦王李世民集団の北齊系人士の分析」, 『駿台史學』, 東京: 駿台史學會, 2005.

_____, 「唐·李百藥撰「崔仲方墓誌」の分析—入關山東貴族の性格をめぐって—」, 氣賀澤保規編, 『中國石刻資料とその社會—北朝隋唐期を中心に—』, 東京: 汲古書院, 2007.

_____, 「唐朝政權の形成と太宗の氏族政策: 金劉若虛撰<裴氏相公家譜之碑>所引の唐裴滔撰<<裴氏家譜>>を手掛かりに」, 『史林』95(4), 2012(7).

_____, 「北魏の東西分裂と山東貴族—「隋·李希仁妻崔芷蘩墓誌」を手掛かりに—」, 『明大アジア史論集』18, 東京: 明治大學東洋史談話會, 2014.

_____,「隋代弘農楊氏の研究―隋唐政權形成期の「門閥」―」,『東洋文化研究』19, 東京: 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2017.

_____, 「唐太宗·高宗期の帝陵陪葬墓の形成と氏族政策の展開―太宗昭陵を中心に―」, 『駿台史學』170, 東京: 駿台史學會, 2020.

吉岡眞,「北周·隋唐支配層の推移」,『岩波講座 世界歴史9: 中華の分裂と再生 3-13世紀』, 東京: 岩波書店, 1999

山下將司, 「西魏·北周における本貫の關隴化について」, 『學術研究 地理學·歴史學·社會科學編』49, 東京: 早稲田大學教育會, 2001.

_____,「唐初における『貞觀氏族志』の編纂と「八柱國家」の誕生」,『史學雜誌』111(2), 東京: 史學會, 2002.

_____,「唐·開元二十六年「北周·尉遲迥廟碑」について」,『學術研究 地理學·歴史學·社會科學編』50, 東京: 早稲田大學教育會, 2002.

_____, 「隋·唐初期の獨孤氏と八柱國問題再考－開皇二十年「獨孤羅墓誌」を手がかりとして 」, 『學術研究 地理學·歴史學·社會科學編』 51, 東京: 早稲田大學教育會, 2003.

_____, 「玄武門の変と李世民配下の山東集団－房玄齡と齊濟地方－」,『東洋學報』85(2), 東京: 東洋文庫, 2003.

室山留美子, 「北魏漢人官僚とその埋葬地選擇」, 『東洋學報』87-4, 東京: 東洋文庫, 2006.

_____, 「隋開皇年間における官僚の長安·洛陽居住」, 『都市文化研究』12, 大阪: 大阪市立大學, 文學研究科·都市文化研究センター, 2010.

小林聰,「北朝·隋唐における南朝系人士についての基礎的考察: 理論的な枠組みの提示を中心に<人文·社會科學>」, 『埼玉大學紀要. 教育學部』66(1), 2017.

川合安,「『貞觀氏族志』における皇族の等級」,『史朋』49, 札幌: 北海道大學東洋史談話會, 2016.

會田大輔, 「北周宇文護執政期再考—宇文護幕僚の人的構成を中心に—」,『集刊東洋學』98, 仙台: 中國文史哲研究會, 2007.

_____,「北周宗室の婚姻動向—「楊文■墓誌」を手がかりとして」, 『駿台史學』144, 東京: 駿台史學會, 2012.

_____, 「北周武帝親政期·宣帝期における側近官の人的構成」, 『明大アジア史論集』18, 東京: 明治大學東洋史談話會, 2014.

會田大輔,「北周武帝の華北統一」, 窪添慶文 編,『魏晋南北朝史のいま』, 東京: 勉誠出版, 2017.

라. 英文

Davis, Timothy M. “Entombed Epigraphy in Early Medieval Commemorative Culture and the Rise of Muzhiming as a Literary Genre”,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nnual Meeting, April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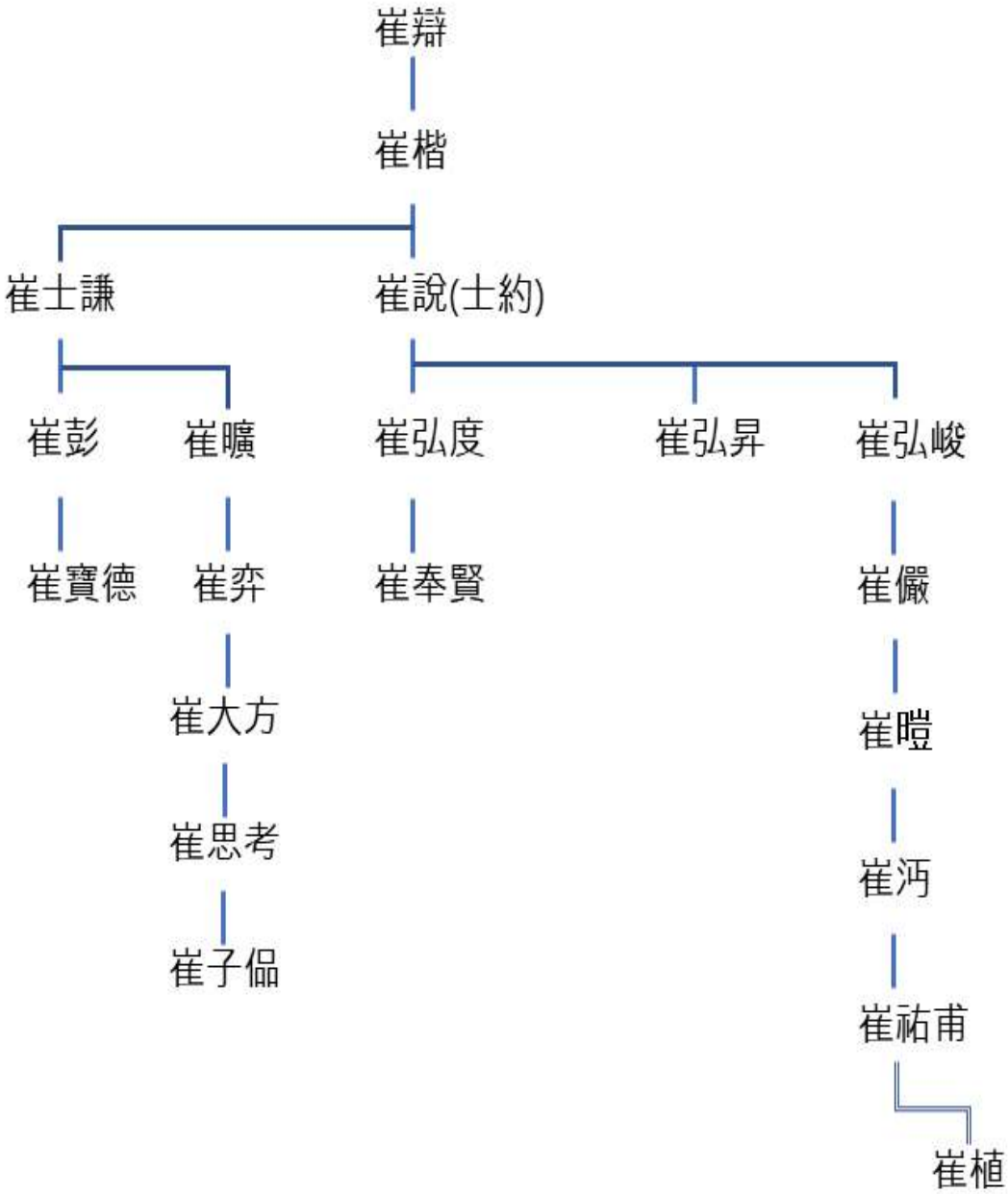
Herbert, P. A, “Perceptions of Provincial Officialdom in Early Tang China” *Asia Major*, 3rd series 2.1(1989): 25-57.

Grafflin, Dennis, “The Great Families in Medieval South China.”,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1.1(1981): 6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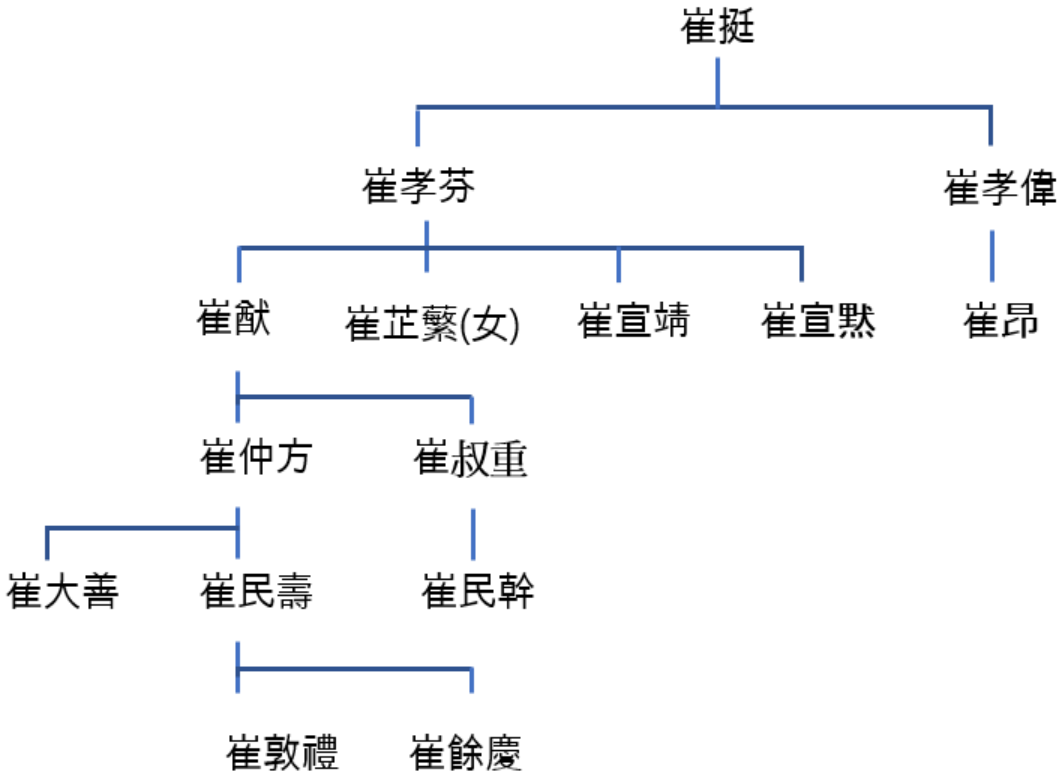
Tackett, Nicolas, “The Evolution of the Tang Political Elite and its Marriage Network”, Journal of Chinese

History 4.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부록1 崔謙, 崔說 계통 박릉최씨 계보도



부록2 崔猷 계통 박릉최씨 계보도



Abstract

The Return and Stay of "Shandong aristocrats who entered Guanzhong"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Northern China in AD 577

Ryoo, Junghwan
Departmen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handong Aristocrats who entered Guanzhong" are the people who entered the Guanzhong region from the Shandong region, when the Northern Wei was divided into the east and the west. In the early Tang period, the elite society was composed largely by the three groups: The Shandong aristocrats that maintained their family for centuries based on the Shandong region, the Guanlong elites that was the amalgamation of the distinctive groups of people based on the Guanlong region, and some elites from the Southern dynasties.

The uniqueness of the "Shandong Aristocrats who entered Guanzhong" was that they ha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andong aristocrats and the Guanlong elites at the same time.

In the previous research, "Shandong Aristocrats who entered Guanzhong" was taken noted due to the figure, Cui Min-gan. During the compilation of the *Zhenguan shizuzhi*, Cui Min-gan was graded in the first rank in the draft. However, Tang Tai-zong pointed out Cui Min-gan, and ordered to degrade him. The researchers have correctly explained why he was the first rank, by paying attention to his grandfather, Cui You. Cui You participated in the Western Wei regime and was the member of the Guanlong elites. That is, Cui You and his descendants were the Shandong Aristocrats who entered Guanzhong", and were able to be rated highly. Still, the reason why Tang Tai-zong pointed out Cui Min-gan to be relegated is yet not explained. Therefore,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social movements of the "Shandong Aristocrats who entered Guanzhong", especially about their decisions whether to return to Shandong or to stay in Guanzhong when the Northern China was unified in AD 577. By doing 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i You family and the relegation of Cui Min-gan will be further explained.

In the late Northern Wei period, revolts broke out all over the dynasty. In the end, the Northern Wei was divided in the east and west, and such status continued until AD 577 for more than 40 years. In the Western Wei,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gathered into the Guanlong region, and formed a new ruling group. Here, Shandong aristocrats were not the core part of the regime. However, they mostly joined during the mid AD 530s to the early AD 540s, which means that they were the early participators of the regime.

Though "Shandong Aristocrats who entered Guanzhong" were not

the center of the ruling group, lots of them participated in the important wars and policies. As a result, many of them served as high officials. Also, “Shandong Aristocrats who entered Guanzhong” were incorporated with other Guanlong elites, mainly through intermarriage. Furthermore, at around AD 540, the second generation of Guanlong elites were born in the Guanlong region. As they were born in Guanlong and grew up together, they built stronger identity as the Guanzhong people.

In AD 577, the Northern China was unified. “Shandong Aristocrats who entered Guanzhong” were opened to go back to Shandong region, which is the origin of their clan. In the precedent studies, it was assumed that “Shandong Aristocrats who entered Guanzhong” returned to the Shandong region and rejoined with the Shandong aristocrats of the eastern regime. The case of Cui You family was raised as an example of the return. However, by examining the epitaphs of the other families of the “Shandong Aristocrats who entered Guanzhong”, it is checked that there were families that did not return to Shandong, but stayed in Guanlong region instead.

The factor to explain the diverge of the “Shandong Aristocrats who entered Guanzhong” is generation. In case of Cui You family, Cui You, who himself entered the Guanzhong region was still alive when the Northern China was unified in AD 577. Also, to trace Cui You after AD 577, it is explicit that he himself went to the Shandong regoin and met his siblings and acquaintances of the eastern regime. Also, it is probable that he decided the location of the his family burial in the Hebei region. Therefore, Cui You was the crucial medium for his family to return to Shandong.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s of the family that stayed in Guanlong region, the first generation that entered the Guanzhong region were already dead. So

they did not have the link to connect with the Shandong, and thus rather decided to stay in the Guanlong region.

To consider the idiosyncrasy of the Cui You family, it can be assumed that Tang Tai-zong regarded Cui Min-gan and his family as 'Shandong people.' Tang Tai-zong was a person who was inclined to label certain person as 'Shandong person' or 'Guanzhong person.' Also, it is plausible to speculate that he considered the location of the graveyard highly, as he ordered meritorous officials to be buried near the royal mausoleum. This maybe why Tang Tai-zong labeled Cui Min-gan as 'Shandong person' and ordered his relegation.

As a result of being pointed out by the emperor, Cui Min-gan and the other descendants of Cui You stopped the burial in Hebei region, and chose their graveyard in the Guanzhong region. It maybe the reaction in order to change their label from 'Shandong people' into 'Guanlong people', and to survive in the Tang regime.

keywords : Shandong Aristocrats who entered Guanzhong, *Zhenguan Shizuzhi*, Cui Min-gan, The Second Generation, Unification of the Northern China, Burial back in Hometown
Student Number : 2018-29075